

혜국 스님(총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유신론 · 운명론
모두 인간 마음서 비롯돼
6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4월 18일) · 주간

제1047호 2015년 6월 4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법구경〉
한 그루의 나무를 자르지 말고
욕망의 숲 전체를 잘라라.
위험은 욕망의 숲에서 생긴다.

인사 · 회계부터 문화재 보존까지 '사찰 경영' 모든 것 담다

동국대, 불교 최초 '사찰 경영' 개론서 발간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이 가지는 욕구와 요구도 빠르게 변한다. 사찰 운영도 마찬가지다. 변화하는 대중의 요구를 파악하지 못하면 포교는 물론이고 사찰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이제는 '사찰 경영'이라는 신조어가 낯설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동국대 정각원과 경영전문대학원은 공동으로 '사찰경영 최고위 과정'을 2010년 개설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조계종 연수에도 이와 동일한 과정이 과목으로 개설됐다. 스님들의 관심도 높다. 동국대의 최고위 과정의 경우 현재까지 90명의 스님과 20명의 재가자가 이수했으며, 조계종 연수의 사찰경영 과목은 매회 접수 정원을 초과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 '사찰 경영'에 대한 출재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사찰 경영을 전문적으로 다룬 교재나 개론서가 없었던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그간 '사찰경영 최고위 과정'을 운영해온 동국대 정각원과 경영전문대학원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사찰경영론(사진)〉을 최근 발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에 발간된 〈사찰경영론〉은 사찰 운영과 행정을 경영적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특히 '사찰 경영'을 주제로 개론서가 발간된 것은 한국불교계에서는 처음 이뤄지는 것이어서 의미를 더한다.

집필진으로는 성상현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 · 황진수 위덕대 석좌교수 ·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 · 홍사성 〈불교평론〉 주간 등 경영 · 행정 · 인사 분야부터 언론 · 포교 · 코칭까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신뢰성을 높였다. 편찬 책임은 하춘생 사찰경영최고위과정 주임교수가 맡았다.

개론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사찰 경영의 정의를 비롯해 △종무행정과 경영관리 △신도관리와 법회운영 △대중교화와 복지활동 △사찰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등 사찰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세부적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경영 · 포교 전문가 집필
사찰 운영 'A to Z' 까지
사례 제시로 신뢰 더해

"사찰 경영의 도착점은
사찰 본연의 기능 회복"

이밖에도 기부활성화, 국고 보조금 활용 관리, 불교 리더십, 미디어 활용 등 사찰 경영 전반을 이해하기 위한 세부 분야들도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

그렇다면 '사찰 경영'이 필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사찰 경영의 정의를 집필한 성상현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사찰 경영이란 사찰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체계적인 경영활동"이라며 "종무행정이 종단과 사찰 전체에 걸친 광의의 거시적 개념이라면 사찰 경영은 개별 사찰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 경영 관리"라고 사찰 경영을 설명하고 있다.

'사찰경영과 회계'를 기술한 이상철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도 "신도 감소와 재정 악화는 한국불교가 신도 속으로 다가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긴급한 신호로 파악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선불교에 사찰경영을 접목해서 생산적 불교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론서 발간에 대해 하춘생 동국대 사찰경영최고위과정 주임교수는 편찬사에서 "인간 경영의 모범을 보이며 오늘날의 교육과 복지의 이념을 실천해 갔던 역동성이 초기불교 당시의 사찰의 참모습"이라며 "사찰과 경영의 만남, 그 도착지는 전국 사찰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찾아가는 데 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은 5월 25일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봉축 법요식을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원로의장 밀운 ·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사부대중 1만여명이 참석했다.

"화합과 존중의 사회 만들어가자"

전국 사찰,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법요식이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5월 25일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봉축법요식을 개최했다.

이날 법요식에는 원로의장 밀운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 중앙종회 의장 성문 스님을 비롯해 남궁성 원불교 교정원장, 박남수 천도교 교령 등 이웃종교인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요식은 사회에 만연된 갈등과 대립을 넘어 공존과 상생을 기원하는 자리였다. 세월호 유가족과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으로 평가받는 기륭전자 노조의 유흥희 분회장, 성소수자를 대표해 김조광수 영화감독이 초청돼 부처님 전에 헌화했다.

이날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원로의장 밀운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신 참뜻을 생각할 것을 강조했다.

진제 스님은 법어를 통해 "남을 위해 등을 밝히는 이는 부처님과 보살님께 등을 올리는 것"이라며 "그러니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등을 밝히고, 모든 이웃의 아픔을 같이하는 등을 밝히고 모든 유주무주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등을 밝혀 부처님 오시는 길을 아름다운 등으로 장엄하자"고 설했다.

남북발원문 4년만에 발표
소외계층 초청해 헌화 눈길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봉축사에서 화합과 배려가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을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봉축사에서 "권위와 분노보다는 아픈 가슴을 보듬고 처진 어깨를 안아줄 수 잇는 자애롭고 따뜻한 지도자가 많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봉축메시지에서 "사랑도, 지혜도, 행복도, 모두 내안에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우리사회가 화해와 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요식에서는 남북불교도가 함께 통일을 기원하는 공동 발원문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봉축 법요식에서 남북공동발원문이 발표되는 것은 4년만의 일이다.

중앙종회의장 성문 스님이 대표로 낭독한 공동발원문에서 남북 불자들은 "우리들은 남북공동선언을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법등으로 삼고 그 실천행에 용맹정진하겠다"고 서원했다.

이날 법요식에서는 제12회 불자대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자승 스님은 불자대상 수상자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 김현집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사령관, 구본일 BTN불교TV 대표이사에게 그간 불교 위상 제고와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치하하며 상패를 전달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황교안 총리 후보 종교편향 우려"

교구본사 · 불교 시민사회, 임명 반대 '한목소리'

"헌법보다 교회법이 우위"
황 후보 저서 기술 논란

본사 주지, 비판 이어가
시민사회 "지명 철회하라"
범종교 연석회의 발족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가 보여줬던 종교편향 이력에 불교계가 공분하고 나섰다.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현 정권이 기독교 편향적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불교 시민사회단체와 신행단체들은 총리 지명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우송)는 5월 28일 속초 신흥사에서 제3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의성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현 정부의 종교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호성 스님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종교적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인물"이라며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것은 고의성이 다분하다. 대통령의 종교관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낙단보 마애불 앞에 설치된 불단, 연등을 철거하게 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성토했다. 스님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낙단보 마애불의 불단과 연등에 대해 철거 통보한 것은 자체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 배후에 정부가 있는 것"이라며 "편협한 종교관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힐난했다.

불교계 시민사회 단체와 신행단체들도 황교안 총리 후보자 임명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교회법이 헌법보다 상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등 정교분리 원칙에서 크게 벗어난 인물이 총리가 될 경우 종교편향적 행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퇴휴)는 5월 2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총리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며,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 이하 대불청)는 성명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쌓아왔던 기본적 인권가치에 어긋난 사고를 갖는 인물"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화합에 역행하고, 국론분열의 중심이 된 황교안 총리내정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허태곤)도 성명서에서 "정교야합의 표본적 인물이 총리에 임명된다면, 더 이상 사회통합은 기대할 수 없고 끊임없는 국론분열이 계속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황교안 내정자의 총리 임용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바른불교재가모임(상임대표 우희종) 역시 성명을 통해 "그가 배타적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둔 국정철학을 펼쳐 갈 것은 분명하다"면서 황 내정자의 과거 종교편향 발언과 행위에 대한 사과와 박 대통령의 황 총리 후보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황 총리 후보의 임명을 저지하기 위한 범종교계 ·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도 발족됐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 · 시민사회단체들은 6월 2일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에 황 총리 후보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문건을 전달하기도 했다.

모임 관계자는 "황 총리 후보 지명이 국민과의 소통과 대통합에 역행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후보 지명 철회와 자진사퇴, 그리고 인사청문회 인사청문채택보고서 거부 등을 청와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신임 이사장 · 총장 취임식 열린다

6월 11일 중강당서 개최… 공양미받아 소외계층 전달

동국대가 6월 11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동국대 신임이사장 일면 스님과 신임총장 보광스님 취임식을 개최한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제38대 황일면 이사장과 동국대학교 제18대 한보광 총장 취임식 준비위원회는 6월 11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3층 중강당에서 취임식을 봉행한다고 밝혔다.

취임식 준비위원회 측은 "화환은 사양하며, 화환대신 공양미를 기증하면 이를 소외받는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은 취임축하 난 100여 개를 네팔지진피해 이재민돕기 캠페인 중인 불교대학생회에 전달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생회는 기증받은 난을 본관 로비에 전시하고 판매해 네팔돕기 캠페인 수익금과 합쳐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현불샵이 추천하는 명품 청동 촛대 세트

현불샵 단독 입점 상품



Design 등록원


촛대(大) 촛대(中) 촛대(小) 향로 향통 다기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 · 사자 · 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샵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품 명		규 격 (세로 / 지름)
촛대	사자 코끼리	(大) 51㎝×21㎝ (中) 41㎝×21㎝ (小) 35㎝×21㎝
	거북이	(中) 41㎝×21㎝ (小) 35㎝×21㎝
향로	거북 용두	(大) 28.5㎝×34㎝ (中) Ⓐ 21.5㎝×29㎝ (中) Ⓑ 18.5㎝×23㎝ (小) 15.5㎝×18㎝
다기	다기	(大) 26㎝×20㎝ (中) Ⓐ 22㎝×14㎝ (中) Ⓑ 20㎝×13㎝ (小) 17㎝×12㎝
향통	원형	(大) 15.5㎝×7.5㎝ (小) 11.7㎝×5㎝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

을미년 하안거 결제법어

"참나를 밝히는 일에 몰두하라"

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



太平治業無像〈태평치업무상〉이요
野老家風至淳〈야노가풍지순〉이라.
只管村歌社飮〈지관촌가사음〉하니
那知舜德堯仁〈나지순덕요인〉이리요.

태평세월에 업을 다스리는 데는 상이 없음이요,
들늙은이들의 가풍은 지극히 순함이라.
다못 촌에서 노래하고 모여서 마시는지라.
이에 순임금의 덕과 요임금의 어짊을 어찌 아리요.

금일은 을미년 夏安居(하안거) 결제일이라. 모든 결제대중은 부처님께서 사바에 출세하신 뜻을 좇아 일구월심 참나를 밝히는 일에 몰두해야 함이로다. 우리가 세속의 온갖 부귀영화도 마다하고 일가친족 등 정으로 맺은 인연을 다 끊고 출가하여 먹물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오로지 나고죽는 고통을 영구히 여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지 아니함이로다.

불가(佛家)에는 여러 수행법이 있지만은 다른 여타의 수행법으로는 대오견성(大悟見性)이 불가능하고 오직 간화선 수행만이 이 일을 밝혀줄 수 있는 것이니, 다겁생에 만나기 힘든 이 견성법(見性法)을 만난 김에 이번 생은 태어나지 않은 셈치고 수양에 몰두해야 함이로다.

그러면 어떻게 닦아야 참나를 밝혀 생사(生死)를 요달(了達)할 수 있음인고?

화두가 있는 이는 각자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는 이 화두를 들고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야 함이로다. 화두를 챙기고 의심을 쭈욱 밀어주기를 하루에도 천번 만번 반복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주 간절한 화두의심 한 생각이 끊어짐이 없도록 혼신을 다해 참구해야 함이로다. **〈중략〉**

광대무변한 진리의 세계는 도저히 혼자서는 다 알았다 할 수 없기에 반드시 먼저 깨달은 눈밝은 선지식을 의지해서 점검받고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로다.

이렇듯 대오견성하기 위해서는 선지식의 지도 아래 철두철미한 신심으로 간절하게 의심하며 화두를 챙겨가야 함이로다.

그러니 모든 대중은 이 같은 자세로써 어떻게든 이번 안거 동안에 득력하여 불은(佛恩)과 시은(施恩)을 다 갚고 생사를 요달할 수 있도록 혼신의 정력을 쏟을지어다. **〈하략〉**

전국 선원, 을미년 하안거 결제

6월 1일 2400여 명 방부

전국 사찰과 선원이 6월 1일 을미년 하안거를 맞아 결제 법회를 열고 안거에 들어갔다.

안거(安居)는 동절기 3개월(음력 10월 보름에서 차년도 정월 보름까지)과 하절기 3개월 (음력 4월 보름에서 7월 보름까지)씩 전국의 스님들이 외부와의 출입을 끊고 참선수행에 전념하는 것으로, 출가수행자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한 곳에 모여 외출을 삼가고 정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계종에서는 매년 전국 100여개 선원에서 2400여 명의 수좌스님들이 방부를 들여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종정 스님과 총림 방장 스님들의 결제 법어도 이어졌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하안거 결제법어에서 "출가하여 먹물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오로지 나고 죽는 고통을 영구히 여의고자 하는데 있다"면서 "모든 결제대중은 일구월심 참나를 밝히는 일에 몰두해야 한다"고 설했다.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은 하안거 결제 법어에서 "본분납자는 대신심과 대용맹심, 대의심으로 삼계의 당당한 주인이 되어 생사공안을 밝혀야 한다"면서 "도솔천 내원궁에 거꾸로 매달려도 주인이 되고 아수라의 정수를 바로 밝아도 진실되게 참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은 하안거 결제 법어를 통해 "사람의 가슴으로 해원상생의 길을 택한다면 다함께 사는 법이다. 이번 철에 각자의 은산철벽을 타파한다면 악각악습까지 녹아세계 인류 평화를 이루는데 큰 빛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교구별 불사자문위원회 구성된다

28일 본사주지協서 논의
국고보조금 투명성 제고

사찰 · 지자체 포함한 7인 구성
해당 본사 주지가 위원장 맡아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5월 28일 신흥사에서 제39차 회의를 열고 불사자문위원회 구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고보조금이 투입되는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과 관련해 사찰과 지자체, 문화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불사자문위원회'가 구성된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우송)는 5월 28일 신흥사에서 열린 39차 회의에서 불사자문위원회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계종 문화부장 혜일 스님은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해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재청과의 협의사항을 보고했다.

불사자문위원회 구성은 지난 2012년 감사원이 국고보조금을 받는 문화재보수 사업과 관련해 사찰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이후 문화재청은 사찰 문화재 보수도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혜일 스님이 발표에 따르면 불사자문위원회는 해당 교구본사 주지가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본사 주지가 추천하는 2인과 지자체 공무원 2인, 문화재 전문가 2인 등 7인으로 구성된다. 조계종 문화부는 불사자문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업체 선정에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불사 과정에서 해당 사찰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장기적으로 불사자문위원회는 사찰 불사에 대한 전반적 자문과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로 확대될 방침이다. 혜일 스님은 "현재 보수정비 업체를 선정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지만 향후 불사자문위원회는 사찰 불사와 관련한 종합적 심의 기구로 확대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대체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지자체 위원을 교구본사 지역 공무원 1인과 불사 해당 사찰 지역 공무원 1인이 포함되도록 수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경우 불사자문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교구본사주지들은 5월 16일 세계평화기원대법회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회장 우송스님을 비롯해 부회장 현조스님, 총무간사 덕문스님, 재무간사 원경스님 등 본사 주지 스님 13명과 총무부장 지현스님, 문화부장 혜일스님 등이 참석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제40차 회의는 오는 7월 28일 오후3시 해인총림 해인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6월은 만해 스님 추모의 달

선학원, 음악예술제 · 다례재 등 행사 잇달아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이 6월을 '만해 스님 추모의 달'로 지정하고 문화예술 · 학술 · 다례재 등 다채로운 추모 행사를 개최한다.

만해음악예술제는 오는 6월 7일 오후 4시 국립극장 KB하늘극장에서 제1부 추모합창제와 제2부 추모예술제로 나뉘어 봉행된다. 이날 전체 사회는 국악인 김종엽 씨가, 총감독은 김시율씨가 맡는다.

제1부 추모합창제는 '잠 없는 꿈'을 부제로 대전 심광사 합창단이 '여시연'을, 아산 보문사영산합창단이 '향심'을, 광명청룡사마야합창단이 '보람'을, 천안 쌍룡선원바라밀합창단이 '아리랑 모음'을, 제천 강천사문수합창단이 '향연'을, 인천 보각선원가릉빈가합창단이 '광명진언송'을, 청주 풍주사아사나합창단이 '아름다운 나라'를, 대구 보성선원 어린이회 · 청소년회가 '연등들고 춤을'과 '오늘은 좋은 날'을 각각 부른다.

제2부 추모예술제는 '님이시여'를 부제로 음악과 시와 승무가 펼쳐진다. 락음국악단이 'Fly to the Sky'를 연주한다. 춤이 있는 시낭송에는 불자연예인 전무송 씨가 나와 만해의 시 ' 나는 잊고져 '를, 음악이 있는 시낭송에는 프로젝트 시로 4인과 김상준 조명남 씨 등이 출연한다.

또 김성녀 씨가 출연해 '귀거래'와 '찬미의 나라'를 부른다. 특히 정준태, 김성녀, 만해음악예술제 연합합창단이 '님이시여'를 협연함으로써 예술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만해학술문화제는 6월 15일 오후 1시 삼각산 정법사 무설전에서 개최된다. 총 3부로 진행되는 학술문화제에서는 1부는 만해 스님에 대한 추모 강연을, 2부는 청소년 창작 시 · 수필 수상작품을 낭송하는 시간을 갖는다.

3부 행사로는 '만해와 민족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학술발표회가 진행된다. 이날 학술발표회에서는 '만해 한용운과 3 · 1독립운동'을 주제로 강은애 서울대 연구원이, '신간회 경성지회장과 만해의 독립운동'을 주제로 김경집 진각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만해의 독립사상과 문학사조'에 대해 백원기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만해 저서의 사상적 특징과 서지학적 경향'에 대해 양은용 원광대 명예교수가 각각 발표한다.

만해추모다례재는 만해 스님의 입적일인 29일 오후 4시 AW컨벤션센터(구 하림각)에서 1, 2부로 나뉘어 봉행된다. 제1부 다례재는 만해 스님의 따님인 한영숙 여사를 비롯한 유가족과 정관계 인사, 선학원 임원진과 분원장 등 3백 여명이 참석해 만해 스님의 행적과 고귀한 뜻을 기린다. 제2부는 국악관현악단 등이 출연해 만해 스님을 기리는 추모공연이 이뤄진다.

신성민 기자

통도사 주지 선출 문도간 갈등 심화

노천문도회 27일 산옹 스님 추천
성파 스님 측 "적법한 회의 아냐"

통도사 주지 임기가 5월 29일에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통도사 최대 문중인 노천문도회 내에 차기 주지 선출에 관련한 의견이 나뉘고 있다.

통도사 노천문도회는 150여명의 문도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5월 27일 통도사 선원 보광전에서 문도회의를 열고 차기 주지 후보로 산옹 스님을 추천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문도대표 성파 스님 측은 "문도회의는 불법적으로 소집돼 무효"라는 입장을 밝히며 "성파 스님이 회의에 불참한 것은 바로 그런 입장을 밝히기 위함"이라며 적법하지 못한 회의라고 강조했다. 문도 회의 소집이 문도대표 성파 스님의 결정이 아닌 문장 초우 스님의 결정으로 이뤄져 과정상 적법하지가 않다는 뜻이다.

회의를 진행한 현문 스님은 "대표 스님이 소집에 동의했다"고 발언하며 회의를 계속 진행했다.

주지 후보에 추천된 산옹 스님은 "성원에 감사하며 통도사를 군림하지 않고 공유하며 나누고 봉사하는 사찰로 이끌겠다. 보다 공개된 사찰이 되도록 여러분들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동국대학교 이사회 영담 스님 이사 해임

5월 26일 결정… 학내 개편 등

동국대 이사회가 영담 스님을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일면)는 5월 26일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제291회 이사회를 열고 찬성7표, 반대1표로 영담 스님의 이사직 해임안을 가결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사장 일면 스님을 비롯해 성타, 심경, 명신, 삼보, 미산 스님과 안채란, 김선근 이사 등 재적이사 10명 중 8명이 참석했다. 이연택 이사는 해임안 처리시 중도 퇴장했으며 영담 스님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이사회는 임원 해임안 외에도 정관개정안을 비롯해 2014학년도 결산승인안, 교원인사안, 교원징계요구안, 경주병원 시설자금 기채승인안 등을 다뤘다.

정관개정안은 대학직제 개편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개정안에 따라 부총장은 경영 · 학술 2인 체제에서 경영 · 기획 · 대외협력의 3인체제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기업형 본부조직이 처 단위로 변경됐다.

노덕현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70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 임 재 형 원장 직강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자기개선은 물론 타인을 돕는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생 요법 : 도데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 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와있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사주 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횡사 악사요…

KBS 굿모닝 대한민국 / SBS 미워도 다시한번 그 여자 그 남자 / 재널A 현장르포 특종세상 / MB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외 / tvN 각종 케이블 방송에 다수 출연
MBC 생방송 오늘아침 / JTBC 부모찾기 / TV조선 가족 두개의 문 / YTN 사이언스 과학향기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실전위주의 파워풀한 강의!!

개인상담 및 공·사 기업체 출장강의 가능
성격 개선/ 자신감 고취/ 습관 교정/ 발표 불안/ 부부 솔루션
대인관계 개선/ 스트레스 해소/ 마음의 상처/ 분노 조절
집중력, 기억력 증진/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범죄 수사
스포츠선수 기록 향상/ 전생 체험/ 빙의 치유 등

현재 접수중 —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CD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
042) 222-0737

지역아동센터에 팥빙수 선물하세요

동행, '쿨한 나눔' 캠페인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팥빙수 보시에 나선다. 동행이 진행하는 '핫한 여름, 쿨한 나눔' 모금 캠페인은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교실의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팥빙수 간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기부는 농협 301-0167-2578-81(예금주:아름다운동행) 또는 네이버 해피빈 온라인 모금으로 동참할 수 있으며, 오는 8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전달될 예정이다. (02)737-9595 **정혜숙 기자**

여름불교학교 위한 지도자 연수 진행한다

동련 · 불레협 6월 각각 실시

여름불교학교를 앞두고 동련과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가 지도자 연수를 실시한다.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성행)은 오는 6월 20일과 21일 보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제59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진행한다. '멈춤 없는 정진 행복한 원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수회는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배우고 지도자의 신심을 증장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연수는 동련 어린이불교교육연구소의 '신나는 캠프율동'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칠곡 토향암 주지 설봉스님의 '자연과 인간' 강의, 함양 대운사 주지 주석스님의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강의, 법주사 참배, 스토리가 있는 여름불교학교 강의, 회향식 등으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스토리가 있는 여름불교학교는 '만다라가 있는 여름불교학교' '손으로 만드는 부처님 세상' '소중한 나(불성 · 진로)를 찾는 여름불교학교 프로그램' 등 3개 강의 중 자신에게 필요한 한 강좌를 선택해 들을 수 있다. 동련은 연수회 참가자 40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승가교육 인증과정은 30명을 선착순 모집해 진행한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혜만)는 오는 6월 27일과 28일 양주 육지장사에서 '제55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진행한다. 이번 강습회는 아이스 브레이크(Ice Break) 및 싱어롱(Sing-Along), '행복한 지도자' 강의, 찬불가 율동 및 활용의 실제, 놀이와 만들기 명상 등 다양한 체험활동, 레크리에이션의 활용과 실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대상은 여름불교학교 지도자와 템플스테이 담당자, 포교사 등 150여 명이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 논쟁, 불교 발전의 원동력"

불교평론 62호, 현대 한국불교 10대 논쟁 특집

불교는 논쟁을 통해 발전해왔다. 부처님 입멸 후 십사논쟁에서부터 교학은 치밀하게 다듬어졌고, 용수보살의 도발적인 의제 제기에서 중관사상이 등장했다. 한국불교사에서도 성철 스님의 돈점논쟁은 정화운동에 몰입했던 수좌들을 깨우는 사자후가 되었다. 한국불교의 자양분이 되어온 논쟁을 10가지로 추려낸 특집이 눈길을 끈다. 바로 〈불교평론〉 62집의 특집, '현대 한국불교 10대 논쟁'이 그 것이다.

종조 논쟁"인맥 법통관서 탈피해야"

박해당 박사(서울대 강사)는 조계종 종조 논쟁에서 청허휴정의 법맥을 둘러싼 논쟁과 나옹법통 · 태고법통설 논쟁을 다룬데 이어 일제강점기 이후 근현대 벌어진 보조법통설과 태고법통설의 논쟁을 다뤘다.

박 박사는 "1980년 중반 이후 조계종 법맥과 종조 연구는 역사학자들에 의해 객관적이고 학문적인 방법으로 진행됐으며 그 결과 나옹법통, 태고법통 모두 휴정 사후 후손들이 임의로 만든 계보일 뿐이며, 직접 인가하는 인맥 기반 법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드러났다"며 "현재 조계종은 도의종조설, 보조종조설, 태고종조설을 절충해 종조, 중천조, 중흥조로 각각 법맥을 밝히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박 박사는 "하지만 이러한 법계법맥은 사자상승이라는 인맥 중심의 법맥관이 자리하고 있다"며 △도의 · 지눌 · 보우의 직접 관계가 없어 법맥 모순 발생 △인맥으로 볼때 도의 스님이 임제법맥이 아닌 점 △지눌 스님이 대혜 스님으로 직접 인가를 받지 않아 간화선 정통성이 훼손 되는 점 등을 지적했다. 박 박사는 "인맥 위주의 법통설을 전통과 연결시킬 때 한국불교는 스스로의 정통성을 잃어버린다. 선종 법통만으로 조계종 법통을 따지지 말고, 한국불교를 아우르는 새로운 법통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돈점 논쟁 이제는 중생 삶과 연결"

변희욱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연구원은 성철 스님이 제기하기 불러온 돈점 논쟁을 다뤘다. 변 연구원은 "돈점논쟁으로 인해 학문의 치외법권 영역인 깨달음과 닦음에 대한 연구가 본격 진행된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1980년 돈점논쟁이 개막되고 1990년 돈오점수, 돈오돈수에 대한 파악이 진행됐다면 2012년부터는 이해로서의 깨달음인 해오에 대한 재해석이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변 연구원은 "문제는 사람들의 현실"이라며 "돈오점수의 강점은 중생 현실을 수용하는 반면, 돈오돈수로는 해석되지 않는 세상사가 많다. 단순한 해석에 그치지 않고 중생들의 실제 삶과 연결해 연구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초기 · 상좌부 논쟁으로 대승불교 발전"

이홍구 동국대 강의교수는 '대승불교 정체성 논쟁'에서 "대승불교에서는 그 정체성을 두고 대승 불설과 비불설, 대승불교의 비불교적 요소, 상좌부의 니까야 친설여부 등의 논쟁이 이어졌다"며 "한국불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화엄의 언어인식을 기저로 초기불교와 대승불교의 원융적 시각 하에 실용적인 신대승운동으로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순일 동국대 교수도 '초기불교 시원론 논쟁'에서 "남방불교가 시원인지에 대한 논쟁은 학계와 불교계에 남방 테라와다 불교의 빨리 삼장 연구와 위빠사나 수행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재검토하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평가하며 "초기경전을 대승경전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만으로 대승불교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 대안 제시 위해 논쟁 지속해야"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는 '마음챙김'으로 알려진 '사띠'에 대한 논쟁을 다뤘다. 정 교수는 "불교학계에서 진행된 논쟁은 번역어 문제에 집중했으며 이는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하다 보니 발생하게 됐다"며 "이러한 논쟁으로 인해 초기불교와 심리치료의 관계 연구 역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는 '기복불교 논쟁'에서 "기복신앙은 원초적인 신앙이기도 하지만 작금의 사회구조가 자양분을 제공하고 있다"며 "기복논쟁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조선 이후 한국사회 구조 변동이 기복불교의 흥망성쇠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연구돼야 한다"고 과제를 제시했다.

2012년 후반 논쟁으로 〈불교평론〉 폐간 위기까지 일었던 경허 행리 논쟁에 대해 신상환 고려대장경 전임연구원은 "파계는 '보석의 결함'에 불과하다. 반면교사인 경허를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지혜만이 남아있다"고 정리했다.

박부영 불교신문 편집국장도 '민중불교 논쟁'에서 '혁명성'에 대한 시각차이에 주목하고 퇴조한 민중불교가 현재 한국불교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학술적 쟁점이 치열히 전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김순석 한국국학진흥원 연구위원과 이찬훈 인제대 교수도 '민족불교 논쟁'과 '불교와 자본주의 논쟁'은 새로운 종교환경 구축과 대안사회 제시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활발한 논쟁이 지속되길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평론 선정 '현대 한국불교 10대 논쟁'

조계종 종조	"인맥 기준 법통관 한계 지녀, 종합 종파로 새 법통관 세워야"
선의 돈점	"돈점 논쟁은 깨갈음 연구의 계기, 이젠 중생 삶 연구에 집중"
대승불교 정체성	"대승 불설 · 비불설서 발전해 원융의 신대승운동 펼쳐야"
초기불교 시원론	"초기경전 연구로 대승불교도 발전, 대승불교 새 모습 기대"
사띠	"사띠 기능고려한 번역으로 논쟁으로 심리치료 관계 연구 발전"
기복불교	"기복불교 흥망성쇠 연구에 사회구조적 관점 도입해야"
경허의 행리	"경허 파계는 보석의 작은 결함, 현대적 해석의 지혜만이 남아"
민중불교	"민중불교 혁명성 두고 입장 갈려, 현대 불교 영향 연구 해야"
민족불교	"근대불교사의 새 지평, 기존 민족 개념 붕괴서 새 해석 가능"
불교와 자본주의	"불교대안사회 구축의 필수적 과정, 자본주의 병폐 고찰서 출발"

"인간과 동물은 모두 존귀한 존재"

카라, 5월 28일 '종교와 동물' 토론회 개최

4대 종교의 동물관 논의
"불살생, 불교 오계 중 하나
생명 행복권 찾아가는 길"

한국의 4대 종교가 모여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종교계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5월 28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 이하 카라)는 서울 마포 카라 더불어숨 센터에서 '종교, 동물을 말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4대 종교 대표 유정길 에코붓다 이사, 장윤재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조현철 서강대 신학대학원 교수, 최서연 원불교 외국인센터원장을 비롯한 각 종교계 인사들이 함께했다.

이날 유정길 에코붓다 이사는 '불교의 생명, 생태적 지혜와 청규'를 주제로 발제했다. 유 이사는 "부처님 깨달음의 실천은 결국 모든 생명이 함께 행복하기 위한 길을 찾는 길이었다"며 "생명존중사상을 중시하신 부처님 가르침은 근대의 이기적 세계관을 극복하는 환경 위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 이사는 "발우공양, 방생을 비롯해 잠든 중생을 깨워 함께 예불을 올리는 의미의 도량석 등 불교 의례와 건축은 친환경적 전통과 가르침을 주고 있다"며 부처님 가르침에 근거한 '불자생명청규'를 제시했다.

청규 내용은 △나는 뭇 생명들과 한 몸임을 깨닫고 이들을 나의 부모, 형제처럼 소중히 여기고 공경하겠다 △나는 이웃을 돕고 자연을 살리며, 인간과 다른 생물사이의 평등과 평화를 이루는 생명살림의 일꾼이 되겠다 △물질의 풍요에 집착하기보다는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수행정진에 힘쓴다 △다소 불편한 삶을 즐기는 것이 자연을 살리는 방법임을 깨달아 삶의 소중한 가치로 받아들인다 등 7가지 행동규칙이다.

이밖에 토론자로 나선 용문사 부설 은행나무 어린이집 교사 진엽 스님은 "실험에 의해 죽어가는 동물, 식용으로 길러지는 동물, 보호자에게 버려진 동물 등 열거하지 않아도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는 너무 잔혹하다"며 "불교는 살생을 오계로써 금하고 있다. 우리는 인간과 동물을 초월해 모두 존귀한 것으로 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피력했다.

또한 원불교 발제자로 나선 최서연 교무는 육식 위주의 식습관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무는 "과거 인간이 육식을 많이 하지 않았던 시대의 장점을 살려 오늘날 식생활에 반영해야 한다"며 "육식 위주 식습관은 가축을 너무나 혹독한 환경에서 살게 한다. 이렇게 죽어간 동물들의 영혼이 안타까울 뿐 아니라 점점 잔인해져가는 인간 사회와 식량문제, 환경파괴 등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한편 카라는 "이번 토론회는 동물을 생명으로 존중하기 위한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논하는 최초의 자리"라며 "앞으로 토론회를 연차적으로 진행해 공동실천을 모색할 계획"을 밝혔다. **박아름 기자**

울산 불교 · 청소년 함께 웃다

마하보디, '꽃보다 10대' 팝댄스 콘테스트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이사장 능행)은 5월 25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대학원 야회무대에서 제1회 울산 팝 댄스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봉축을 맞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지하고자 소통 열림 치유라는 주제로 지역사회, 청소년, 기성세대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린 행사다. 콘테스트는 노래와 댄스 부문으로 나누어 초중고교 10개 팀이 참가해 경연을 벌였다. 경연자들은 댄스, 밴드, 듀엣의 다양한 공연을 펼쳤다.

행사장 주변에서는 오색실 매듭팔찌 만들기 등 불교문화 체험부스가 운영됐다.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은 상담을 전공하는 재학생과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CPE센터 학생들이 청소년 · 학부모 무료상담소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열어 호응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주최측은 울산광역시 교육감상,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장상을 비롯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3팀과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7개팀에게 비전상과 장학금을 수여했다. **신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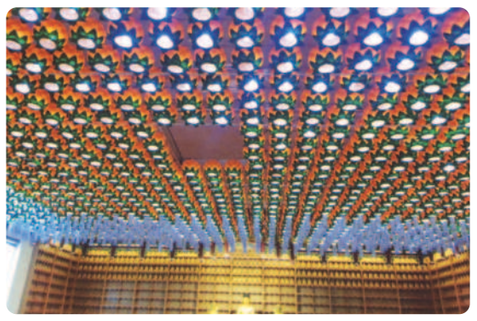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은 5월 25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대학원 야회무대에서 제1회 울산 팝 댄스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사찰불사! 정우불교예술원이 함께합니다

20년의 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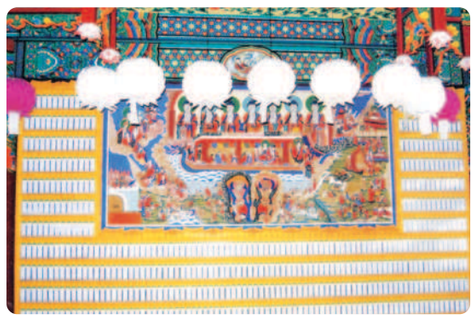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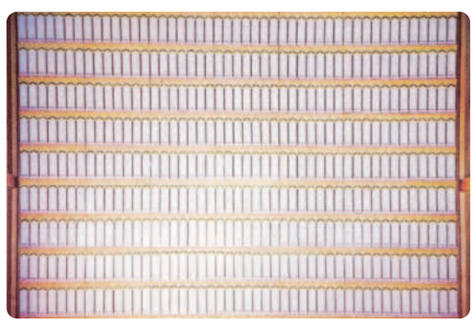

원주 보문사 대법당


월출산 무위사 대법당

영가 위패단

(실용신안 제20-0439285 / 디자인등록 제30-0477206)


제주 월성사 위패단


장흥 보림사 위패단

인 등

(실용신안 제20-0439286 / 디자인등록 제30-0477201)

안정성, 편리성, 디자인, 경제성 등 모든 면에서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 월성사 인등


각종 인등 견본


대나무 숯 부처님
(동불, 특수불, 각종 불상)

연 등


노랑 진분홍 영가등
금등 바림등 만월등

* 전문 기술진이 완벽하게 시공해 드립니다. *

정우불교예술원 www.jeongwoo.info
전화 : 010-3724-0455, 031)969-63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 100번

일 주 문



안양교도소 재소자 위문

현성 서울 도선사 조실 스님은 5월 24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안양교도소를 찾아 재소자 2500명을 위문하고 150명에게 수계했다.



군종교구 현충원 참배

정우 조계종 군종교구장 스님은 6월 5일 국립현충원에서 현충일을 맞아 순직 군법사를 비롯한 애국선열의 넋을 위로하는 참배행사를 개최한다.



보리수새싹학교 환계식

원명 서울 조계사 주지 스님은 5월 26일 동자승 단기출가 프로그램 '보리수 새싹학교' 종료에 따른 환계식을 개최했다.



동국대 의료원 발전기금 괘척

학명 하남 성불사 주지 스님은 5월 15일 동국대의료원 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괘척했다.



공불련, 마음치유콘서트 성료

김상인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은 5월 21일 세종시 청사 대강당에서 '혜민 스님과 함께하는 마음치유콘서트' 를 개최했다.



'행복한 인생…' 주제로 특강

김홍신 작가는 5월 26일 동국대가 문화관 초허당세미나실에서 개최한 '행복한 인생을 위한 희망메시지' 에 초청 강사로 특강을 진행했다.



불교 사회적경제 연수교육

이기흥 날마다좋은날 이사장은 6월 24~26일 중앙신도회관 3층 회의실에서 '사회적 경제, 불교와 만나다' 연수교육을 진행한다.

〈인사〉 동국대 의료원 인사

■ 동국대학교 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DM 통계연구소장 태석기 △부의료원장 정지천 △전략경영실장 임군일

■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일산불교병원장 오민구

■ 동국대학교일산불교한방병원 △일산불교한방병원장 정지천

〈바로 잡습니다〉

제1046호 7면에 실린 원효종 원효 스님 1329주기 추모대재 기사 중 총무원장 **우석 스님**의 법명이 주석 스님으로 잘못 나갔습니다.

"동문화합, 학교발전 최우선 과제로"

전영화 제24대 동국대 총동창회장 5월 28일 정기총회서 선출



"동문들은 학교발전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화합을 최우선으로 전임 회장단까지 끌어안고, 후배 동문들이 활발히 참여하는 동문회로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양분돼있던 동국대 총동창회가 신임 동창회장으로 전영화 회장(경찰행정 65학번 · 사진)을 선출하고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동국대 총동창회(제23대 회장 원용선)는 5월 28일 그랜드 앰버서더호텔에서 2015년 정기총회 및 정기이사회를 열고 신임 동창회장으로 전영화 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날 총동창회는 먼저 정기이사회를 개회했다. 이사회에는 172명의 동창회원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당초 총동창회장 선거는 정용학 회장과 함께 김재주 후보(정치외교학과 61학번)가 입후보 했으나 이사회 정견발표 이후 사퇴해 단일후보 무투표로 진행됐다. 전영화 제24대 동창회장(경찰행정 65학번)은 국정원 안보단장,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비상임연구위원, 동국대 총학생회장,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울산대 경찰학과 전임교수, 경찰행정학과 동문회장 및 총동창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전영화 동창회장은 "어려운 시기 동창회장을 맡겨 준 것은 동창들이 주인이 되어 바르게 동창회를 세우라는 것"이라며 화합에 나설 것을 밝혔다. 전 신임동창회장은 "동창회 반목 중 총장 선출이 이뤄져 안타까웠다. 학교발전을 위해 힘껏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 동창회장은 가장 먼저 화합에 나설 것을 밝혔다. 전 회장은 "많은 동문들이 왜 23대 이후 24,25,26대가 인정받지 못하고 다시 24대 동창회가 됐는지 안타까워하고 있다. 24대 동창회에 연연하지 않고, 기회가 된다면 대통합의 동문회로 모두를 끌어 안겠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이어 "동창회장을 놓고 대치구도에 있던 박종윤, 송석환 회장에 대한 치사와 함께 총동창회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겠다"고 말해 동문들의 박수를 받았다. 또 임기 중 총동창회장 선출 문제가 불거진다면 선거 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전영화 동창회장은 먼저 동창회 문호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전 동창회장은 "동창회를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동창회에 지도자급 동문이 다가오지 않는다. 이러한 여건을 만드는 것이 동창회장으로서의 첫번째 소임"이라고 말했다. 전 회장은 "동창회는 분명히 변화하며 튼튼한 체제로 바꿔야 한다며 "체질 개선과 함께 전통과 희망이 후배 동문들에게 개선 될 수 있도록 벽을 허물고 문턱이 낮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 회장은 동국장학재단 정산문제, 동창회관 건립의 지속적인 진행, 동창들의 우의 증진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108주년 기념관에 들어설 동창회관에 대한 동문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사회는 이에 앞서 재판부로부터 위법조항으로 지적 받은 회칙 중 발전기금 6억원 납부 조항을 개정해 정회원 자격이며 5년간 3회 이상 회비 납부, 공탁금 3000만원, 재적임원 2000명 가운데 50명 동의서명 등으로 회칙을 개정했다. 선거에서는 먼저 23대 임원에 한해 투표권이 주어졌다. 법원의 23대 이후 6억 납부조항에 따른 동창회장 선출이 무효라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노덕현 기자

20여 년 문화포교에 앞장선 공로

성담 스님, 6월 7일 제3회 심우문화상 수상



금산 효심사 주지 성담 스님〈사진〉이 제3회 심우문화상을 수상한다. 심우당문화재단(이사장 김맹석)은 6월 7일 금산 효심사에서 김맹석 심우문화상 설립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심우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심우문화상은 학교법인 형석학원과 금강학원을 설립한 심우당 김맹석 이사장이 교육 및 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한 인사 또는 단체를 선정 시상하기 위해 2013년에 설립 · 제정한 상이다.

심우당문화재단은 수상 사유에 대해 "불교의 새로운 의식 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법회는 물론 방송과 저술 활동을 통해 23년 동안 전법과 자비실천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심우당문화재단은 "BBS불교방송과 불교TV에 127회 출연하는 한편 '행복 119' 등 8권의 저술 활동, 유튜브, 온라인 카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했다. 또 국경, 민족, 종교, 인종을 초월한 불자들을 양성하고자 명품국사관 건립하고 국제구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고 설명했다.

성담 스님은 1987년 봉선사에서 밀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3년 금산 효심사를 창건했다. BBS불교방송에 '마음의 향기'로 5분설법을 진행하고 있으며, 불교TV에서 '건강한 자녀, 훌륭한 자녀', '즉각성취', '금강경으로 가는 특별한 여행' 등을 진행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작지만 강한 불교학 연구 산실로"

개소 10주년 맞은 고영섭 한국불교사연구소 소장



"한국불교학이 일본과 중국에 미친 영향부터 한국학과 인문학과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소장학자들이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연구소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불교학의 지평을 넓혀온 한국불교사연구소가 개소 10주년을 맞았다. 한국불교학계에서 대학의 교책기관과 종단, 사찰의 후원을 받는 연구소 외에 독립적인 연구소는 그리 많지 않다. 한국불교사연구소는 독립 연구소로 2005년 문을 연 이후 매년 3회 세미나를 열고, 강의 기행 등을 진행해왔다. 또 〈문학/사학/철학〉, 〈한국불교사연구〉 등을 펴내 불교학 저변을 넓혀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영섭 한국불교사연구소장(동국대 교수 · 사진)은 "불교사의 폭을 인문학으로 넓히고 보다 상위범주에서 불교학를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연구소를 출범했다"며 "기존 학계에서 놓쳐왔던 부분을 찾아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불교사연구소는 집중세미나와 함께 강의기행을 진행하고 있다. 강의기행은 1년에 2차례 씩 원효 스님, 금강경 등을 주제로 사찰뿐만 아니라 사지, 서원 등을 기행하며 얽힌 이야기를 풀어가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총 27회 진행됐다. 한국불교사연구소는 향후 인도와 일본, 중국 등에 미친 한국불교의 영향 등을 조명하고 지금까지 나온 학술적 성과를 총서로도 펴낼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부산 기장 장안사, 해동전 상량식



천년 고찰의 위상을 되살리기 위해 10년 종합정비계획을 실현하고 있는 부산 기장 장안사(주지 정오)가 두 번째 불사인 해동전 상량식을 봉행했다. 5월 22일 봉행한 해동전 상량식은 정여 스님(부산 여여선원 선원장), 장안사 회주 정현 스님(가야사 주지), 혜성 스님(해광사 주지), 보혜 스님(청량사 주지) 외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장안사 주지 정오 스님은 "해동전 불사를 마치면 불자와 시민들을 위한 문화 포교의 장소로 널리 회향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량식에 이어 장안사는 종각불사 회향식을 거행했다. 참석한 모든 동참자들은 직접 범종을 치며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했다.

하성미 기자

법안정사, 중앙승가대 2천만원 전달



서울 법안정사(주지 도업)는 5월 21일 중앙승가대를 방문해 승가교육불사기금으로 2000만원을 쾌척했다. 총장 원행스님과 후원회 사무처장 초우스님 등은 중앙승가대학과 학인 스님들을 위해 보시행을 펼친 법안정사 신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노덕현 기자

100세 스님, 동국대서 생일잔치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이계영)는 5월 29일 교내 백상관 컨벤션홀에서 지난 3월 명예학생으로 위촉된 신광사 주지 선도 스님의 100세 생일잔치를 개최했다. 선도 스님은 2002년 전재산을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선도장학회를 설립해 2003년부터 현재까지 100여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생일잔치에는 스님의 가족과 문도 스님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세계인류평화와 남북통일, 경제회복 기원대법회

사단법인 세계불교연합법왕청

귀의 삼보하옵고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충만하옵기를 합장 기원드립니다.
금번 사단법인 세계불교연합법왕청에서는 세계인류평화와 남북통일, 경제회복을 기원하는 법석에 스리랑카, 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일본, 중국 등에서 크게 포교하고 계시는 세계적인 고승들을 초청하여 "세계인류평화와 남북통일, 경제회복 기원대법회"를 봉행하오니 부디 동참하시여 자리를 빛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법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불사가 원만성취 되시옵기를 다시한번 기원 드립니다.

불기2559(2015)년 5월

사 단 법 인 세 계 불 교 연 합 법 왕 청
이사장 청 운 박 청 운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수석부회장, 대한불교원각조계종 종정, 일붕신문사 사장, 민주평통자문위원)

상임이사 이붕 서 병 열
(일붕신문사 발행인 겸 회장, 민주평통고양시협의회 지회장)



(사)세계불교연합법왕청 설립 기념대법회가 끝난 후 고문, 자문위원, 지도위원과 임원진 기념 촬영

● 일시 : 불기2559(2015)년 6월 11일 (음력4월25일) 목요일 오전 10시
● 장소 :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 볼룸 (서울 을지로입구)
※ 오전 10시까지 입장 요망
● 주최, 주관 : 사단법인 세계불교연합법왕청

사단법인 세계불교연합법왕청 법인사무처 : 경기도 하남시 학암로 29 (청운사) 전화 : (02)3401-9325, (02)777-0959

사찰 앞마당서 펼쳐진 자비의 야단법석


봉은사 자원봉사자들이 전통문화마당에서 아이들이 만든 캐릭터 상품을 다리미로 전사하는 모습


염주를 조용히 꿰고 있는 아이. 이날 전통문화마당에는 가족단위 참석자가 많았다.


자비나눔 장터에서 친환경 직거래 물품을 구입하는 불자들의 모습

봉은사 부처님오신날 자비나눔장터 및 전통문화마당 현장

부처님오신날 당일 1만명 모여
친환경 직거래 장터 높은 '인기'
수익금 전액 불우이웃돕기 사용
지화연꽃, 만다라 칠하기 등 체험 다양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연휴기간 해외여행을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해 인근 사찰을 찾았는데, 뜻밖의 즐거움이네요." - 김형석 씨(37)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사찰에서 전통문화도 즐기고 직거래 장터에서 싼 물품을 믿고 살 수 있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 김명숙 씨(41)

부처님오신날 절에 가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불자들은 법회를 떠올릴 것이다. 법회와 함께 각종 지역의 특산물과 사찰에서 만든 상품을 구입하고, 또 전통문화도 즐길 수 있다면 어떨까? 서울 강남의 대표사찰인 봉은사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사찰에서 진행하는 계층포교를 소개하고 지역 농산물을 만날 수 있는 대규모 자비나눔장터와 전통문화마당이 열려 눈길을 끈다.

서울 강남의 코엑스 인근에 위치한 봉은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도심 사찰로 유명하다. 시민들과의 접점이 넓은 만큼 부처님오신날인 5월 25일에는 1만명에 달하는 외국인과 시민들이 봉은사를 찾았다.

이들을 위해 봉은사가 준비한 것은 자비나눔장터. 네팔과 국내 불우이웃돕기를 위해 마련된 이날 장터에는 봉은사 신도회가 직접 연결한 지리산 로컬푸드, 선재봉은 국수 등 50여개 부스가 마련됐다.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에 참여하기 위해 온 불자들부터, 봉은사가 진행하는 전통등전시회의 아름다운 등에 이끌려 사찰에 오게 된 시민들까지 모두들 다양한 먹거리를 접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우연찮게 봉은사에 오게 됐는데, 요즘에는 먹거리를 믿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절에서 지역 농산물을 연결해서 파니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인근 삼성동에서 온 최영숙 씨는 인근 코엑스를 방문한 계기로 봉은사 자비나눔장터를 찾게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많은 먹거리 부스 중 한편에 자리 잡은 인터콘티넨탈 호텔 코너는 인기였다. 호텔에서 만든 빵은 금방 동이 났다. 호텔 측의 기부를 받은 빵들로, 일반 제과점의 절반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다. 코너 한쪽에는 작은 행복나눔기금 보시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판매봉사에 나선 한 신도는 "법회보다 장터 등에서 보시함에 기부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눈을 돌려보니 먹거리 장터 곳곳에는 기금 보시함이 위치했다. 네팔돕기를 비롯해 봉은사가 진행하는 봉사현장을 시민들과 연결하는 곳이었다. 이날 장터의 모든 수익금도 신도회의 행복나눔기금으로 적립돼 봉은사가 수탁운영하는 다양한 복지기관과 불우이웃돕기 등에 사용됐다. 복지법인 봉은이 설립 · 운영중인 달마학교 등 기관 외에도 광진희망세상, 도깨비방망이, 진관, 꾸러기공부방, 도토리 학교, 포이동 인연맺기 등 지역아동센터와 역삼청소년수련관, 대치노인종합복지관 등 복지관까지 봉은사가 지원하는 곳은 다양하다. 지역아동센터는 성금으로 학용품을 구입하거나 학생들의 새 학기 준비에 사용하는 등 재원을 활용하고 있다.

이날 장터에서는 이러한 기관들이 직접 홍보부스를 열고 체험행사와 함께 시민들의 후원을 받기도 했다. 봉은사 사회복지법인 봉은, 대치노인종합복지센터, 서울시립 24시간 게스트하우스, 선우어린이집 등 홍보부스에는 장터를 거쳐 수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특히 달마학교는 스님과 청소년들이 자몽주스 보시를, 역삼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청소년들이 직접 웰빙피자와 과일빙수 등을 만들어 판매해 인기를 끌기도 했다.

홍영식 역삼청소년수련관 부장은 "이번 행사 취지에 공감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오전에는 홍보부스에는 발길이 드물었는데 입소문이 나서인지 오후 들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며 웃음 섞인 답변을 내놨다. 홍 부장은 "이러한 행사가 재정부분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며 "오늘 수익금은 청소년 복지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관 소개와 함께 불교가 가진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됐다. 지화연꽃 만들기, 손수건 만다라 색칠하기, 합장주 만들기 같은 다양한 사찰문화 체험에는 아이들과 함께 나온 가족들의 행렬이 길게 늘어졌다.

파라미타 법회에 학생들과 함께 법회 소개를 진행한 봉은사 파라미타법회 지도법사 자혜 스님은 지역의 사찰들이 가진 장점을 활용한다면 불교가 일반 시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님은 "전통문화마당을 통해 파라미타법회와 어린이법회 등을 알게 되는 시민들이 많다"며 "또 이웃종교인들이 불교가 전통문화의 일부라고 인식하는데 기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오늘 함께 나온 학생들 일부도 원래 이웃종교를 가진 학생들이었는데, 함께 법회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이처럼 행사에도 동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에 앞서 봉은사는 봉축법요식을 개최했다. 이어 이날 저녁에는 헌등행렬과 함께 점등식을 개최했다. 법요식은 주지 원학 스님, 남판우 신도회장 등이 동참해 진행됐으며 다양한 문화행사로 축제 분위기를 선사했다.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은 네팔 희생자를 추모하며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스님은 "네팔에서 발생한 최악의 지진으로 희생된 많은 사람들에게 애도를 표한다"며 "네팔 지진처럼 역사유적지마저 한순간에 파괴되고 사람의 생명조차 한순간에 사라진다. 이처럼 세상에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으며 사람의 육신 또한 영원하지 않지만 많은 대중들이 이에 집착해 갈등이 일어난다. 성품이라는 도리를 안다면 싸울 필요가 없다. 이번 부처님 오신날을 계기로 많은 이들이 자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오후에 진행된 헌등행사에서 촛불을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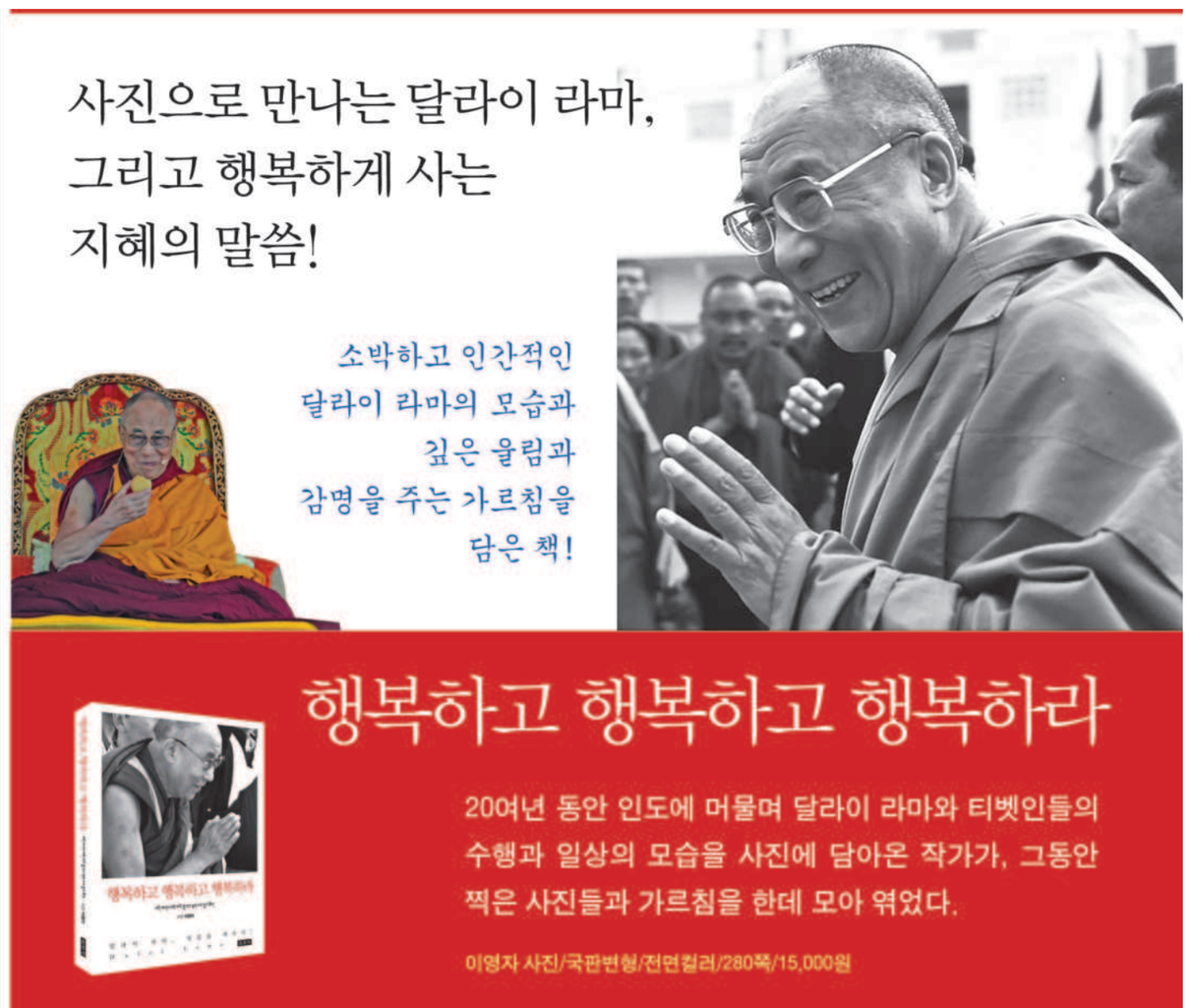

달마학교 자몽주스 부스의 지도법사 스님과 학생들


전통문화마당에서 관욕에 동참하는 불자들


전통문화마당에서 부채 만들기에 열중하는 아이들.


봉은사 앞마당은 오후 늦게까지 행사 인파로 북적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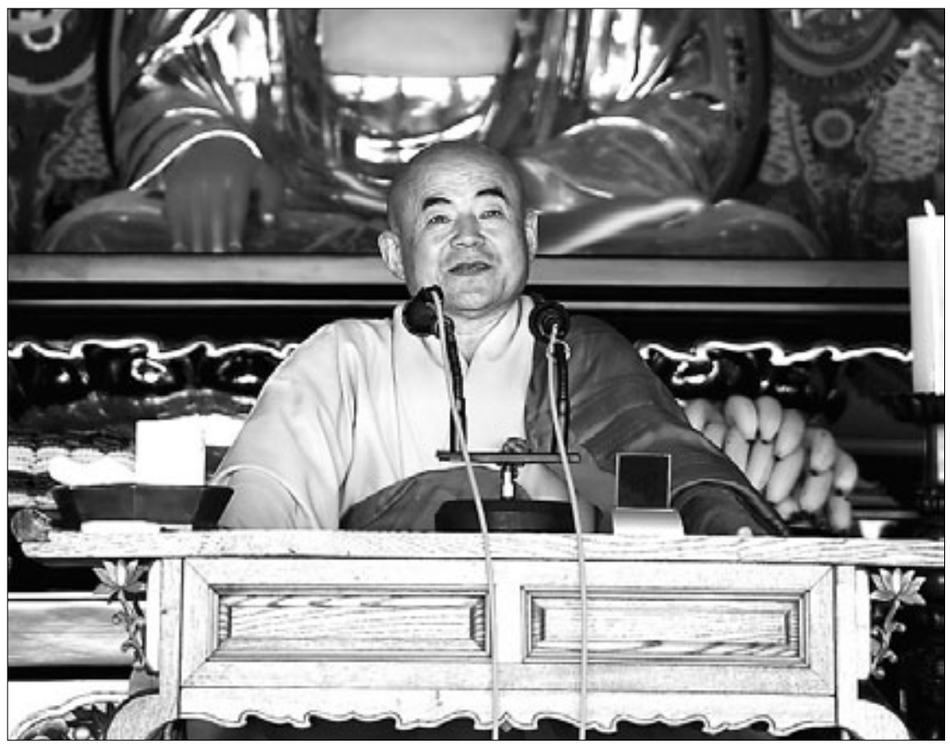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유신론·운명론… 모두 인간 마음서 비롯돼

부경대 대강연회… 주제 '운명의 논리와 부처님 가르침'

혜국 스님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내 안의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공기와 구름, 태양, 온 우주가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인간을 살아가게 하며 땅 속의 지렁이도 날아다니는 새도 마찬가지다. 일체만물은 한 데서 시작된 에너지로 이루어져있다. 혜국 스님은 5월 2일 부산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본관에서 '운명의 논리와 부처님 가르침'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혜국 스님은 "운명론은 만물이 내재한 기운은 모두 같은 장소에서 비롯된 것부터 시작한다"며 "절대신의 존재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운명도 마찬가지이며 부처님께서는 이를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고 말씀하셨다"고 설했다. 정리=박아름 기자



혜국 스님은 … 일타 스님을 은사로 13세에 해인사로 출가,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주 남국선원 '무문관' 및 남국 선원을 개원했으며 부산 홍제사, 충주 석종사를 창건했다. 현재 제주 남국선원장,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으로 주석 중이며 조계종 전국선원 수좌회 대표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생활 속에 천수경〉,〈인연법과 마음공부〉등이 있다.

만물은 우주적 에너지로 움직인다

오늘의 주제는 '운명의 논리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불자라면 한번쯤은 생각해 본 내용일 것입니다. 운명은 과연 어떤 세계고 부처님은 그 운명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운명론부터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운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운명론은 세계관과 인간관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모든 세계, 즉 귀로 들리는 세계, 코로 향기를 맡는 세계 등을 '세계관' 이라 할 수 있고, 인간의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인간관' 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인간들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인간들에게만 정해져있는 것일까요? 날아다니는 새들이나 뒷산에 뛰노는 노루들처럼 자연에게 있는 운명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먼저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죽습니다. 인간의 운명입니다. 남자로 태어나면 평생 남자의 몸으로 살아가야지 바꿀 수 없으며, 여자로 태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또한 운명론입니다. 그런데 운명론의 구체적인 예로 사주팔자를 살펴보면 타고난 대로 살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과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나 사주가 똑같은 사람들이 수백 명은 될텐데 사주팔자에 따르면 모두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과연 사주팔자라는 것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주팔자라는 운명은 과연 신이 만든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일까요?

운명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면 유신론을 알아봐야 하고, 부처님은 유신론과 운명론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짚어보아야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운명론 쪽이었습니다. 사람은 타고난 큰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가까이하며 운명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과연 어디까지를 운명이라고 할 것이냐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운명을 끌고 나가는 것이라 한다면, 내 안에서 나오는 기운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밤새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가 만든 공기를 코로 들이마시고, 구름이 만든 물을 마시며,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이 만들어내는 열의 기운은 인간의 코와 입과 감촉을 통해서 빌려온 기운입니다. 내가 내 기운을 스스로 만든 일이 없습니다. 내 기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내 기운이나 여러분 안에 내재한 기운은 모두 같은 장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자리를 에너지 세계라고 한다면 우리 몸은 사실 한 에너지의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날아다니는 새도, 기어 다니는 지렁이도 똑같은 기운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받아들이는 운명이 다릅니다. 바로 여기서 운명론이 시작된 것입니다.

신은 인간이 만든 존재

유신론은 문자 그대로 신의 존재를 긍정하는 이론입니다. 저는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 대한민국 땅에 유럽식 기독교가 안착했다면 우리나라가 훨씬 풍요로워졌을 텐데 독단적이고 개인적인 미국식 기독교가 안착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내 옆자리에 어느 아주머니가 앉더니 "왜 스님은 사탄의 길을 가십니까?" 물으니까 사탄은 악마라며 일체 모든 것을 전지전능한 하느님이 창조했다고 저를 전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 하느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여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면 악마 또한 하느님이 창조하셨을 것이며 지구상에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만드셨겠지요. 다시 유신론을 얘기해보자면 신은 악마를 왜 만들었을까요? 천지창조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는 어디서부터 나온 말일까요? 기독교는 2천 년 전이지만 이미 4천 년 전에 수타니파타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저 옮겨갔을 뿐이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가 받아들인 미국식 기독교의 배타적인 유신론은 하느님은 악마를 만든 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천사가 하느님에게 대항하려고 악마가 되어버렸다고 하지요. 유신론에 따라 모든 만물을 하느님이 만들었다는 사상은 사실 거의 인도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2천 년 전에 예수가 말한 천지창조 말고 근본으로 돌아가 2천 5백여 년 전에 부처님 시대에 유신론은 전변설이었습니다. 전변설은 인도철학의 우주론으로 하나의 실체가 스스로 변화하여 생성되었다는 학설입니다. 즉 브라만이라고 하는 절대신이 식물과 불과 물을 만들어 그곳으로부터 인간이 탄생하게 되어 모든 인간이 신의 자손이라는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점이 있습니다.

유신론에 따르면 최초의 세계는 신이 만들었으며 인류의 역사는 신이 만든 인간이 만들었는데, 신은 그렇다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이 현존해 지금도 이 우주가 신의 뜻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분열을 조장하고, 같은 종교 간에도 전쟁이 발발하는 것 마저 신의 뜻일까요? 과연 그것이 운명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일체우주 삼라만상은 마음의 움직임**
> **세상엔 정해진 것 없어, 마음가짐 중요**
> **운명은 물상과 같아 본래 아무것도 없다**
> **내 에너지 가는 방향으로 운명도 뒤따라**

부처님께서는 이 경우에 이렇게 묻습니다. '절대신' 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으며 이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최초에 '절대신' 을 누가 만들었느냐고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인간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탄이라면, 이 시대를 유익하게 하고 문명을 창조한 선조들 중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죽어서 지옥을 갔을까요? 운명론과 유신론을 생각하기 전에 도덕이 우선인지 종교가 우선인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덕은 유신론과 운명을 떠나 인간이 근본으로 지켜야할 근본 도덕, 종교와 관계없이 선과 악에 따른 인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교는 도덕을 보조해주고 도덕을 채우기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를 두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봐야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라문에게 말하기를 "모든 것은 신이 만들었다는 말은 인간이 쓰기 시작했다. 인간이 신을 본 것도 아니요 추측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신론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세계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은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난다' 는 말씀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다의 파도소리를 들으며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바위를 철썩 때리는 파도를 바라보며 어떤 사람은 인생무상을 느끼기도 하고, 연인이 함께 그 소리를 듣노라면 행복의 기운을 북돋아 주기도 합니다. 또 파도에 휩쓸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들에게는 마치 통곡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파도소리는 그저 자기 소리를 낼 뿐입니다.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 달리 들리는 것입니다. 일체우주 삼라만상은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물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며,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세계까지 물상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마음과의 관계는 없습니다. 없어져서 없는 것이 아니라 원래 없는 것입니다. 파도라는 것도 원래 없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바람에 의해서 변형된 것이 파도입니다. 물상이란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물상이라는 것은 본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유신론 또한 물상과 같은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부처님은 운명론에 대해서는 육사외도(六師外道)라고 하셨습니다. 이단이라는 나쁜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생각을 달리하여 다른 길을 가는 것이라 받아들이셨습니다. 운명이란 것을 신이 만들었다면 유신론이 되어야 하며 인간이 만들었다면 개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운명은 '한 생각' 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우리는 개척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사회의 모습을 과연 우리 조상들께서 상상이나 했을까요? 자동차가 달리고 KTX가 달리고 비행기가 다니는 요즘 세상을 보면 기염을 토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생명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는 모든 것은 전부 생명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만물이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기계라고 해서 달리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 달라질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만물 앞에서 자신이 주인입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한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내 노력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알콜 중독자, 게임중독자가 되는 것도 내가 그리 의도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본래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가는 방향으로 운명이 따라갑니다.

내 안에 익힌 에너지는 나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의해 생겨난 것입니다. 어머니가 섭취한 에너지로 나의 눈코귀입몸감정이 만들어집니다. 이를 육근(六根)이라고 합니다. 눈이 만들어진 이유는 바깥에 있는 내 마음에 비친 그림자를 다시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온갖 물상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는 모든 냄새, 귀로는 모든 소리, 입으로는 모든 맛, 몸으로는 모든 감촉, 감정으로는 모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육근에 의해서 보고 듣고 향기 맡는 등 상상하고 그릴 수 있는 세계를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이 육근(六根)을 만든 주인은 누구이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여기에 백합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수많은 철쭉과 목련꽃, 숲 속에 진달래꽃을 보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봄마다 피는 꽃을 볼 때 꽃에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묻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줄기에서 피는 줄 알지요. 그런데 아무리 줄기를 뜯어보고 뿌리를 아무리 헤쳐 봐도 꽃은 없습니다. 따뜻한 봄의 기운, 간지러운 봄비, 얼었던 땅에서 나오는 대지의 기운, 나무가 생명이 되고 지수화풍의 기운을 얻어 온 우주의 에너지가 한 데 몰려 꽃 한 송이를 피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 때가 되면 인연이 끝났구나 하고 꽃은 지고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인연에 의해 피고 지고 인연에 의해 생하고 멸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가지로 말하면 중도(中道)입니다. 이 중도를 다른 말로 하면 연기법, 연기공성이라고 합니다. 19세기 인간에게 가장 큰 병이 폐병이었고, 20세기 가장 큰 병은 암이었습니다. 21세기는 정신병입니다. 많은 사람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 방에는 TV가 없습니다. 우리가 TV에 빠져 그것이 끌어가는 대로 끌려가면 그것이 바로 정신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대사회 문제에 대해 윌리암 제임스나 토인비,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해결법이 불교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나와 남을 둘로 보지 않고 만물은 하나라고 보는 기운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백합 한 송이가 피기 위해 온 우주의 에너지가 한 데 몰리고, 인간이 태어나고 살아가기 위해 온 우주적 힘이 함께 움직입니다. 세상에 본래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스스로의 에너지를 바른 곳으로 이끌어 늘 밝은 곳으로 걸어가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연인원 4만명이 참가하는 힐링전문 템플스테이도량

선무도 공연과 함께하는 골굴사 성지순례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소멸하는 골굴사

주변성지 :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중릉

◆공 연 내 용 : 선무도 · 승군의 검무 · 화랑의 봉술 · 아수라의 바라무 · 사천왕의 탈춤
선무드라춤 테라피 · 힐링살풀이 · 불교전통무용 · 민요

◆ 템플라이프(유료) : 선무도체험 · 공연관람 · 공양(식사)

◆ 선무도 지도자 과정 신입생 모집 : 2년 전액 무료 (홈페이지 참조)

◆ 선무도 공연 ◆
매일 오전11 시 30분, 오후3시 30분(무료공연)
월요일 은 쉽니다





◆ 선무도 수련원 ◆
· 서울본원(종로) 02)763-2980
· 서울 강남지원 02)599-5554
· 부산지원 010-2554-8100
· 울산지원 052)276-6271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재)선무도 대금강문
☎ 054)744-1689 / 775-1689 www.sunmudo.com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8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5년 6월 中
◆ 개강일시 : 2015년 6월 中.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 개강일시 : 2015년 6월 中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광주 불교계 5.18 추모 물결 잇달아

추모행사 · 음악회 · 위령재 등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불교계 추모행사가 개최됐다. 광주전남불교NGO연대(대표 행법)는 5월 27일 조선대 지광 김동수 열사 추모비 앞에서 '5.18민중항쟁 제35주년 추모법회' 를 열고, 5.18에 희생된 영령들을 위한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오후 5시에 시작된 법회는 '내가 날씨에 따라 변할 사람 같소!' 라는 주제로 헌향, 헌화, 불교의례, 묵념, 님을 위한 행진곡, 지광 김동수 열사 약력소개, 추모사, 추모노래, 유족 인사말, 법문, 시낭송, 걷기명상 등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행법 스님, 효진 스님(광덕사 주지), 이채은 대불련 회장, 오원재 지광김동수열사 기념사업회 회장, 박태동 대불련 총동문회 수석부회장, 김희용 목사 등 100여명이 참여 했다.

지광 김동수 열사는 대불련 전남지부장으로 활동중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에 의해 전남도청에서 사망했다. 특히 김동수 열사는 1980년 당시 광주지역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진행부위원장과 조선대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 민주투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었다.

증심사 무등산 풍경소리(대표 연광)도 지난 5월 25일 경내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및 5.18민중항쟁기념 음악회를 개최했다. '세상을 향해 부르는 노래' 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음악회는 노래손님 정태춘, 박은옥, 쌍촌동성당 마리아성가대, 증심사 합창단의 공연과 4대종단 이정택 교무(원불교광주전남교구장, 윤연길 신부(쌍촌동성당 주임), 김성룡 목사(고백교회 담임), 연광 스님 등 성직자들이 이야기 손님으로 참여해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증심사 무등산 풍경소리(대표 연광)도 지난 5월 25일 경내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및 5.18민중항쟁기념 음악회를 개최했다.



5.18추모법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광주전남 불교NGO연대 대표 행법스님

대불련 전남지부장 김동수 열사 추모
무등산 풍경소리 종교인 음악회 개최
광주인드라망 인권체험 · 강연회도

129회를 맞는 무등산 풍경소리는 '생명과 환경을 생각하는 종교인 모임' 이 참여하는 종교간 소통 모임으로, 매년 성당, 원불교, 사회적 실천이 필요한 곳에서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불교단체에서 5.18관련 추모행사를 진행했다. 광주전통불교영산회(회장 월인)는 지난 5월 18일 국립5.18묘역 위령탑 앞에서 '5.18민주영령 천도 및 위령재' 를 봉행했다. 광주불교연합회가 후원한 이날 행사는 20여명의 영산재 의식스님들이 참여해 5월 영령 천도재를 봉행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도 5월 17일 망월동 구묘역에서 '꽃진자리 피어나는 희망' 이란 주제로 추모음악회를 열고 주먹밥 등을 나눠주는 행사를 개최했다. 광주전남인드라망생명공동체(대표 원묵)도 5월 16일 어린이청소년 5.18인권체험과 5월 17일 5.18강연회를 개최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이웃과 함께 나누는 봉축 자비나눔 '훈훈'

원오사 장학지원, 자비암 소외이웃 돕기도

부산 반송 원오사(주지 정관)는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꿈나무가 꾸기명정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및 후원금 전달식' 을 개최했다.

5월 25일 원오사는 봉축법요식에 이어 대학생 2명(각100만원), 동부산대 불교학생회 소속 4명(각 30만원), 고등학생 8명(각 50만원)에게 총 72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어 소외된 이웃을 위한 후원금도 전달됐다. 반송2동새마을금고 독서골든벨 지원금 100만 원, 반송지역 초등부 방과 후 공부방인 든솔학교 운영비 지원금 50만 원, 조손 · 편부 가정 여성위생대 지원금 420만 원, 북한어린이돕기 후원금 120만 원 등 총 69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에 지급된 장학금과 후원금 총 금액은 1410만 원에 이른다.

부산 동래 자비암(주지 자관)에서도 봉축을 맞아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해 훈훈함을 전했다.

자비암은 편부모가정 학생을 5명 (각 30만원) 총 150만원, 쌀 10kg 60포대를 부산 명륜동 및 북천동 일대에 전달했다.

매년마다 봉축을 맞아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자관 스님은 "지역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자비나눔 실천으로 봉축을 축하하는 것은 부처님의 뜻을 실천하는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한다"며 취지를 전했다.

하성미 기자



원오사 서 열린 '꿈나무가꾸기명정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및 후원금 전달식' 장면.

지역 봉축 법요식 프로그램 다채

부산불교실업인회 범종불사 회향
대구 팔공산 성연사 육법공양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각 지역에서는 다양한 봉축 법요식이 열렸다.

부산불교실업인회(회장 김윤환)는 봉축을 맞아 범종 불사를 회향하고 그 공덕을 회향 발원하는 특별한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부산불교실업인회는 5월 21일 부산불교실업인회 회관 묘광선원에서 회원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봉축법요식 및 범종불사회향식을 열었다.

법요식은 삼귀의, 발원문 낭독, 범종 봉안 및 타종식, 신입회원 입회선서, 관욕의식 등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범종불사에 관한 공덕을 돌아보는 장재진 교수(동명대 불교문화콘텐츠학과)의 특강도 이어졌다. 장 교수는 범종의 유래를 설명하며 범종 불사의 공덕과 기능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대일불교조계종불 팔공산 성연사(선원장 구룡)도 5월 2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법요식을 가졌다. 특히, 신도회(회장 한승집)에서는 '육법공양' 을 마련 1백여 불자들과 함께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더했다. 선원장 구룡 스님은 "육법공양 이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것이며, 중생을 이롭게 하고 구제하려는 보살의 뜻을 펴는 것"이라고 법문했다.

하성미 기자 · 손문철대구지사장



부산불교실업인회는 묘광선원에서 봉축법요식 및 범종불사회향식을 열었다.

"일념으로 수행정진 실천이 중요"

익산 정각사, 도영 스님 초청법회

익산 정각사(주지 일행)가 5월 18일 前 포교원장 도영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매월 전국의 선지식을 초청해 법문을 청해 듣는 33선지식 법회를 갖는 정각사는 5월 법사로 前 포교원장 도영 스님을 초대했다.

정각사 주지 일행 스님은 "시골의 작은 절에서 선지식을 어렵게 모시고 법회를 열어가고 있다" 며 "지역의 어른이시며 큰 포교원력을 가지고 있는 도영 스님의 법문을 통해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전법과 기도정진에 노력하는 불자가 되어 달라" 고 말했다.

도영 스님은 법문을 통해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일념으로 정진해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자신의 원하는 바를 얻으려면 무엇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올해의 사자성어인 화엄경의 존해파평을 주로 법문주제로 삼고 있다" 며 "바다도 존중하면 파도도 평온해진다는 경구를 명심하고 보살의 삶을 살아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익산 정각사는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 농사를 지으며 부족한 사찰 재정을 해결하고 있으며, 신심이 약한 지역 불자들을 위해 매월 선지식 초청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익산 정각사는 前포교원장 도영 스님 초청법 33선지식 초청법회를 가졌다.

대구 운불련 불자회 경로잔치 개최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 대구지역회(회장 성승길)가 5월 23일 부처님 오신날기념 '운불련 경로잔치' 를 천태종 대구 동대사 앞 잔디밭에서 개최했다.

이날 경로잔치에는 천태종 동대사 주지 도산 스님, 대성사 주지 화산 스님, 주호영 · 강은희 국회의원, 정순천 대구시의회 부의장, 대구경찰청 장호식 법우회장, 동대사 신도회장 임응호, 대성사 조대현 총무위원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은 행사에 앞서 50여 명의 운불련 회원들이 각 구청 노인복지회관에서 200여 어르신들을 택시로 모셔와 훈훈함을 더했다.



성승길 회장은 "운불련 택시는 달리는 법당 '움직이는 포교사' 다. 어르신들을 내 부모님같이 모시자는 생각에서 올해 경로잔치를 열게 되었다" 며 취지를 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홍법사 '제 25회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가 '제25회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 를 봉행한다.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며 유주무주 고혼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거행하는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는 6월 6일 오전 10시 홍법사 잔디마당에서 진행된다. 행사는 불공 및 육법공양, 천도재, 홍법대상 시상으로 이어진다. 특히 이 자리에는 한국 전쟁 당시 미국에서 파병된 참전용사 가족들도 초청한다.

홍법바라밀재에 이어 홍법사는 '제5회 호국의 숨결대회' 도 진행한다. 낮12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청소년의 호국안보정신을 고취시키고 애국 정신을 되살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참가부문은 그리기, 글짓기, 서예이며 참가대상은 초 · 중 · 고 모든 학생 모두 가능하다. (051)508-3471

하성미 기자

지구촌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 온 35년의 세월들

세계 곳곳에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국내를 비롯하여
지구촌 후진국 빈민촌의 어둠과 고통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불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군소종단의 통합을 염원하며 아픔을 함께 하고자 하는 한국 군소종단들의 모임체

땅에 떨어진 불교의 위상 군소종단들이 하나로 뭉쳐 불교를 바로 세우는 밑거름이 됩시다.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종단 지도자 여러분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여기 저기 기웃거리다가 자신의 마음에 뜻이 같지 않으면 순식간에 등돌리고 무리져서 이리 가고 저리 가는 부실종단 지도자들은 더 이상 먹물 옷을 욕되게 해서는 안됩니다. 부실종단이 난립하니 승려의 자질과 역량이 사회와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수행자의 출현이 아쉽다는 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우려 아상과 독선, 옹고집 명예와 권력야욕 벗어 던져 버리고 이제는 초발심으로 돌아가 종단은 다르나 모임에는 통합되고 단결된 종단들이 되어 불교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역할로 각자의 본분을 충실히 다져야 합니다. 적으면 적은대로 불교에 누를 끼치는 종단에서 벗어나 불교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주역이 됩시다. 가입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단 정식 법인 등록된 종단 및 단체가 가입 자격이 있습니다.

대표전화 02)733-5665. 733-5670.
팩 스 02)733-5615. H.P : 011-229-6061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승려교육 통일. 품수통일 불교행사통일 종단활동 지원 가사 통일
단일금강계단 설치하여 합동 품수식 및 합동 수계법회. 단일 합동 고시위원회 활성화
사단법인 : 세계 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大韓佛教108宗正聯合會. 大韓佛教 宗團 總聯合協議會. 韓國佛教 高僧長老團.
世界佛教 考試委員會. 大韓佛教 大宗師 聯合協議會. 韓國佛教 元老長老團. 韓國佛教
나라사랑 聯合協議會. 韓國佛教 宗團 人權委員會. 국제붓다봉사단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그늘진 곳에
같이 웃고 같이 울며 고통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하는
봉사단 불자를 모십니다.
불자라면 남,녀 누구나 환영합니다.

[지리산다슬기 진골드]

지리산과 덕유산일대의 자연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1개월/60팩



80ml*60팩
(1BOX)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02)879 - 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125,000원 (무료배송)

대원불교미술원

청동불사 조성(제작) 전문

청동불상, 개금, 탱화, 단청 일체

진실과 원칙, 최고의 재료로 부처님 조성에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 많은 조언과 믿음으로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스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 임영달 합장



경기 포천시 내촌면 진목 1리 915-14
전화 031)532-3722 | 010-7171-2636 | 팩스 031)533-3722
이메일 lyd5798@naver.com

불경 라디오 成佛

디자인,구성 upgade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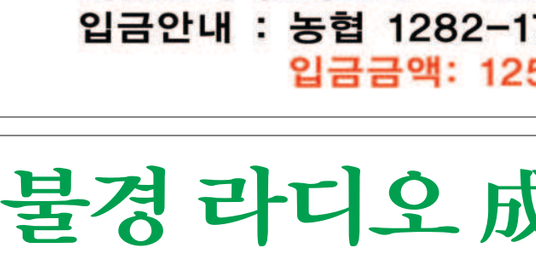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가요를 담은 SD 메모리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FM 버튼을 누르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FM버튼을 누르면 자동 주파수 검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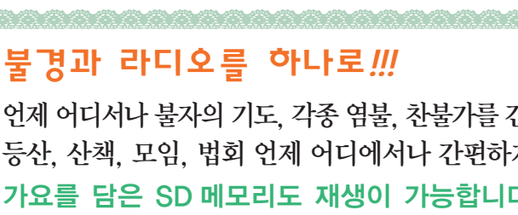
제품구성 성불라디오 (가로12cm × 세로5.7cm × 두께2.5cm) + 4GB불경SD카드 + 1200AM베터리 + USB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 더욱 좋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향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현불샵 특가판매

편백나무 원목 경상(經床)

법회나, 경전강의, 개인기도 등
법당 및 가정에서 불자님들의 수행과 함께 합니다.

경상 (經床)

불교경전을 얹어놓고 읽는데 사용하는 책상. 법당과 가정에서
기도와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책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가 불자가 되는 처음 시작하는 책상.



● 재 질 : **편백나무**
● 크 기 : W60㎝ × D40㎝ × H28㎝
● 특 징 : 고급 접이식 경첩을 고정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 가 격 : 개당 6만원
● 주 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편백나무 경상

▶ 접은 상태

▶ 접이식 고급 경첩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현불샵 리뉴얼 기념 할인 행사
가격 ~~10만원~~ ⇨ 9만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중국, '상업주의 불교'에 파묻히나

세계에서 불교도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 'Public Radio International(이하 PRI)에 따르면 불교도 수가 2억여 명(현재 기준)으로 추산되는 중국이다. 그런데 'PRI'는 "이런 통계수치로 중국 불교계가 '성장하고 있다'고 말하긴 힘들다"고 지적한다. 중국 정부와 중국 불교계의 밀월에서 부처님 가르침과는 상반된 단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PRI'이 중국 불교계 성장에서 중국 정부와 중국 불교계의 밀월의 뼈대를 이룬 '불교정책'과 '상업주의'에 주목한 까닭이다.

'PRI'는 "현재 중국 불교 부흥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좋은 교육을 받은 후 도심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계층"이라는 티베트 불교를 연구하고 있는 중국인 여성학자 아나(Ana · 가명) 박사의 말을 인용하고 "이들은 중국 불교 부흥에 일조하고 있지만, 대부분 중국 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중국 정부가 '반(反)불교정책'을 펴는 순간 '무신론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PRI'과의 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 무신론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아나 박사는 "티베트 불교를 연구하며, 중국이 불교를 다시 수용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며 "이 일이 개인적으로 선업을 쌓는 공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나 씨에 따르면 그녀 자신은 엄격한 무신론자였던 조부의 슬하에서 자랐다. 당시 조부는 "종교란 무지한 대중을 통제하는 데 사용했던 독제자의 통치 도구"라는 말을 그녀에게 자주했다. 그녀의 부모는 조부처럼 '확고한 무신론자'는 아니었지만, "만약 돈이 된다면 관리하며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그녀에게 애써 말했다.


중국 불교가 부흥기를 맞고 있다. 중국의 불교도 수는 2억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세계 각국 중에서 가장 많은 불교도 수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와 중국 불교계의 상업주의를 앞세운 밀월 관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양적 성장의 기반이 불교도 수가 '허수'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중앙 · 지방정부 친불교 정책 … 사원 수익에만 주목
부처님 가르침과 다른 '수행 · 신행' 부추겨

이에 대해 "지금의 중국인 대부분 선대와는 달리 자신에게 '불성'이 있다는 부처님 가르침에 호응하고 있다"고 전제한 아나 박사는 "그러나 중국에서는 '불성'이란 중국 정부의 '친(親)불교정책'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는 티베트 불교계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범죄자' '분리주의자'로 낙인을 찍은 중국 정부가 학자들의 티베트 불교 연구를 후원하는 양면성을 보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즉,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때 자신의 '불성'도 포기하는 등 모든 종교적 행위와 연구를 중단할 수도 있는 셈이다.

중국 정부의 대 불교 가이드라인, 즉 입김은 중국 남서부 도시 충칭의 아라한사의 경우처럼 사원 운영에도 미치고 있다. 아라한사는 지난 쓰촨성 대지진 직후 지역 주민에게 '긴급 구휼'에 선 것으로 주목 받았다.

'PRI'는 아라한사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종무원 지앙(Jiang · 60) 씨의 말을 인용, "아라한사를 방문한 대중들의 보시금은 먼저 중국 지방정부에 보내지는데, 지방정부는 그것에 근거해 아라한사의 예산을 편성 ·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앙 씨에 따르면 아라한사의 예산에는 '학생 장학금'과 '병원 지원금' 등이 포함되어 있고, 쓰촨성 대지진 이재민을 도운 기금도 이 예산에서 '긴급 편성'됐다.

'PRI'는 이를 "중국 정부와 사원 모두에게 유익한 '윈-윈(win-win)'이라는 '전략적 정책' 하에서만 수행과 신행을 펼칠 수 있다는 뜻"이라고 꼬집는다.

이를 반증하듯, 중국 정부는 사원 재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사원을 거점으로 한 관광 사업도 주도하고 있다. 사원 역시 중국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부처님 가르침과는 다른 방법을 동원해 사원 보시금을 늘리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상하이 옥불선사의 천도재의 경우, 참여 스님의 수에 따라 보시금이 결정된다. 10명의 스님이 참여하면 1천5백 달러, 40명의 스님이 참여하면 6천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다. '새로 구입한 차에 축원 기도를 올린다'는 광고 포스터가 사원 광고에 게재되기도 하고, 새해 첫 향을 태우는 신년 기도법회에서 부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가격을 겨 팔기도 한다.

이에 대해 "사원에서 축원을 올리는 일이, 이제는 가게를 방문해 물건을 사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됐다"는 아나 박사는 "신년 기도법회 맨 앞자리는 부유한 사업가나 고위직 공무원이 아니면 넘볼 수 없는 자리"라며 "이는 중국 정부가 상업주의에 입각해 불교를 수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중국 불교계는 비판 없이 그 정책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말레이시아서 미얀마 로힝야족 '집단무덤' 발견

미얀마 소수민족 로힝야족이 이슬람교라는 이유로 각종 박해를 받는 가운데, 말레이시아서 로힝야족으로 추정되는 집단무덤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AFP통신 · AP통신은 말레이시아 경찰이 5월 25일 말레이시아 북부 국경지대 페틀리스주 산간 지역에서 로힝야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매장된 무덤 139곳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인신매매 조직 범행 추정… 당국 조사 착수
달라이라마, 노벨평화상 수치 여사에 도움 요청

이와 함께 무덤이 발견된 밀림 인근에서는 밀입국자 인신매매조직 28개 캠프가 확인됐다.

경찰 당국은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한 무덤 당 2구의 시신이 묻혀있다고 추정된다"며 "발견된 인신매매캠프 중 가장 큰 곳은 최대 300명을 수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신매매조직은 로힝야족에게 밀입국 원조로 접근해 수천 달러를 받아낸 후 협박과 고문을 일삼아 왔다. 이에 최근 경찰이 난민 수용소 단속을 강화하자 인신매매 조직들은 난민들을 가뒀던 태국에서 말레이시아 캠프로 옮기기 위해 노력했다. 현지 경찰은 이 과정에서 많은 난민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앞서 2012년 미얀마에서는 인구 90% 이상의 불교도와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 간의 종교 분쟁이 발발했다. 이 결과로 2백여 명이 숨지고 14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으며, 로힝야족은 미얀마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배에 실려 표류하는 등 큰 위기에 직면해 왔다.

한편 달라이라마는 5월 28일 호주 언론 'The Australian'과의 인터뷰에서 로힝야족 사태와 관련 미얀마 민주화운동가 아웅 산 수치(Aung San Suu Kyi) 여사에게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달라이라마는 "로힝야족 난민은 국제사회에서 방치돼 있다"며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수치 여사가 로힝야족 인권 보호를 위해 크게 힘써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아름 기자

솔트레이크시티에 피어나는 법향

툽텐 스님, 모르몬교 성전 유타 주에 선근을 심다


툽텐(Lama Thupten Dorje Gyaltsen) 스님이 지난 4월 25일 어그엔 삼텐 링(Urgyen Samten Ling) 사원을 찾은 불자에게 법문을 하고 있다. 사원 주지를 맡고 있는 스님은 인근 유타대학(University of Utah)의 교수로도 재직하고 있다.

모르몬교의 성전이라는 유타의 주도 솔트레이크시티(Salt Lake City)에서 선근을 심고 있는 스님이 화제다.

'Salt Lake Tribune'지는 "어그엔 삼텐 링(Urgyen Samten Ling) 사원의 툽텐(Thupten · 주지스님 · 사진) 스님이 모르몬교 성전 주민들의 신심을 다잡고 있다"며 "스님은 사원을 찾은 불자나 일반인들에게 명상과 자비의 가르침을 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툽텐 스님이 법석에 앉는 날이면, 사원을 찾는 사람들이 평소 2배에 이를 정도로 많다.

그들이 스님을 찾는 이유는 "'서로를 격려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자'는 스님의 가르침이 좋다"(셀마 브레드), "스님은 항상 사회 갈등 대부분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 · 인종 · 종교 문제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 가를 보여준다"(스콧 소머드로프) 등 다양하다.

'Salt Lake Tribune'지에 따르면 툽텐 스님의 '호혜적인 불교관'은 그의 독특한 이력에서 비롯됐다.

툽텐 스님은 서태평양 마리아나 제도에 위치한 미국 자치령, 괌의 군사기지에서 태어났다. 당시 스님의 어머니는 '미혼모' 신분이었고, 해당 기지에서 근무하던 군인 윌리엄(W. Gardner, W. Lee) 부부에게 아이를 보냈다.

이후 스님은 독실한 침례교 신자였던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유타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하며 불교로 개종했다. 현재 스님은 유타대학 가드너(Gardner, Jerry A) 교수로도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이날 법회에서 "저는 여러분을 봉양해야 하는 사람"이라며 자신을 소개한 툽텐 스님은 "사람의 모습과 생각은 만다라만큼 다양하고 복잡하다"며 "이를 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우주적 진리'이며,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배우는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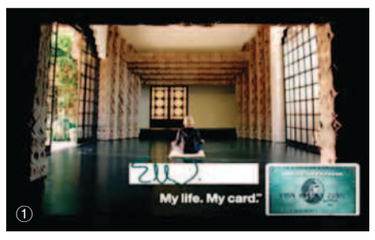
또한 "우리는 서로의 삶에 좋은 촉매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스님은 "사회생활에서 '우주적 진리'를 실천하다보면 때론 '아웃사이더'가 된 기분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것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며 "명상은 우리 내면의 힘을 키우고, 우리는 그 힘으로 서로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Salt Lake Tribune'지는 "1994년 티베트 불교 사원으로 개원으로 어그엔 삼텐 링 사원이 툽텐 스님을 중심으로 큰 걸음을 옮기고 있다"며 "최근 '티베트 불교' '불교 수행 입문' '명상 실수' 등의 주제 강좌를 개설하는 한편 매주 일요일 '푸자 의식'을 봉행하며 지역 신심을 다잡고 있다"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불교와 상품이 과연 어울릴까?

카드 · 음료 등 상품마케팅에 불교 사용 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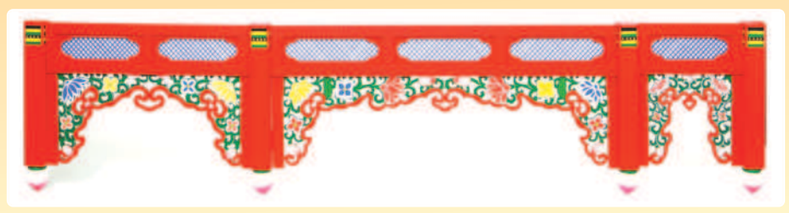
①어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②이온음료 'Thirsty buddha'
③주 류 'Lucky Buddha Beer'
④건강음료 'Zazen'

불교와 상품.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주제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 것일까. 카드, 음료 등의 상품이 불교를 소재로 개발되고, 그에 따른 광고를 펼치며 소비자 지갑을 열고 있다.

'Lion's Roar'지에 따르면 어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American Express card)사는 어떤 상점에서도 거부되지 않는 카드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명상 장면을 넣었다.

티엠(TM)사는 건강음료 'Zazen'을 출시하고 몸과 마음을 채워줄 음료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호데이(Hotei)사 역시 이온음료 'Thirsty buddha'를 출시하고, 불교의 청정성에 주목한 광고 전략을 펼치고 있고 엘비(LB)사는 행운을 불러주는 맥주라는 'Lucky Buddha Beer'를 내놓았다.

오종욱 편집위원

목각단청운각
(간편조립)
법당장엄 5층 목탑
전통적인 연꽃 단청과 문창살문양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보다 장엄하게 설치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대웅전, 산신각, 포교당, 소법당 등의 천장에 누구나 간편하게 직접 조립할 수 있게 제작

■3자 : 1판

■2자 : 4판

■1자 : 4판
※ 단청운각 1세트 17자(5m, 10cm) / 가격 : 90만원

■크 기 : 높이 120cm / 하단 가로 45cm
보급가 : 900,000원 (배송비 포함)
*내부 조명등 있습니다.

■크리스탈사리탑
높이 45cm / 가로, 세로 20cm
가격 : 35만원
고전상사
전화 : 031)442-3168 / 010-3772-3165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18-185번지
계좌번호 : 농협 356-1008-993643 (예금주 : 김판희)
모든 제품은 입금 후 우편 배송하여 드리며,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하여 드립니다.

불자님들의 오늘 운세 는?
백팔번뇌 운수카드 + 복주머니
1SET 3만원
TIP 백팔번뇌 파자비결에 있소이다!
갑골문자(甲骨文字)는 신석기 시대 점괘(占卦)를 기록한 점서로 한자의 모체가 되어 변(邊)과 획(劃)에 신통력이 있다. 바로 격암유록이나 정감록비결은 파자(破字)의 신통력으로 국운을 예지(叡智)한 예언서이다. 나라에는 흥망성쇠가 있고, 인생항로에는 길흉화복이 있으니 천부(天賦)의 계시로 신통력이 있는 백팔번뇌 파자비결(破字秘訣)을 보는 순간 여러분의 고통은 구름처럼 사라진다.
■ 계좌번호 : 우체국 011965-02-112777 (예금주 : 한영필)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 1길 16 정원아트하우스 2층 201호 / 전화 010-7742-3111 松岩 한영필 합장

진정한 리더가 되려면 미후왕처럼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③ 돌원숭이, 원숭이 왕이 되다



그림 · 최주현

원숭이들 개울에서 멱감으며 놀다가
갑자기 개울물의 근원에 호기심을 느꼈네.
찾아 찾아 올라가 보니
바위에서 큰 물이 솟아 올라 폭포되어 떨어지는 곳까지…
그 폭포의 장관, 한 시인은 이렇게 그렸도다.
"물줄기 곧바로 삼천척을 날아 내리니
(飛流直下三千尺)
은하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가?(疑是銀河落九天)"

이 물은 어디로 통했을까?
그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
우리들 왕으로 모시자!
시끌 와글 원숭이들 뜻을 모았네.
그 때까진 그저 평범한 돌원숭이였던 손오공
자루 속에 들어간 송곳이 밖으로
날카로운 몸체를 드러내듯
용감하게 폭포 속으로 뛰어 들었다.
원래 출생이 특이한 비보통(非普通) 원숭이였지.
큰 일을 맞으니 비로소 그 영웅본색 드러난다.

눈 감고 풍덩 뛰어든 폭포 속
폭포가 주렴처럼 앞을 가린 그 속
딴 세상이 열려 있구나.
푸른 소나무에 매화 꽃 향기 그윽한 곳
'화과산의 복된 곳, 폭포로 주렴을 드리운 골짜기(花果山福地水簾洞)' 라는 글까지
돌 벽에 새겨져 있구나.
"딴 세상 에 있구나. 인간 세상이 아닐세(別有天地非人間)"로다.

돌아나온 돌원숭이에게서 이 소식 들은 원숭이 무리,
약속대로 돌원숭이를 왕으로 모셨다.
그 이름도 위대한
'훌륭한 원숭이 왕(美?王)' 으로….
아! 돌원숭이 손오공
드디어 출세했구나.
왕 노릇 하는 재미는 얼마나 좋을까?

서유기는 엄청 긴 이야기입니다. 그걸 모두 따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너무 지루하게 됩니다. 자연 좀 건너 뛰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겠지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건너 뛰면 진도 못 따라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일단 처음 몇 주는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유기의 분위기에 좀 익숙해지면 조금 속도를 내기로 하지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손오공이 원숭이 왕이 되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해서 원숭이 왕이 되는지는 앞의 시를 읽어 보시면 알겠지요? 중간에 있는 한자 시구는 이태백이라는 인간 시인이 읊은 시입니다. (廬山瀑布 여산의 폭포를 읊음 · 山中答俗人 산중에서 속인의 물음에 답하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원숭이들은 호기심이 많다 하죠? 그 호기심이 끝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흠이지만. "호기심은 모든 발견의 아버지다"라고 누가 말하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어떤 일이나 사물의 근원을 찾는 호기심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의 이 대견한 원숭이들은 개울물의 근원을 찾아 결국 수렴동을 발견하는 큰 성과를 이루는 군요. 그 발견의 과정에서 우리 돌원숭이가 결국 그 비범함을 드러내게 되구요. 얼마나 놀라운 돌원숭이인가요? 남들이 모두 궁금해 하면서도 우물쭈물하는 일에 몸을 던지는 그 용기! 대중의 열망을 짊어지고 거센 폭포로 뛰어드는 우리 돌원숭이의 모습을 그려 보세요. 조그만 몸뚱이지만 결코 작을 수 없는 큰 모습이 감동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제가 이렇게 좀 깊게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의 소위 지도자들이라고 나서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크기 때문인 것도 같네요.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요즈음의 지도자라 하는 분들, 정말 염증이 나게 하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가 정치인들 아닐까 싶군요. 오죽하면 이런 우스개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모기가 배탈이 났습니다. 다른 모기들이 "어디서 먹고 왔니?"라고 묻자, 배탈난 모기가 "국회 식당에서 먹고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다른 모기들이 "야! 거긴 순 불량식품만 모여 있는 거 몰라? 배탈 나는 게 당연하지!"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한번은 썰렁하게 웃을 수 있지만, 다시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대표로 뽑은 우리 자신이 좀 처량해지는 우스개입니다. 자신은 바르지 않으면서 남을 바르게 이끌겠다는 이상한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정치인 가운데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기 이전에 그런 사람을 대표로 뽑은 우리 자신들에 대한 반성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용감한 돌원숭이를 약속대로 왕으로 모신 원숭이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마 우리나라 상황 같았으면 온갖 유언비어 조작하고 음모를 꾸며서 뒤통수 때리느라 한바탕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말이요. 왕으로 모시기로 한 것이 분명하고, 또 돌원숭이가 용감하게 뛰어들어 수렴동을 발견한 것도 명백한데 어떻게 뒤통수를 때리느냐고요? 순진하셔라. 저도 순진하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 어떻게 뒤통수를 치는지는 하도 많이 봐서 잘 압니다. 한번 가상적으로 우리 돌원숭이 뒤통수 치는 방법을 만들어 볼까요?

1. 저 돌원숭이는 출신성분이 불분명하다. 돌에서 나왔다는 설이 가장 믿을만 한데, 그렇다면 머리도 돌대가리일 것이 틀림없다.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는 말도 있지 않으냐. 폭포로 뛰어든 것도 용기가 아니라 무식해서 그 위험을 모른 것일 뿐이다. 또 폭포를 쉽게 뚫고 들어간 것도 출신이 돌이라서 그 무게 때문에 잘 가라앉은 것일 뿐이다. 우리가 얘를 왕으로 모신다면 결국 그 출신이 돌이라는 점을 높이 인정하는 것이 된다. 어찌 똑똑하고 영민하고 신중하고 사려깊은 우리 원숭이들이 단지 돌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공을 세운 자를 왕으로 모신단 말이냐!

2. 돌원숭이가 수렴동을 발견하여 왕이 되려 한 것은 사전에 계획되고 조작된 음모이다. 돌원숭이는 돌 출신이니 물에 들어가면 잘 가라앉는다더라. 예전에 우연히 여기까지 와서 수영도 못하는 주제에 까불다가 폭포 속으로 가라앉아서 수렴동을 발견했다던가? 그리곤 슬그머니 개울물의 근원을 찾아보자고 우리들을 선동했고, 또 그 속을 뚫고 들어갔다 나오면 왕을 시키자고 선동했다. 증거? 개울의 근원을 찾아보자고 먼저 촐랑댄 놈들, 그놈들이 걔하고 구석에서 수근거리는 것을 본 애들이 있다. 또 그놈들이 폭포 들어갔다 온 원숭이를 왕 시키자고 맨 먼저 소리친 것을 본, 분명하고도 뚜렷하고도 확실한 많은 목격자들이, 줄줄이 여기저기 방방곡곡에 수도 없이 널려 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저 돌원숭이가 왕이 되려고 사전에 치밀하게 조작한 일이다. 수렴동 발견한 것은 괜찮은 일이니까, 조작한 죄는 용서한다 치자. 그러나 절대 왕 시키는 것은 안된다. 그저 상금 몇푼 쥐어주면 될 일에 왕을 시키다니 말이 되는가? 왕 선출은 다시 해야 한다.

솔선수범 · 자기희생으로 수렴동 발견
돌원숭이 공적 인정해 왕으로 추대

"어렵고 생소한 일을 나서서 하라"
지도자의 덕목이 무엇인지 보여줘

이런 식으로 유언비어 퍼뜨리고, 그걸 삼대 원숭이 일간지라는 동후(東猴)일보, 조성(朝猩)일보, 중원(中猿)일보 등에 슬슬 흘리면 됩니다. 그런 일이 우리 사회에 수도 없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나 봐. 아마도 곰곰히 생각하면 그런 근거없는 유언비어나 중상모략에 나도 모르게 춤을 춘 적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 색깔이 좀 빨갛다는 식의 색깔 뒤집어씌우기 같은 것은 유언비어, 중상모략의 방식에서 아주 단골 메뉴죠. 그런 이상한 소문에 흘리면 그 다음부터 제대로 보이는 것이 없게 됩니다.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까"하는 식으로 왜곡되기 마련이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근거없는 소문에 홀려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이나 사건을 본 적이 없는가. 아마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 모두 다 그런 잘못을 한 두번은 범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악성의 유언비어, 중상모략이 극성을 부리게 만든 공범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돌원숭이가 왕 되는 대목은 지도자의 자질과 기준, 또 올바른 지도자를 뽑는 어려움을 한번 생각하게 하네요. 시대와 대중의 요청을 그 한 몸에 짊어지고 과감한 결단으로 앞장을 서는 사람, 또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처음으로 가는 용기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 아닐까요? 처음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는 가끔가다 "누가 해삼을 처음으로 입에 넣을 생각을 했을까"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 적도 있어요. 제가 처음 해삼을 봤을 때 엄청 느물거리고 징그러워 보였습니다. 물론 해삼은 맛있는 식재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해삼을, 먹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처음 입에 넣고 맛을 본 사람도 정말 용기있는 사람이란 생각이 듭니다. 처음이라는 점에서는, 그리고 작은 사건도 아니죠. 그 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삼의 덕을 보았겠어요? 식품으로, 약으로도.

지도자, 그리고 처음하는 것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평소에는 혼자 잘난 척, 혼자 깨끗한 척 하다가 정작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꼬리를 말고, 숨 죽이고 있다고 문제 잘 해결되면 와르르 뛰어 나와 다 내가 한 일이라고 하는 사이비 지도자가 즐비한 세상. 그런 세상에 대해 엄하게 한번 호통을 쳐 본다는 것이 물 간 해삼처럼 흐믈흐물하게 되어 버리고 말았군요.

진정한 공적으로 왕이 된 돌원숭이 손오공, 왕 노릇도 잘 하겠죠? 그 재미는 또 얼마나 좋을까요?

※ 법화경 · 사경 ※



묘법연화경
할인가 28,000원(5권 이상)
정 가 40,000원(1권)



묘법연화경(우리말)
할인가 9,600원(20권 이상)
정 가 16,000원(1권)





11호~17호 법화경(한문)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 가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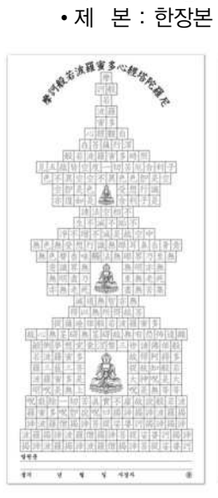
34호~40호 우리말법화경1~7
할인가 2,100원(50권 이상)
정 가 3,500원(1권)

묘법연화경사경공책 〈주문생산〉
정 가 5,000원(1권)
※칸만 그어져 있는 공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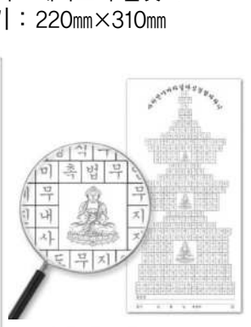
※ 경전사경·사경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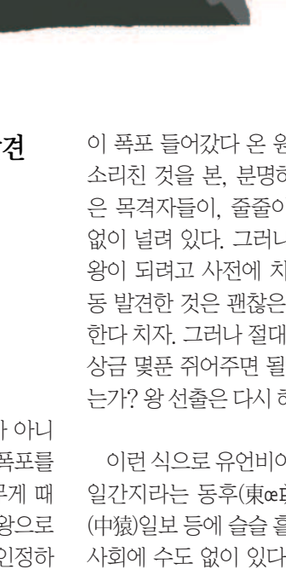
1호 반야심경(한문) 2호 금강경(한문) 3호 반야심경(한글) 4호 금강경(한글)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 내 지 : 70장 자연색메트지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크 기 : 220㎜×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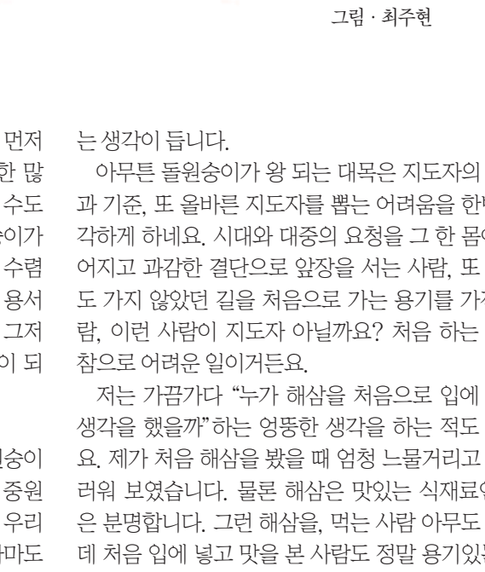




반야심경 탑사경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 가 200원
• 구 성 : 한지낱장
• 크 기 : 636㎜×313㎜
• 종 류 : 한문,한글



영가옷B형-남 정가 1,200원 영가옷B형-여



영가옷C형-남 정가 1,000원 영가옷C형-여



수자영가옷 정가 800원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예수재함A (50개 1박스)



동남영가옷 정가 800원



동녀영가옷 정가 1,000원



종이신발(남/여) 1켤레
100개이상 할인가 1,300원
정 가 1,500원



※크기
• 대 6.5×24㎝
• 중 6×22㎝
• 소 5.3×18.3㎝
한지접은 위패(대/중/소)/인쇄접은 위패(대/소)
정 가 30,000원 / 30,000원 (100개)
할인가 @250원 / @250원 (1000개이상)



※크기
• 15.5×19㎝
한지·인쇄접은영가옷(남/여)
정 가 27,000원 (100벌)
할인가 @240원(1000벌이상)



금강호신경
1000조 @160원
대량주문시 전화주세요.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망견·망집 등 인간은 약점에 휘둘리나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前금강대 총장 편역)

17. 악마(惡魔)의 시험 ㊦

인간의 약점과 싸우는 사람들

붓다의 설법가운데 새롭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은 설법 중 하나가 〈악마상응(惡魔相應)〉이란 이름의 경전들이다.

예수의 언행을 기록한 복음서에서도, 그가 복음전도에 앞서 황야(荒野)에서 악마의 시험을 받았다는 한 구절은 자주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다. 그때 예수는 40 낮 40 밤의 단식에 의해서 굶주리고 있었다. "그대 만일 신의 아들이라면 명(命)하여 이들을 빵으로 변하게 하라"라고 굶주린 예수에게 악마가 속삭인다. "사람이 사는 것은 빵 만에 의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예수의 대답이었다. 그 대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감동시킨다.

악마는 또 예수를 도시로 데리고 가서 궁전 높은 곳에 서게 하며 "그대 만일 신(神)의 아들이라면 그 몸을 밑으로 던져보라"라고 말한다. 그것은 교만(驕慢)에의 유혹이었다. "주(主)인 그대의 신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는가"라고 말하는 예수의 대답도 역시 인상적이다.

다시 또 악마는 그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여러 나라의 영화(榮華)를 보여주면서 "그대 만일 엎드려서 나에게 절하면 이것을 모두 그대에게 주리라"라고 시험한다. 그것은 권세의 유혹이었다. 그것에 대답하여 예수는 "사탄이여 물러가라, 주(主)인 구대의 신을 경배하며 다만 이것에만 봉사하라고 기록되어 있도다"라고 말한다. 이 대답도 역시 의연(毅然)하며 훌륭하다.

이러한 유혹과 예수의 대답이 자주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것은 인간의 약점과 종교적 생활의 의연한 태도가 거기에 신기한 명암(明暗)을 이루면서 뚜렷하게 표기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불교에 있어서는 악마와 같은 착상(着想)은 적합한 것이 되지 않는다. 만일 사악(邪惡)을 인격화한 것으로서의 악마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믿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망견(望見)의 소산(所産)으로서 불교가 배척하고 있는 점이다. 그럼에도 붓다는 자주 악마(mara) 혹은 악마파순(惡魔派旬, mapima)이란 낱말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것은 무엇을 가리키며 사용한 말이었을까.

어느 때 한 제자가 붓다를 향해서 질문한 일이 있었다. "대덕이시여, 악마를 악마라고 설명합니다만, 무엇을 악마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제자의 이름은 라타(나타)라고 하였다. 붓다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여, 이렇게 가르쳤다. "라타여, 색(色, 물상)은 마(魔)이다. 수(受, 감수)는 마이다. 상(想, 표상)은 마이다. 행(행(行, 의지)은 마이다. 식(識, 의식)은 마이다. 라타여, 이와 같이 관찰함으로서 유문(有聞)의 성제자(聖弟子)는 색(色)에 있어서 염리(厭離)하며 수(受)에 있어서 염리하며…"

그것은 요컨대 인간의 망견(妄見)과 망집(妄執)을 가리키면서 악마라고 하며, 인간의 약점에 의한 행동을 마(魔)라고 하며, 이런 것을 극복함으로서 정견(正見)이 이루어지며 이런 것을 염리(厭離)함으로써 해탈(解脫)은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 말하는 바는 평상시 붓다의 설명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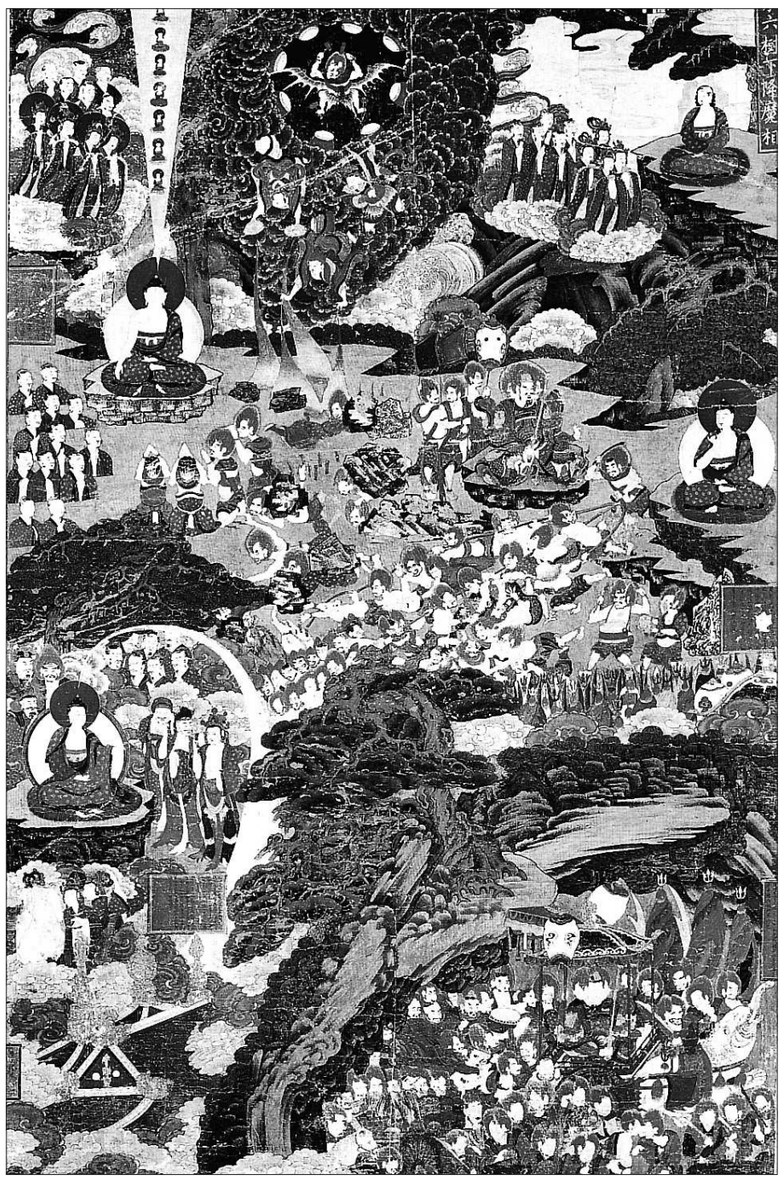
그러면 붓다는 왜 새삼스럽게 악마라는 말을 사용하였을까. 그것은 아마 실천적인 요구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는 결코 인격적인 존재로서 악마의 존재를 믿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극복되어야 할 망견, 망집, 해태(懈怠) 등의 인간적 약점은 매우 무서운 적(敵)이다.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것을 악마라고 부르며 스스로를 꾸짖는다. 그런 것이 그에게 있어서도 또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자주 필요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현대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을 함으로써 이제 〈악마상응〉의 여러 경전을 보면, 거기에도 또 붓다와 제자들의 인간적 약점과 그 종교적 생활인으로서의 의연한 태도가 대조적인 명암(明暗)을 이루면서, 뚜렷하게 떠오른다.

금욕을 칭찬하는 상정과의 싸움

〈악마상응〉의 첫 번째 경은 붓다가 대각(大覺)을 성취한 직후 아직도 보리수 밑에 혼자 앉아 정관(靜觀)하고 있을 때의 일을 말하고 있다. 그때 그는 오랫동안 행하였던 금욕고행(禁欲苦行)의 일들을 추억하고 있었다. 그는 겨우 그 금욕고행의 불합리함을 깨달을 수 있어 단호히 그것을 버리고 이 자리에 앉으면서 대각을 성취할 수 있었다. 만일 저 금욕의 불합리한 점에 눈뜨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고행을 계속하고 있었다면 도저히 자기는 이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혼자의 사유(思惟) 가운데에 악마의 속삭임이 들렸다.

고행(苦行)을 떠나지 말아야만
젊은 사람들은 청정(淸淨)하게 되느니라.
그대는 정도(淨道)를 방황하며 떠나서
청정하지 않으면서 청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도다.



팔상성도 중 여섯번째인 수하항마상.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룬 부처님을 마왕 파군이 방해하고자 했으나 부처님은 이를 굴복시키고 깨달음을 이뤘다. 마지막 유혹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유로워졌음을 의미한다.

이것에 대한 붓다의 대답도 역시 게문(偈文)으로써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모든 고행을 수행하여 오면서
그것은 합당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도다.
그것은 뭍에 올라온 배의 로타(艣)처럼
모두 이(利)로울 것이 없도다.
나는 계(戒)와 정(定)과 혜(慧)에 의하여
남김없이 이 보리의 길을 닦으며
이제 무상(無上)의 청정에 도달하였도다.
파괴자여, 그대는 패(敗)하였도다.

사람들은 붓다의 깨달음이 별로 어려움 없이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혹은 그 동안의 노고(勞苦)라고 한다면 엄격한 금욕고행의 세월이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칭찬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붓다의 생애에 있어서 최대의 위험은 도리어 그 금욕고행의 생활을 버리고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순간에 있었다.

그 시대는 고행예찬(禮讚)의 깊은 미망(迷妄)에 잠겨 있었다. 상식(常識)은 그의 엄숙한 금욕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 미망을 빠져나오며 그 상식을 초극(超克)하는 어려움은 보통의 일이 아니었다. 그가 금욕고행의 불합리함을 깨닫고 그것을 버리고 떠나려 할 때, 사람들은 그를 사치(奢侈)에 빠진 사람이라 하여 모두 입을 모아 비방하였다. 그는 그때 단 하나의 이성(理性)으로서 전 세계의 상정(常情)에 항거하면서 싸우지 않으면 안되었다.

능히 대각(大覺)을 성취한 후에도 그 싸움의 승리는 여전히 불안한 것이었다. 어쩌면 고행을 버린 것은 역시 잘못된 일이 아니었던가. 그러한 불안히 돌연히 그의 가슴 속을 스쳐가기도 하였다. 그 순간이 하나의 악마 이야기로서 그려져 있는 것이다.

다시 읽는 유석질의론

(함허 스님 저, 송재운 교수 역)

유석질의론 下권 해제

천하를 통함은 한 가지의 도이고, 변화를 교묘히 함은 한 기운이며, 만물을 고르게 함은 한 이치이다. 그러나 얕고 깊음이 같지 않으므로 성인의 가르침이 셋으로 처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진공(眞空)이라 말하니 성체(性體)를 들어서 말함이요, 노교(老敎)에서 곡신이라 말하니 변화를 밝혀서 말함이요, 유교(儒敎)에서는 대본이라 말하니 사물을 의지해서 말함이라.

지극히 커서 내가 없고, 지극히 깊어 작위함이 없고, 지극히 비어 시작이 없고, 지극히 신령하여 다함이 없다.

물(物)에는 본말이 있고, 일에는 종시(終始)가 있으며, 물에 이르러 앎의 극치에 이르면(格物致知) 현상적으로는 만가지가 드러나 근본 체성은 한 이치이므로 대본(大本)이라 말한다.

삼교(三敎)가 비록 다르나 도는 곧 하나이니, 비유하면 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 저 땅이 함양(含養)하는 것을 진공이라 말하고, 종자에 싹이 나는 것을 곡신이라 말하고, 가지와 잎이 뿌리인 것을 대본이라 말할 수 있는데 뿌리 · 줄기가 서로 의지하여 후토(後土)에서 배양되면 꽃과 열매가 번성하고 무성함이 있어 봄 · 가을에 흉년이 들지 않음과 같다.

앎의 극치에 이르면 근본은 한 이치
三敎가 다르나 道는 하나로 돌아간다

삼교가 서로 의지하여 교화가 천하에 이루면 자연의 음양이 어긋나지 않고 바람과 비가 적시에 순조로워 사람과 신이 기뻐하고 화기로우며, 백성의 풍속이 악하지 않아서 군신 · 상하가 그 분수를 잃지 않으며, 물고기와 사슴, 곤충까지도 각각 그 천성을 지킨다.

이와 같다면 치평(治平)의 세상이라 말할 수 있으므로, 어떤 사람이 불교 · 노교가 세상에 이익이 없다 말하는 것을 나는 믿지 않는다.

한 덩이 골육(骨肉)의 몸도 성천(性天)에서 근원하였으며, 오행(五行)을 바탕으로 아홉 구멍이 열리고, 육식(六識)을 갖춘 이후에 삼강오상 · 군신부자의 도를 알아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가 이로부터 점진하는 것인데 그 형질 · 심성을 잃고 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하고자 한다면 그 누가 얻겠는가.

유교로서 노교를 배척하는 자는 꽃만 감상하고 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함이요, 노교로서 불교를 배척하는 자는 나무를 기르면서 뿌리가 있음을 알지 못함이니, 지혜롭다 말할 수 있겠는가. 화엄대교(華嚴大敎)를 근본법륜(根本法輪)이라 말함은 진실로 뜻이 있는 것인데 방자한 뜻으로 훼방하고 배척하는 자는 나무로써 뿌리를 뽑음과 같으니, 비록 오랫동안 영화롭고자 한들 그것으로 얻을 수 있겠는가.

옛날 불교를 폐지했던 삼무(三武) 이후로 불교를 훼방하는 자가 대대로 한두 사람이 있긴했지만 발길을 돌리기 전에 재앙을 당했으니 어찌 증험이 없다 하겠는가. 세간의 죄없는 사람에게 멋대로 훼방을 가해도 오히려 형벌과 재앙을 부르는데, 더구나 까닭없이 경박하게 대성인을 훼방함이겠는가.

계는 대략 다섯이 있다. 첫째 산목숨을 죽이지 않음은 인(仁)의 단서를 여는 것, 둘째 도적질하지 않음은 의(義)의 단서를 여는 것이며, 셋째 음난하지 않음은 예(禮)의 단서를 여는 것이요, 넷째 허망한 말을 하지 않음은 신(信)의 단서를 여는 것이며, 다섯째 냄새나는 채소나 술을 마시지 않음은 지(知)의 단서를 여는 것이다.

오상(五常=仁義禮智信)이 인륜(人倫)의 대도(大道)라고만 말하고 단서를 열어 보여주지 않는다면 마치 궁실(宮室)은 아름답게 해놓고 문호(門戶)를 두지 않음과 같으니, 그 들어감이 또한 어렵지 않겠는가. 부처님이 오계(五戒)로 오상(五常)의 단서를 열어 보이심은 그 어리석고 몽매한 사람들이 다 깨달아 들어가 가까운 것으로부터 먼 것에 이르게 한 까닭이다.

대체로 한 기운이 이미 나누어진 뒤에 천지 사이에 가득한 것은 물(物)이다. 현상적으로는 만가지가 다르나 근본은 하나이니, 묘명진성(妙明眞性) 가운데서 함께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품류(品類)가 비록 다르나 본성은 하나이다.

유자(儒者)의 살생에 있어서 말하기를 "촘촘한 그물을 웅덩이나 연못에 넣지 않으면 물고기와 자라를 이루 다 먹을 수 없다"하며, 도적질에 있어서는 말하기를 "함부로 간직함이 도적질을 가르침이다"하며, 음난함에 있어서 말하기를 "덕(德) 좋아하기를 예쁜 여자 좋아하는 것처럼 하는 것을 아직 보지 못했다"했으니, 그렇다면 무엇을 금지함이 있겠는가. 이것은 얼음과 석탄처럼 반대된다. 〈끝〉

〈유석질의론〉 번역 저본은 동국대 역경원이 1984년 발행한 것(송재운 교수 역)을 발췌한 것이다.

지구촌 천지개벽과 각종 질병을 넘어 만법을 다스릴 수 있는 경신도법의 빛으로 이생에 명부를 지우고 천부에 명부를 올려 수명이 늘어나고 도인, 신선, 선녀 일류스승 되는 관심도법의 근본인 타심통 대법회

경신도법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최대이슈 원, 방, 각 해인도법의 잣대를 얻어 하늘땅 각종 종교에 감춰진 마음을 생명의 빛이 업에 쌓여 수행마장, 기도마장,병마장으로 말과 글, 염불, 목탁, 참선, 각종수행으로는 마음과 생명이 들어다니는 현관을 찾지 못하는 초우주에 감추어진 마음에 문을 귀신도 모르는 진법을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빛으로 이생에 명부를 지우고 천부에 명부를 올려 그 누구도 찾지 못하는 성품 즉 견성,성불을 모든 국가와 민족 남여 노소 학력 나이 관계없이 비구니 보살도 성불의 몸을 받을 수 있는 초능력 하늘에 도법을 부여받은 천룡진인 환생 태일대사 용천사 경신도법으로 각종질병과 지각변동으로 만법을 다스리는 법과 각종 질병과 병명없이 고통받고 현재 부리는 신도 자기대에서만 부리고 도인만이 병겁을 다스리는 인류스승으로 평생 직업 전법사, 포교사, 철학운명사, 건강관리사 자격을 얻어 포교원 선원을 개원하는 일류 스승되는 관심도법 타심통 대법회에 동참하시어 빛을 보는 도통군자 일류스승 되소서 이 도통은 천서없이는 허주에 빙의되는 것이다.



거부장자로 사는 달마구입처 : 태일
02)821-6622
010-3239-3110



환성 무상사 태일대종사

■ 입제일 : 2015년 6월 12일 금요일 해시 ■ 해제일 : 2015년 6월 13일 토요일 해시
■ 준비물 : 필기도구,세면도구,무박 2일 ■ 입제비 : 5만원 (농협 029-02-167866 곽한영)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204-4, 3층 **천지공사 유불선 십경신도통회 총본산**
사단법인 대한불교달마조계종 용천사 032)502-6625,6619 / 010-9292-3110

찾아오시는길 :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부평역하차 인천지하철 1호선 환승 부평시장역하차 1번 출구쪽 하이마트에서 시장쪽 횡단보도 건너 착한낙지 지나 사거리 아울렛DC 백화점 3층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설법전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 ~ 8:3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21~5/2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꽃잎이떨어져도꽃은지지않네	여백	법정,최인호
2	무비스님의발심수행장강의	(주)조계종출판사	무비스님
3	붓다가말하는인간관계의지혜	문예출판사	타가미타이슈/원영
4	불교기독교를논하다	모과나무	이제열
5	당신, 전생에서 읽어드립니다	김영사	박진여
6	숨만제대로쉬면무병장수문제없다	사유수	수신오도
7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효림	우룡큰스님,김현
8	꿈을깨면 내가부처	정토	서암스님
9	아미타경을 읽는 즐거움	민족사	동봉지음
10	행복한불교이야기(오대산정념스님이들려주는)	담앤북스	자현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남과 비교하는 시간만큼 자신에게 노력 쏟아라”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안부

지안 지음

조계종출판사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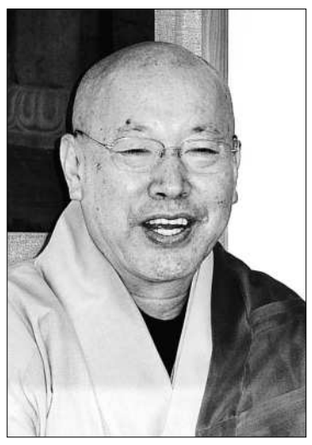
1만 6천원

저자 지안 스님〈사진〉이 주석하는 양산 통도사 반야암에는 스님을 친견하고 인생의 조언을 들으려는 이들로 붐빈다. 스님과 마주대하면 따듯한 미소에 근심 걱정이 바로 사라진다고들 입을 모은다. 스님은 절을 찾은이들에게 진심을 담아 안부를 묻고, 충고를 곁들여준다.

이 책 제목을 안부라 붙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거리감을 두고 건네는 안부라는 점이다. 저자는 세상과 타인 그리고 자신에게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세상을 바라본다. 그래서 바라는 것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결코 무언가를 탓하지 않는다. 내 자신에게 거리감을 두는 것은 마음수련을 행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일 것이다.

산에 사는 스님이 무얼 알겠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거리감을 두고 건네는 안부는 듣는 이로 하여금 스트레스 없이 쉽게 와 닿는다. 같은 말도 가족이 하면 견딜 수 없듯 멀찍이 한발 물러서서 산승이 건네는 충고는 결국 지혜의 말이자 본질을 꿰뚫고 있는 것이다. 〈산승이 마음으로 전하는 안부〉는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달린 것이다’ 라는 명제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가이드가 되어 줄 것이다. 좌절 · 패배의식 · 상실 · 절망 · 외로움 · 자기비하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데도 물론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진심이 담긴 평가나 충고를 들어 본 기억이 있는가? 아마 쉽지 않은 일이다. ‘진심’을 주고받는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렵다. 나 하나만 생각하기도 힘든 세상이라, 상대방에게 내 시간과 마음 그리고 노력을 쏟기란 쉽지 않다. 설령 그러고 싶더라도 과연 ‘나에게 남는 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앞선다. 비슷한 또래집단이나 가르침을 주고받는 관계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풍토는 사회일반에 보편화 돼 있다. 서글프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진심은 빠른 속도로 사라져가고, 소통이 소원한 인간관계만 남게 됐다. 결국 이런 상황들이 켜켜이 쌓여 모두들 부르짖게 된 것이다. ‘오직 나’ 만이 힘들다고, 외롭다고, 아프다고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자의 깨달음이 녹아 있는 법문과도 같은 주옥같은 조언들은 우리의 마음을 잔잔히 위로해 준다.



산승이 전하는 진심 담긴 안부 글로
“자신 객관화… 마음수행자의 특권”
이국적 사찰과 풍경 사진 80컷 수록

저자는 이 책에서 우선 “남는 것은 내 자신이다. 불완전함과 약점을 가진 나를 어떻게 다듬고, 품고, 사랑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관찰했는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남을 관찰하고 비교하는 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자신에게 쏟아라. 그러다 보면 보일 것이다. 지금 이 책을 읽는 독자의 마음공부를 응원한다.”라며 마음공부를 독려한다.

저자는 인연법에 대해서도 말한다. “사람이 맺은 인연은 어떤 계기를 통해 변화돼는 인연발전이 있다. 발전이란 더욱 좋아지고 향상되는 것을 말한다. 누구나 자기가 맺고 있는 인연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인연의 가능성을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말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또한 무심에 대한 저자의 생각에도 고개가 끄덕여 진다. “언제나 옳고 그른 판단을 해야 해서 신경이 예민하지 않은가. 사사로운 일에 시비를 염두하여 생각이 많지 않은가. 그대들을 위해 꼭 추천하고 싶다. 침묵의 여백을 즐겨라. 생각의 쉼표를 찍어라. 불만과 허탈감을 직시하고, 흘러가게 마음의 강줄기를 만들어라. 이게 바로 무심의 첫걸음이다.”

저자의 감로법문 못지않게 함께 실린 사진도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적지 않은 시간을 타국서 보낸 조완 작가는 평범한 주변을 이용해 심신을 회복시키는 사진을 찍어 왔다. 이 책에도 타국의 풍경들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 서로 숨 쉬고 있는 삶의 현장들이 사진으로 담겨져 있다. 이 것들은 정적이고 고요한 울림을 선물하며,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는 데 요긴하고, 따스하고, 정겹다. 산승의 현답과 감정의 깊이가 충만한 사진들은 서로를 보완하고 협력하며 우리들 마음을 잔잔하게 적셔준다. 가뭄 끝에 오는 단비처럼.

저자 지안 스님은?
1970년 통도사서 벽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통도사 강원 강주를 비롯,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고시위원 및 역경위원장, 조계종종립 승가대학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40여 년간 교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저서와 역서로는 〈처음처럼〉 〈조계종 표준 금강경 바로 읽기〉 〈마음속 부처 찾기〉 〈경전으로 시작하는 불교〉 〈대승기신론 신강〉 등이 있다.

“마음 실체 깨닫고 그에 맞춰 세상 보라”

행복찾는 시간

혜원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 5천원



누구나 행복을 바라고 행복을 향해 달려가지만, 정작 행복한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다. 왜 그럴까? 잡을 수 없는, 신기루 같은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렇다면 육체적, 정신적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해지는 방법은 무엇인가? 마음의 실체를 깨닫고, 그 실체에 맞춰 세상살이를 바라보면 된다고 한다. 따라서 1부는 마음의 실체를 깨닫기 위한 가르침을 담고 있으며, 2부는 현실 속에서 다양하게 부딪치는 문제들에의 적용을 다루고 있다. 1부 “생각 닦기”는 〈신심명〉을 모티브로 하여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장이다. 〈신심명〉은 선의 종지, 불법의 핵심을 담고 있는 책으로 3조 승찬대사의 저서이다. 짧은 문구에 깊은 의미를 담은 함축적인 게송으로 구성된 〈신심명〉을 저자 특유의 시각으로 누구나 알기 쉽게 풀어내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현실적인 의미, 교훈적인 메시지를 간결하면서도 쉬운 언어로 풀어내, 하나하나의 꼭지가 서론-본론-결론 격의 완결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해 저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온갖 망상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행복의 세계로 이끌어가고 있다.

2부 “생각 다스리기”는 우리 주변의 보통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부닥치는 여러 고민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인터넷 상의 상담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학생이나 주부로서의 고민, 가정문제나 꿈에서 오는 고민, 우울증이나 화병 등에 대한 고민……

살면서 부딪치는 다양한 형태의 고민들과,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 고민 해결의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해 준다.

저자의 가장 큰 관심사는 중생들의 행복이다. 중생들이 정신적, 육체적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돕는 것을 수행자의 본분으로 생각한다. 이 책은 그런 발원의 결과물이자 출발점이다. 즉 지금까지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며 행해왔던 가르침과 실천의 결과물인 동시에, 여기서 더 나아가 일반독자들과 접촉하는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이 책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하나의 방편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주일 기자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사는 길은?

스님의 일기장

현진 지음 | 담앤북스 펴냄 | 1만 4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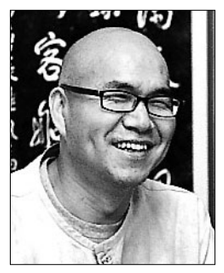
스테디셀러를 다수 펴낸 현진 스님〈사진〉에겐 올해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출가한지는 30 년, 글쓰기 인생으로는 20년을 맞았다. 이 책은 스님이 자신의 수행과 글쓰기 인생을 정리하며 펴낸 산문집이다. 제목서도 알 수 있듯이 책에는 스님이 일기서 뽑아 처음 공개한 것도 있고, 그간 발표한 글들 중 “먼지 속에 놓아두기엔 아쉬운 내용”을 짧은 문장으로 다듬은 것도 있다.

책에 실린 143편 글에는 저자가 수행과 일상서 발견한 ‘깨달음’ 의 순간을 비롯해 사랑 · 돈 · 종교 등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통찰이 깊이있게 담겨 있다. 또한 불교경전과 선사들의 말씀, 동서양의 경구서 길어 올린 지혜가 가득하다.

스님이 글쓰기와 인연을 맺은 건 해인사 학인 시절. 월간 〈해인〉 필진으로 참여하면서부터다. 〈해인〉은 현진 스님을 비롯해 성전 스님, 원철 스님 등 불교계에서 내로라하는 문사들을 배출한 사보(寺報)로 유명하다. 1982년 해인사 강원의 학승들이 대중 포교를 위해 창간한 이 잡지는 스님들과 세상 사람들을 잇는 가교이자 불법을 전하는 창구로, 지금도 불교신자는 물론 일반인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현진 스님은 1990년대 초반부터 〈해인〉을 비롯해 일간지 등 여러 매체에 사유의 수상(隨想)이 행간마다 배어 있는 글들을 주로 써 왔다. 누구나 쉽게 글을 쓰고 발표하는 시대, 스님은 자신의 글에 대해 “출가 여정의 흔적과 기록이라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지나친 겸손이다.

청주 관음사 주지 시절에는 ‘트로트 산사음악회’ 를 열어 신도는 물론 불교에 관심이 적던 지역 주민까지 절 마당으로 끌어들였다. 또한 어린이 불교대학과 대학생 불자 모임을 운영하는 등 젊은이들이 불법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했다. 8년간 관음사를 청주 지역의 대표 문화 사찰로 일군 현진 스님은 3년 전 청원 성모산 자락의 작은 사찰 ‘마야사’ 를 창건했다. 지난해에는 마야사서 반농반선(半農半禪)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책 〈산 아래 작은 암자에는 작은 스님이 산다〉를 펴냈다. 스님이 ‘단순하고 소소하게 하지만 간절하게’ 살아가는 일상은 담은 이 책은 ‘2014년 세종도서 문학나눔(구 문광부 우수도서)’ 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현진 스님의 글은 쉽다. 술술 읽혀진다. 문체 역시 간결하다. ‘좋은 문장’ 에 대한 스님의 남다른 소신에서 비롯한 것이다. 책의 머리말서 밝혔듯이, 현진 스님이 지난 20년간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 역시 쉽고 단순하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라’ 는 것이다.

월간 〈해인〉으로 글쓰기와 처음 인연
다양한 글과 문화로 대중과 소통

이를 전달하기 위해 스님은 날마다 자신이 보고, 읽고, 느끼고, 사유하는 모든 것을 글감으로 활용했다. 스님이 글감을 일구는 밭, 아니 발견하는 밭은 크게 세 개다. 첫 번째 밭은 스님의 일상과 수행 생활. 선방에서 하는 치열한 수행뿐만 아니라 도반과의 즐거운 추억, 절을 찾은 신도와의 대화, 심지어 손빨래 같은 사소한 일상도 글의 소재로 활용한다.

두 번째 밭은 스님이 읽은 불교경전과 선사들의 말씀, 세계의 고전 그리고 동서양의 경구들이다. 마지막 밭은 자연이다. 3년 전부터 산 아래 작은 암자에서 생활하는 스님은 “한여름 마당의 풀과 씨름하는 것이 수행”이라며 그 앞에 서면 한없이 작고 겸손해지는 꽃과 나무 그리고 계절에 대해 이야기한다. 스님에게는 매화와 느티나무 그리고 안개마저도 삶과 수행을 반추하게 해 주는 좋은 소재들이다.

김주일 기자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고려 · 조선시대 불복장 유물 한자리에

국립중앙博, 8월 2일까지 '발원…' 특별전

공덕을 쌓으며 부처님에게 소원을 비는 '발원(發願)'에는 신분고하의 차별이 없었다. 크고 작은 불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찬란한 불교미술을 잉태했고 그 공덕으로 현재의 아름다운 불교미술 작품이 남겨졌다.

불교미술을 후원한 옛사람들의 삶과 염원을 살펴보는 특별전 '발원, 간절한 바람을 담다'가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특별전시실에서 8월 2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불교미술 작품과 함께 전해지는 '발원문'에 주목한다. 불복장물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진행하는 소장 불교조각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연구 사업의 최신 성과로 '금동아미타삼존불', '목조관음보살좌상' 등 불상 속에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복장물과 명문 기록들이 보존처리를 거쳐 일반에 처음 공개된다.

총 126건 431점의 작품이 공개되는 전시에는 34건 134점이 국보와 보물이고, 시도 유형문화재가 3건 3점이다. 사리구와 불상의 명문(銘文), 경전의 간기(刊記), 사경에 기록된 사성기(寫成記), 불화의 화기를 비롯해 범종 · 쇠북 · 향완의 명문 등 다양한 형식의 발원문을 통해 불교미술품 제작에 얽힌 사람들의 삶의 희로애락과 신심(信心)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법당 안에 불상과 불화를 봉안하고, 법회를 열어 부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불사에는 주로 왕실이나 권력 있는 신료 같은 당대의 권력자, 재산가의 후원이 있었다. 이번에 전시된 '황복사지 삼층석탑 사리구' 중 하나인 '금제 불입상'(국보 80호)의 복장품에는 신라 신목태후가 어린 왕에 대한 우려와 기원을 담아 시주한 발원문이 남아있다.

반면 고려시대인 1333년 조성된 금동아미타삼존불상은 몸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발원문을 품고 있었다. 눈에 띄는 것은 '길덕' '만덕' '금이' 등 성씨가


'길덕' '만덕' '금이' 등 평민들의 시주자 이름이 대거 등장한 고려 아미타삼존불

복장물 등 431점 일반 최초 공개

당시 민초들의 성보 제작 동기 엿보여

없는 평민들의 시주자 이름이다. 복장물(불상을 조성하면서 배 안에 넣는 여러 가지 유물) 중 다라니 판본에 예문관 대제학을 지낸 김진의 이름도 등장한다. 고위 관료부터 평민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아미타삼존불을 조성한 사실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1346년의 문수사 아미타불좌상 복장물에도 비슷한 사례가 보인다. 13세기에 들어 경제가 활성화되며 평민계층에서도 많은 불사에 동참함을 짐작케 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이외에도 사찰이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재의 복장물도 일반에 공개된다.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


신라 신목태후가 시주한 황복사지 사리구

는 성보가 7건 77점에 달한다. 수덕사가 소장하고 있는 '문수사 아미타불 복장물'(보물 1572호)의 복식과 아름다운 직물은 고려 시대 수준 높은 직물 문화를 보여주며, 파계사 원통전의 관음보살상 복장물인 '영조대왕 도포와 발원문'(중요민속문화재 220호)은 임금이 입던 도포가 간절한 염원을 간직한 채 복장물로 납입된 신심어린 이야기를 전해준다.

특히 이번 전시는 왕공귀족, 관료, 향리(鄕吏), 향도(香徒), 백성, 여성 등 불사를 후원했던 각계각층으로 나눠 전시를 구성했다. 시대에 따라 어떤 계층이 어떤 분야를 후원했는지 살펴볼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국가가 후원한 사리구에서 백성의 소박한 바람이 담긴 작은 불화에 이르기까지 당시 불교미술에는 신앙과 염원이 깃들어 있다"며 "특별전을 통해 우리 삶을 지탱해 온 종교적 정서에 눈을 돌리는 여유를 가져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깨달음에 이르는 고행 과정 영상으로

애니메이션 영화 '붓다-위대한 여정'

"당신께서는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인간도 아니다. 오 브라만이여, 나는 붓다이다. 그러니 브라만아, 나는 세상에 태어나고, 세상에서 자랐지만, 세상을 극복한 뒤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는다. 나를 붓다로 알라."

브라만 도나와 부처님이 주고받은 대화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에 의해 변화된 존재이다. 인간으로 자랐지만 깨달음에 의해 변화된 자이며 잠에서 깬 자인 붓다인 것이다. 한 나라의 왕자에서 삶의 깨달음을 얻은 붓다가 되기까지 번민과 고행의 과정을 그려낸 영화 '붓다-위대한 여정'이 개봉됐다.

일본에서 '만화의 신'으로 불리는 테즈카 오사무의 걸작 '붓다'를 영화화한 애니메이션 두번째 이야기로 영화는 젊은 날의 붓다는 무엇을 꿈꾸고, 갈등하고 그리고 무엇을 찾으려 했을까에 초점을 맞추었다.

2,500년 전 인도, 코살라국과 마가다국은 갠지스강의 지배권을 놓고 전쟁 중이었고, 히말라야 기슭의 조그만 왕국인 샤카국 역시 코살라국의 계속된 공격을 받는다. 전쟁에 말려든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샤카국을 구원할 후계자의 탄생을 갈망했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라도 하듯 새로운 왕위를 이을 왕자가 태어난다. 지상의 모든 생명체로부터 축복 받으며 태어나, '세상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은 그의 이름은 싯다르타.

사람들의 고통과 죽음에 대해 번민하는 청년으로 성장한 싯다르타는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자신의 신분을 버리고 자신을 번민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멀고 먼 여행을 떠난다.

영화는 싯다르타가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인간이 가진 근원적 고통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고행을 떠나는 과정을 담아냈다. 싯다르타가 겪는 내면의 갈등과 정신적인 성장을 통해 감동적인 메시지를 선사하는 '붓다-위대한 여정'은 이미 개봉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세계 최초로 프리미어 상영을 가지며 언론과 관객들의 높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이번 영화에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개봉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 주목된다.

"영화를 만들어준 제작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사랑과 자비를 바탕으로 한 붓다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혜'와 '깨달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붓다-위대한 여정'은 단순히 붓다의 생애를 그린 것에 멈추지 않고 그의 가르침과 철학에 대해 전달하고 있다. 그러한 메시지를 통해 세계 평화에 일조할 것"이라며 영화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도 전달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붓다, 위대한 여정'은 싯다르타의 깨달음의 여정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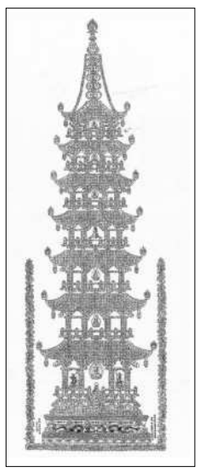
아버지에게 바치는 금강경 7층 보탑도

박경빈 사경전 미술세계 갤러리

"오롯이 붓 끝에 한 마음 모아 오직 부처님 깨달음을 본받고자 수행일념으로 묵선(墨禪)의 세계에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경을 하면서 쌓아온 공덕이 작게나마 있다면 지금까지 맺은 모든 인연들에게 회향합니다."

매현 박경빈의 사경전이 6월 3일~9일 갤러리 미술세계에서 열린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불' '문수보살 · 문수보살' '반야바라밀다심경' 등을 백지묵서로 작업해 대중들을 찾아간다.

특히, '금강반야바라밀다 보탑도'는 7층보탑 내부에 금강경 내용을 49×133㎝ 백지에 묵서로 담았다. 망자를 염할 때 덮어주어 함께 묻거나 태웠다고도 하는 보탑도는 집착의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작가는 연로한 아버지를 떠올리며 작업에 임했다고 한다. "내 기억 속에 그동안 살아오신 아버지의 여정을 떠올리며 정성을 담아 한 탑 한 탑 보석처럼 글자를 쌓아 올렸다. 가시는 날 이 이불


금강경 보탑도

덮으시고 부디 편안한 길 되시라고 매일 매일 두 손을 모으며 작품을 완성해 나갔다"

이렇게 금강경 작업을 완성한 작가는 묘법연화경을 세로 2m에 이르는 보탑으로 완성해 내는 힘을 얻게 되었다고. 이에 대해 "내게 맡겨진 운명이라 생각하고 연초에 3천배 기도를 하고 정월 대보름에는 삼사 성지 순례를 돌며 7만여 법화경 글자를 보탑도 안에 완성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박경빈 작가는 성균관대 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예부문 우수상, 대한민국 서예 휘호대회 우수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정혜숙 기자

"지눌 사상 전승, 강학체계로 살펴야"

손성필 고전번역원 연구원, 보조사상연구원 세미나서 주장

"고려중기 이래 주요 사상 전통인 지눌의 사상은 16세기 초 지엄에 의해 강학체계로 수용됐고, 강학체계에 따라 법통과 별개로 수용돼 현재에 이르렀다."

손성필 한국고전번역원 연구원은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이 5월 23일 서울 법련사서 개최한 제112차 월례학술대회에서 '조선중기 지눌사상의 전승양상' 발표를 통해 지눌 스님의 사상이 법통이 아닌 강학체계를 통해 전승돼 왔다고 주장했다.

손 연구원은 이날 "지눌 스님의 사상은 조선 불교 역사에서 비중있게 여겨지지 않은 듯하지만 이는 연구부진과 평가 절하에 따른 것"이라며 "조선불교사 인식에 따르면 사상사적 입지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임제법통 중심의 이해에서는 지눌 사상은 전승되지 않았다 시피한다"고 말했다.

손 연구원은 이어 "지눌 사상의 전승은 인적 관계가 아닌 인물간의 영향관계나 서적을 통해 후대에 간행, 강독되는 방식으로 전승됐다"며 "이를 연구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연구원은 "조선후기 강학체계에는 지눌 스님의 '계초심학인문', 제자 혜심의 저술인 '선문염송집' 등이 포함됐을 뿐 아니라 그 과정이 지눌 스님의 사상적 영향 때문"이라며 "이는 계보에 국한되지 않은 사상임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손 연구원은 지눌 스님의 전승을 강학체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손 연구원은 "강학체계를 지향한 스님은 지엄, 영관, 휴정과 선수 등으로 이어지는데 특히 휴정과 선수 문도에 의해 이력과정으로 확립됐다"고 밝혔다.

손 연구원은 끝으로 "법통 중심의 사상 전승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지눌 스님 뿐만 아닌 종조 법맥 분석 등에도 적용되는 부분"이라며 "강학체계로의 전승과정을 향후 법통 분석에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국악소녀 아닌 뮤지션으로 거듭났어요"

불자 국악인 송소희 첫 앨범 'New song' 발매

국악소녀 송소희가 첫 앨범 'New song'을 내놓았다. 국악소녀 송소희가 아닌 뮤지션 송소희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이번 앨범에서는 국악적인 발성에서 나오는 시원시원하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감정적이고 드라마틱한 편곡이 만나,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국악과 함께 선보인다.

특히, '지금처럼만'은 송소희가 작사에 참여한 곡으로 아버지의 쓸쓸한 마음을 아쟁으로 표현 인트로부터, 뭉클한 느낌을 자아낸다. 전체적으로는 락발라드의 사운드를 만들고, 기타와 아쟁, 스트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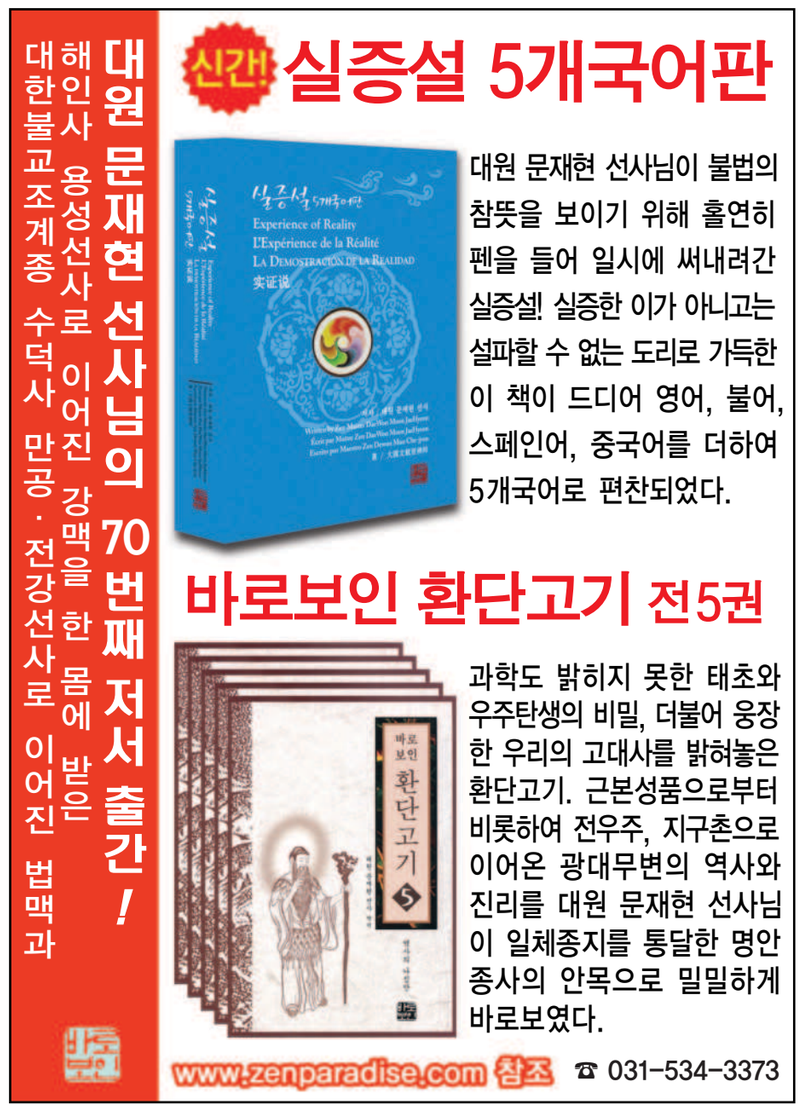


어우러져 새로운 사운드를 만들어 냈다.

이번 앨범에는 베이시스트이자 작곡가인 이형성이 전곡을 프로듀싱했고, 드럼 베이스 기타 피아노 등 실용음악 악기들을 기반으로 펑키, 발라드, 블루스, 락 등의 장르에 소금, 해금, 대금, 아쟁, 가야금, 장고, 꽹과리 등의 국악기들을 믹스해 새로운 사운드를 만들어 냈다. 정혜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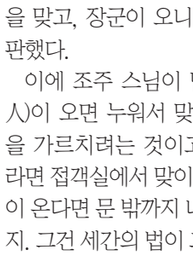




禪味 응축된 시구… 마음공부의 단계 보여

불교로 읽는 古典

소동파의 詩選



박만규
동덕여대 중문과 교수

불교 선종의 1700공안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화두는 '뜰앞의 잣나무(庭前柏樹)'가 아닐까 싶다. 이 화두의 주인공은 조주종심(趙州從諗)스님이다.

어느날 조주(趙州 · 지금의 하북성 조현)의 조왕(趙王)이 조주 스님을 찾아 불법을 배우고자 방문한다. 스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누운채로 당대의 최고 권력자에게 한다는 말이 "중노릇 하느라 풀만 먹었더니 영양상태가 안 좋아요. 게다가 늙기까지 해서 일어나 영접하질 못하니 면목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조왕은 이를 듣고 화내지 않고 선사의 법력에 존경의 예를 올리고 돌아가서는 장군한 사람을 시켜 으리으리한 금은보화를 싣고 가서 스님께 공양하게 한다.

장군이 사찰에 온다는 말을 들은 조주 스님은 절 문 앞에까지 나가서 예를 다해 장군을 영접하고 공양물을 받는다. 이를 본 문하 제자들이 제왕이 왔을 때는 누워 손님을 맞고, 장군이 오니 영접하는 스승을 비판했다.

이에 조주 스님이 답하길 "상등인(上等人)이 오면 누워서 맞는데, 그건 본래면목을 가르치려는 것이고, 중등인(中等人)이라면 접객실에서 맞이하고, 하등인(下等人)이 온다면 문 밖까지 나가 극진하게 모셔오지. 그건 세간의 법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얼른 봐서는 차별이 있는 듯한 스님의 처신이지만, 이는 어느 누구나 갖고 있는 자성을 깨우쳐주려는 수승(殊勝)한 가르침이다. 불성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평등공법이니까.

소동파(蘇東坡, 1036~1101)를 이야기하면서 조주 스님의 일화를 먼저 소개하는 것은 그가 유학을 바탕으로 불가와 도가의 철학을 섭수하고 있기 때문이며 함께 소개할 그의 일화와도 연계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 적지 않은 사람들은 "유가사상은 소동파로 하여금 끝까지 관직을 지키며 지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도가사상과 불가사상은 곤경에 처할 때마다 쓰러지지 않도록 그를 붙잡아주는 버팀목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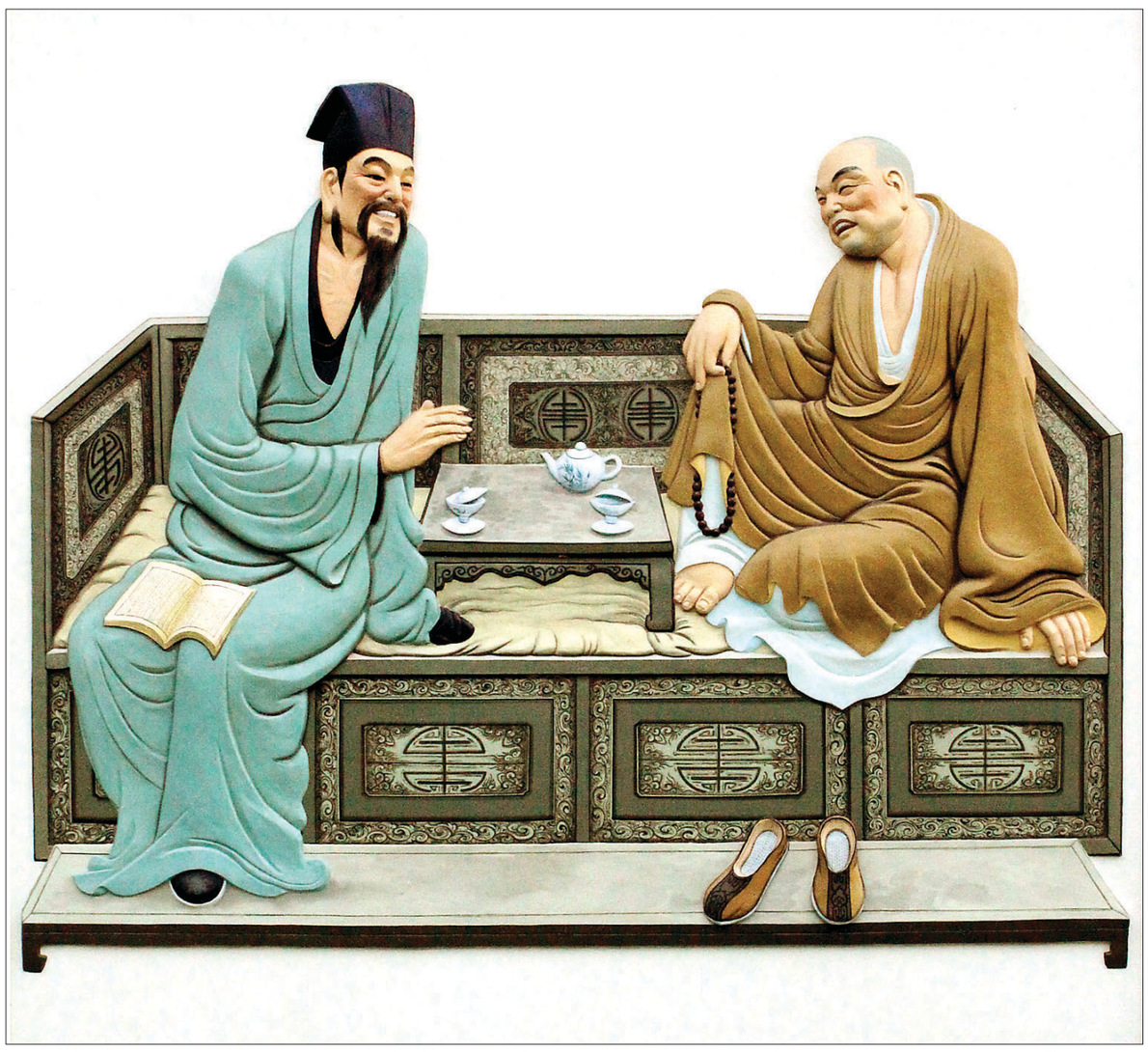
항주(杭州)에서도 이름난 금산사(金山寺)의 불인(佛印)선사를 찾아가 여러 차례 불연(佛緣)을 맺은 바 있는 소동파는, 정통 유학자로서 불교에 대한 우월감으로 법거량을 시도한다. 먼저 편지를 보내 어느 날 아무 때에 금산사를 방문할 터인즉 옛날 조주스님이 조왕을 대접했을 때처럼 해달라고 요청한다.

소동파가 금산사에 도착하니, 불인 스님은 산문 밖에서 조아리고 있다. 이에 그는 큰 소리로 웃으며 말한다. "스님의 공부는 도저히 조주스님의 법력에 미치지 못하오. 나오지 말라고 말해 뒀는데도 이렇게까지 멀리 나와 있으니 권력이 무섭긴 한가 보오. 스님이 닦은 선정지혜(禪定智慧)도 별것 아니오."

평생을 쏟아 부은 유학에 큰 자부심과 우월감을 가진 사람이 선사의 법력을 별 것 아니라고 자기 식견으로 확인했을 땐 꽤나 뿌듯했을 것 아닌가. 이에 조용히 읊조리는 스님의 게송 한 수는 이렇다.

"그 때 조주가 머리를 덜 숙였지, 문 밖에 나와 조왕을 맞지 않았거던. 어찌 금산사의 무량무변한 법상(法相)을 알겠는가, 이 몸에겐 삼천대천세계가 이부자리인데!(當日趙州少謙光, 不出山門迎趙王. 爭似金山無量相, 大千世界一禪床.)"

불교의 禪에 심취한 소동파
당대 선사들과의 교류 통해
마음공부 시로 감동적 표현
문학세계 더욱 웅숭 깊어져



대만 불광산사의 벽화. 소동파와 불인 스님과의 인연담을 그렸다. 앉은 모습이 서로 어떻냐고 묻자 선사는 소동파를 부처로, 소동파는 선사를 소의 똥 같다고 말했다. 이후 소동파의 누이가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분뇨의 눈에는 분뇨가 담긴다"고 소동파를 비판했다.

또 하루는 불인 스님이 설법을 하려 하자 소동파가 시간에 맞춰 찾았다. 하지만 자리가 없었다. 불인 스님은 소동파에게 "자리가 꽉 차서 나으리 앉을 곳이 없습니다"고 말하자, 소동파는 곧 "앉을 곳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스님의 사대오온(四大五蘊)을 깔고 앉을 수 밖에 없군요"라고 쏘아붙였다.

스님이 듣기에 소동파가 선문답으로 나름으로의 선기(禪機)를 보이므로, "나으리, 내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답을 맞추면 내 몸뚱이를 깔고 앉도록 드리고 답을 맞추지 못하면 황제가 내린 그 옥대(玉帶)를 풀어 놓고 가시오." 소동파가 알겠다고 승낙하자 스님은 서릿발 같은 일갈을 내놓는다. "사대(四大)는 본래 공(空)하고, 오온(五蘊)은 없는 것인대, 나으리 앉을 곳이 도대체 어디란 말이오?"

천하의 기재(奇才)인 소동파라 하더라도 깨달음에 이르러야 알아들을 수 있는 화두를 앞에 두고는 그냥 말문이 막혀 버린다. 그 때 벗어둔 옥대가 1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금산 강천사 유옥루(留玉樓)에 류옥석(留玉石)이라는 보물로 내려오고 있다. 이후 소동파는 이때 충격을 이렇게 시로 썼다.

百千燈作一燈光
온 세상 이치 한 등불로 비추니
盡是恒沙妙法王
모든 알음알이 부처님 손 안에 있소.
是故東坡不敢惜
이 가르침 받았으니 아까와 하지 않으려오
借君四大作禪牀
스님 육신 빌어 앉을 자리 삼으려 했으니
病骨難堪玉帶圍
병든 몸에는 무겁기만 한 정승 옥대 더 매곤 못 다니겠소.
鈍根仍落箭鋒機
둔한 머리 날카로운 화두에 그만 찔리고 말았소.

송나라의 제일 가는 학자의 항복을 받은 불인 스님 역시 유학자 소동파의 세간법도로 화답한다.

石霜奪取裘休笏
석상스님이 정승의 홀(笏)을 빼앗은 것이
三百年來衆口誇
삼백 년 동안이나 인구에 회자되고 있소
爭似蘇公留玉帶
소공이 옥대를 놓고 온 것과 똑 같구려
長和明月共無瑕
영원히 저 밝은 달같이 빛날 일이오.

또 어느 하루는 소동파는 금산사에서 스님과 좌선을 했다. 입정(入定)한 뒤 곧 온 몸이 날아갈 듯 기쁨을 느끼게 된 그가 불인 스님에게 이렇게 자랑한다. "스님, 제가 참선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장엄하기가 불상 같으오." 동파 선생이 몹시 흡족해 한다. 곧이어 스님이 되묻는다. "내 앉은 모습은 어떠하오?" 이 때다 싶은 동파 선생, "싸놓은 똥 한 덩어리 같습디다." 스님도 빙그레 웃는다.

스님을 똥 덩어리라고 욕하고 나니 마침내 통쾌하게 설욕했다는 마음에 만나는 사람마다 "내 늘 스님께 졌었는데, 이번엔 내가 이겼소!"하고 자랑 삼아 얘기한다. 이 말이 드디어 누이동생 소소매(蘇小妹) 귀에까지 들어간다. "오빠가 어떻게 해서 스님을 이겼다고요?" 신이 나서 자기의 무용담을 자랑하는 오빠에게, "오빠가 졌어, 아주 참 혹하게 졌네! 불인 스님이 공부가 부처를 이미 이루었기에 오빠를 보고 불상 같다고 했는데, 오빠 마음공부는 소 똥 같으니까 똥 덩어리 같이 보이는 것 아니오?"

보는 것만큼 보는 것이고, 아는 것만큼 알아지는 것이다. 알고 보고 생각하며 행하는 것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제 눈으로 보고 제 맘대로 여기는 만큼 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네 범부중생의 세간살이다.

머리로 알고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은 지식과 총기(聰氣)의 쓰임(用)이다. 더 깊은 바닥에는 우리의 본래면목인 불성(佛性[能])이 있다. 너도 나도, 배웠던 못 배웠던, 유생무생(有生無生)의 그 깊디 깊은 내면에는 두두물물, 삼천대천세계의 뿌리인 한마음 주인공이 있다. 일체의 일체가 거기에서 나고 거기로 든다.

이른바 만법귀일 일귀하처(萬法歸一 一歸何處)의 본래소식이다. 이 소식을 참구하는데 온 몸을 던진 수행납자들은 일생을 건다. 이렇게 해서 눈 뜬 세계라 해도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일 따름이다. 그러나 그 세상은 이젠 말과 글이 끊어진 자리이다. 그냥 말로서 일컫는 개오의 경지일 따름이다. 둘이 아닌 하나, 한마음(不二法門)의 무문관이다. 안다 모른다가 일어나기 이전의 우리의 본래 고향이다.

소동파는 이 오묘한 선미(禪味)에 크게 느낀 바 있어, 그 뒤로의 작품에서는 아주 격이 다른 글을 쓴다. 소동파의 시집 〈소식전집(蘇軾全集)〉에는 마음공부의 단계가 잘 담겨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마지막 공부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 한 수를 살펴보자.

溪聲盡是廣長舌
우렁찬 계곡물 소리 모두 부처님 설법이오.
山色無非淸淨身
눈에 보이는 모습 여래청정신이라네.
夜來八萬四千偈
밤새 중생 일깨우는 팔만대장경 법문을
他日如何擧似人
훗날 누가 있어 중생들에게 알려 주리오.

콸콸 솟아 내리는 거센 개울물 소리는 부처님 옥음(玉音)일세. 부처님 32호상 가운데 27상이 '혀가 크고 길뿐 아니라 부드럽고 가느다란(舌廣而長,柔然細薄)' 좋은 발성조건을 가졌기에 그때나 지금에나 앞으로도 영원히 이 궁극의 불법(佛法)을 우리에게 길이 설하신다. 이 우주법계 온갖 것이 부처여래청정법신(淸淨法身)의 나툼인 줄 알겠고, 중생 잠든 깊은 밤에도 저리도 대자대비한 법음을 끝없이 설하고 계심을 내 이제 알겠는데, 이 말로 할 수 없는 구경경지(究竟境地)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려 줄 수 있을까.

위대한 지성의 소유자였기에 뛰어난 깨달음을 필요로 하는 불교적 깨우침에 소동파는 남보다 더 쉽게 다가 갈 수 있었을 것이다. 죽음을 묻는 제자에게 "사람 사는 세상도 모르면서 죽음을 알려하느냐"고 호되게 꾸짖는 공자의 학문을 정통으로 이어 받은 소동파가, 무위이위(無爲而爲)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크게 죽는(大死一番) 마음공부에 맛을 들임으로써 그의 경지는 범이 날개를 다는 형국의 대비약을 한다.

선가에 내려오는 말 아닌 말이 있다. 생로병사를 무찌르는 죽지 않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넌 반드시 크게 한 번 죽지 않으면 안된다.(欲得人不死, 須得死個人)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약사선원
010-2766-7677
북한산 국립공원 올래길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6-1 북한산성상가 A동 203호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 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란?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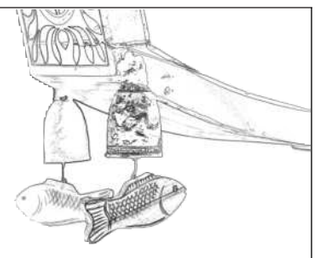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 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성실과 자제와 인내와 베풂, 이 네 가지 덕이 있으면 그는 저 세상에 가서도 걱정이 없을 것이다.

- 숫타니파타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범 음 범 패 대 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842-1070
010-9944-1075

인 연 명 리
◆ 매화연수(4주완성)
일년 신수 한눈에 보는 법
◆ 영가 찾고, 보는 법 (4주완성)
천도재,49재,조상인연기도(영가장애)
스님,법사님,포교원운영자,
관심있는분
6월,7월 2달간 2과목 완성(매주 화)
명리기초 / 통변반 수시모집, 강의 중
자운스님 010-4047-0134
(서울 삼성동)



명리첩경의 저자 - 혜공
혜공철학원
지리산 청학동에서
명리공부와 수련 하실분
010-4482-4684
010-3054-3345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도반인연 공고
강원도 평창 발심사
전법도반 사부대중
수행하며 살아갈
대중 모집합니다
010-9393-4965 중덕
033-334-0729 발심사

침술, 뜸, 부항,
한약,역학 (명리)
카이로프랙틱(척추교정요법)전
문학원. 외국한의사,
침구사 자격시험대비반.
수강생 수시모집
www.macsj.kr
네이버 검색 「맥승정」 클릭
010-8862-1908

벽조목 진품
(벼락맞은 대추나무)
신지기기(神知奇知) 신비의 명물
벽조목으로 제액처방
비법전수,부귀공명,입신출세,빙의,간질,매매
*직접오셔서 진품을 구경하시고 주문하세요. 벼
락맞은 대추나무 진품을 치시면 구경가능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2길 136 지장선원
054-383-8553 / 010-8585-4908
cafe.daum.net/JJUJUbe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포항)
054-286-118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
010-7311-5335

기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김해)
010-6671-5885

기도하며 일 도우실
부전스님,
행자스님
모십니다
011-288-8311

함께 생활하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2515-066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천년고찰)
010-8559-9400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남 공주, 계룡산)
042-825-1724

여름에 시원하고 깨끗하고
조용한 산내암자,
기도하며 공양주할 불심
있는 **불자 공양주** 구함
(경북 예천 내원암)
054-653-1180
010-6353-1180

원하는 대로 이루는 기도
• 아주 특수하고 묘한 기도법을 원하는스님께 확실하게 전수 합니다
• 인천행 지하철 부천북부역 소명 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천 기 누 설
누구나, 최면술과
사주를 바꾸는 비법을 1대 1
특별 전수합니다
성봉사 회주 현오 합장 010-5656-3915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강의!
- 화, 금요일 오전반, 목요일 저녁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희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사단법인 종단 인수하실 분
종단명 : 사단법인 0000조계종
복지사업 병행가능함. (필요시 종단명칭 변경가능)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문의전화 : 070-7717-2276 (영의스님)

기문둔갑 강의안내
기문둔갑은 1세부터 90세까지의 운명을 알 수 있다.
본인 기문을 보면 부모, 형제, 부부, 자식 등의 운명을 알 수 있다. 본인 운명에 공직자,사업자,직장자가 정해져 있다. 공직 생활할 운명이 사업을 하면 실패하며, 사업자가 왜 실패를 하는가. 왜! 부도가 나는가를 확실히 알 수 있으며 학생이 왜 공부가 안되는지 어떤 장애로 인해 공부가 안되는지 본인과 잘 맞는 학과 선택을 잘 알 수 있으며, 본인이 어떤 질병을 타고 났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게 기문이다. 명리를 모르는 초보자도 5개월이면 완성이 가능합니다. 아는게 힘이다. 성의껏 강의 해 드립니다.
(스님직접 강의, 항상 문의 가능) 010-3544-9777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①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②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③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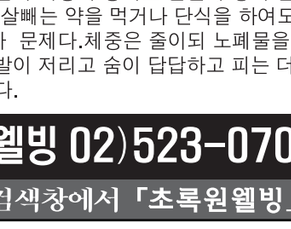
에너멀 에너지 힐링 세미나
* 반려동물(개,고양이 등)을 가족처럼 기르고 있는 분들에게 희 소식! 반려동물의가벼운 병과 나쁜 버릇을 스스로 치료해주어 마음 고생을 덜으세요. 여기와서 (디바인 하트) 라는 기 에너지를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 교육시간 : 오전11시부터 ~ 오후 4시, 교육은 단 하루에 끝납니다
* 교 육 비 : 20만원, 미리 예약필요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www.Reiki.co.kr 02)720-5682. 010-8392-2557

구성학+현공풍수양택 지역별 무료공개강의 및 개강일
서울지역 무료공개강의 : 5월 26일 화요일 오후 1시 ~ 4시
대전지역 무료공개강의 : 5월 28일 목요일 오후 1시 ~ 4시
개 강 일
■ 서울지역 : 6월 2일 화요일 오후 1시 ~ 5시 (매주 1회 과목별 2시간씩 16주)
■ 대전지역 : 6월 4일 목요일 오후 1시 ~ 7시 (매주 1회 과목별 2시간씩 16주)
강의장소
■ 서울지역 : 서울 관악구 봉천4동 865-2번지 세종오피스텔 317호)
■ 대전지역 : 대전 서구 용문동 243-18 2층 (지하철 용문역 8번출구에서 1분거리)
010-5116-9313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성학학회 강남 안병내 배상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세상의 즐거움은 뒷날 괴로움이 될 것인데 어찌 그것을 욕심내고 집착할 것이며 한번 참아내면 뒷날 영원한 즐거움이 될 것인데 어찌 이를 알고 도를 닦지 않겠는가.

- 발심수행장 -

사 찰 안 내

▶ 청정지역 토굴 안내◀
- 위치: 경남 고성
- 총부지: 970평 건물:4동
- 청정지역지정, 자연산 약초 (봉삼, 비비초, 산초, 제피, 엉개, 각종산나물 등등)
- 요양처 최적지(환우 있는분)
- 가액:1억 8천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 관광 사찰 안내 ◀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총부지:1,900여평
- 건물 : 법당48평 및 요사채 38평, 원주실15평 세계불교박물관 (5,400여년 전 벼락 맞은 대추나무화석등 석물 300여점보유) 관광버스 대형주차장 650평
- 가액 : 6억 5천 인수(은행 5억 별도)

※전국사찰 30년 역사※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
직통 051-863-66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505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 도심사찰 양도
- 목조법당과요사채(방사7).산신각.창고
- 토지730㎡.납골터.텃밭.주차장.노천불
- 양도금액 : 5억 6천만(융자2억)
- 원주횡성 5분거리. 최고위치임

010-5369-4154 (주지스님)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중구 서울역 부근
- 대지: 114평, 건평 240평
- 지하1층, 지상3층(2,3층 법당)
- 문화재급 목불 불상있음
- 가액 : 30억(절충가능)

010-6728-8338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순천,여수,광양 2015년도 광역시 통합 예정
- 가액 : 6억 8천만원, 조절가능

010-3855-7885
010-3604-54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무안
- 대지 183평, 인법당 20평 요사채 60평 (큰방 4개, 큰거실 2개, 화장실 2개)
- 가액 : 2억 6천만원

010-2060-2790

광진 사찰 안내

◎ 위치:서울포교당 ◎ 위치:수도권
◎ 부지:35평 ◎ 대지:150평
◎ 인법당:30평,교통편리 ◎ 목조법당:40평
◎ 방2.화장실,욕실,공양간 ◎ 요사:60평
◎ 보4000/66만,시3000천 ◎ 양도:5억2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석불,골동품,탱화,고서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목포 도심사찰 급 양도
* 2층 편백 법당 60㎡, 황토요사채 90㎡
* 토지 200㎡ 편안한 포교사찰
* 양도가 : 3억2천만원(융자 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108호(대표: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광진구 구의동
- 약 60평 2층에 2층
- 법당 30평, 요사 30평
- 방 2개, 화장실 겸 욕실 2
- 가액:2,000만원에 120만원 시설비 삼천만원

010-5497-7667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 치악산 자락
- 종교부지 1,200평 정도
- 목조 전통 법당 28평
- 요사채 2동(각 30평) 창고 60평
- 지장보살 좌불 노천불 모셔져 있음
- 삼성각 4평

010-9476-9800
자세한 것은 전화로 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부근
- 대지 324평, 법당 34평
- 삼성각 6평(목조)
- 요사채 1, 2층 100평(목조)
- 사용할 수 있는 땅 1,200평
- 가액 : 20억

010-4069-7723

암 자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인근 옥과설산, 적송림 7부, 사자앙천혈
- 산 : 1만 2천평, 종교부지 650평 : 약사석불 12자
- 건물 : 경량철골 3동, 합 52평
- 특징 : 암자, 연수원, 선원, 별장, 암반수, 초중고 대학교 유
- 가액 : 3억 7천 (장난전화사절)

010-8224-1688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절 앞에 낙동강 물이 흐르고 경치가 좋음
- 평수 : 120평
- 인법당 27평, 삼존불, 지장보살, 소불 100여불, 삼성각
- 큰방 2, 친견실 1, 공양간
- 집기일체 양도
- 잔디밭 마당에 7미터 지장보살
- 가액 : 1억 2천 5백만원

010-5555-8744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한 옥 주 택

산자락 예쁜한옥 비움과 회향하는 마음으로 주인께 드립니다
- 위치 : 경남 창녕 부곡 부곡리
- 대지 167평, 건평 30평
- 목조, 기와
- 가액 : 2억 7천 5백만원 (황토방, 정자)

010-3703-5879

사 찰 안 내

- 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옆에는 산이 있어 포교와 포행하기 좋은 곳입니다
- 위치 : 울산광역시
- 대지 149평 법당 20평, 기와단청 요사 17평, 요사 10평
- 가액 : 6억 8천만원

010-3811-5466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법당 24평,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 1동, 산신각
- 사용가능 평수 약 200평, 주차장 20 ~ 30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 6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055-232-715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진구 범천동
- 대지 약 42평, 건평 20평
- 법당 방2 공양간 욕실 실내외 화장실
- 도심밀집, 뒷산, 동남향
- 시설완비 집기 일체
- 몽땅 7,500만원

주직동 010-8503-600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큰도로변 버스정류소 옆 2층
- 약 60평, 큰법당, 삼존불, 신중단
- 칠성단, 산신단, 용왕단, 영가단 큰공양간, 샤워실
- 큰방1개, 작은방 2개
- 위치 환경 특 A급
- 가액 : 보증금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500만원(조절불가)

010-7337-1727

법당,포교원, 명상, 치유센터 자리안내

- 위치: 안산IC 서울외곽순환도로 바로진입 위치좋은 역세권
- 경기 부천-시흥-안산 복선전철 2015년 6월 개통
- 유동인구많고 교통편리,안산시 본오동 대로변 위치
- 전철, 농수산물시장 10분거리 상가형성 잘 되어있고, 종교행사 민원 없음
- 4층독채, 실평수50평, 법당, 주거겸용 풀 리모델링 (상담실겸, 기타옵션, 다실접객용도 최적)
- 가액: 합 5,000만원(보증금 1000/95 시설 4,000만원)
- 충남대전에 사찰불사관계로 부득이하게 내놓게 되었음

010-5913-7239/010-3145-8626

청평 한옥 안내

- 대지 199평, 건평 30평
- 전통한옥에 실내는 현대식으로 꾸며져 있음
- 방 3개(큰방1, 작은방2 중 1개는 구들방임)
- 욕실2, 거실, 주방, 패치카, 석유보일러
- 현재 스님이 거주하고 있음
- 가액 : 2억 6천만원(조절가능)

직거래 010-9411-530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원주시 풍물시장 중앙시장 중간
- 상권과 교통 요충지
- 평수 38평, 3층 건물에 3층 옥상이용가
- 법당, 주방 모든 집기 고루 갖추어져 있음
- 소임 관계로 14년 운영하던 포교원을 부득이 양도코져 함
- 가액: 보증금 500만원에 시설비 2,700만원 / 월 25만원
- 보시면 깜짝 놀람
- 즉시법회 가능

010-3813-6174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 1,420평
- 법당, 관음전, 종각, 요사채
- 방은 총 13칸, 공양간, 창고, 차고외 부하장실 등등
- 건물은 총 13동 대형버스주차장, 소형주차장 등
- 가액: 3억 9천만원
- 스님 건강상 문제로

010-4628-5699

사 찰 안 내

- 위치 : 거제시 중심부
- 대지 : 2.103㎡, 건평(법당, 요사) 329.4㎡
- 창고 기타 약 15평 외 25평은 기초공사 완료되어 있음
- 석등 외 조형물 다수 있음
- 주차장 넓고 경관이 좋음
- 가액 : 현장 답사 후 협의

010-7582-0098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 매각(가격 협의)

010-5097-3468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래)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가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양자산 아래위치, 양쪽 계곡, 앞쪽으로 전망좋음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기 허가 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명당사찰및별장터안내

- 위치 : 포천 왕방산 대진대학 우측 중앙 위치
- 군신동조 혈자리 금시발복 거부장자 문무겸전 터
- 대지 300평, 1층 100평 / 2층 100평
- 가액 : 8억 5천

010-9292-3110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법당 : 30평 목조 건물, 문화재급 보유
- 요사채 및 식당 : 40평
- 대지총면적 : 450평
- 즉시 법회가능
- 총양도가액 : 4억 7천만원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세요 (가격조절가능)

010-4725-590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경주 동국대 15분 거리)
- 대지 : 230평
- 방3개, 공양간, 산신각, 법당
- 집기류 일체 두고 갑니다
- 몸만 오신면 법회 가능합니다
- 가액 : 1억 5천(조절가능)

054)334-6698

토 굴 안 내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대방리
- 대지 101평, 법당 20평
- 공양간 7평, 화장실 1칸 사무실겸 스님방 욕실 9평
- 꼭 하실분만 전화주세요
- 가액 : 1억 3천만원

010-9183-0654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주거지역 위치
- 내용 : 대지 139평, 건평 140평, 3층건물 법당 30평
- 삼존불, 신중 지장단 영단 법단 단청, 방 6개
- 공양간, 창고, 차고, 다용도실, 화장실 3개
- 시설완벽, 몸만 오시면 됨.
- 8m 도로접, 초등학교 100m 버스 전철역 200m
- 가액 : 14억 (학업관계로 급 안내)

051)754-337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북한산 근방 포교원
- 2층 건물 중 2층
- 사용면적 60평, 옥상전체 사용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추후 결정
- 시설완벽, 즉시법회

010-8725-3196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2set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사찰 (포교원) 안내

- 위치: 경북 김천시 면 소재
- 황금동 교통 15분, 김천역 20분
- 건물 : 벽돌조 독채 104,54㎡(32평)
- 대지 : 도지료 년 35만 (311㎡)
- 내용 : 법당, 거실주방, 방2, 세면장
- 2차선 대로변 남향 상가지역
- 교통좋은 포교지 법당 넓음
- 양도 : 5850만원,법적보장(개인등기)

054)435-125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성주군 가천면 용사리
- 가야산 국립공원, 해발 600m 지점, 청정지역, 경관수려
- 부지 약 360평, 건평 45평, 임법당 준공 1년
- 가액 : 1억 6천만원

010-4564-8108

사찰 (급) 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8년간 절 운영했음
- 대지 578㎡, 전 274㎡ (3필지)
- 건물 30평, 삼존불, 법당 1,방 3개, 화장실 2개
- 대문입구, 500년된 똘밤나무 있음
- 기도스님이나 보살님 대 환영
- 가액 : 7,800만원

010-3321-683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 3층 건물 3층
- 약사여래불
- 주차 편리한 대로변
- 포교에 최적지이고 완벽한 시설
- 보증금 1,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1600만원

010-9203-3368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 산과 강구시내와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명당터
- 암자 및 별장, 요양지로 적합
- 시골집 한채 방 2개, 부엌 1
- 약100평 땅 평생무료, 토지세 없음
- 2,500만원

010-9670-3678

암자 및 종교부지 안내

- 위치 : 양평군 양동면 고송리(쑥골)
- 지목 : 토지임야(계획관리지역+보존임야)
- 평수 : 약 2200평(진입도로 포장완료)
- 특징 : 서울에서 약1시간대 거리, 평당10만원
- 위치 :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 지목 : 생산관리지역(토임)
- 평수 : 약 333평 • 향 : 동향 ~ 동남향
- 평당 : 30만원 • 진입도로폭 6M 포장완료

주인직접 010-2215-3657 합장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개심리 42-9 수연사
- 대지 : 약 100평
- 대웅전 : 25평
- 요사채 : 48평
- 가액 : 1억 8,500만원

010-5405-075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동상동
- 평수 : 대지 248평, 법당 23평, 요사채 2동
- 텃밭(마당 잔디), 방가루, 조경, 전망 좋음
- 시청, 은행 등 관공소 도보 10분 거리 뒷산 지상공원 확정
- 가액 : 5억 7천만원 (대출 3억 안고 양도금액 2억 7천)

010-5019-5385

토 굴 안 내

- 위치 : 김천시 대덕면
- 대지 380평, 건물 2동
- 가동 : 법당40평, 철구조물 조립식, 스님방1, 해우소1
- 나동 : 요사채40평, 콘크리트 블럭구조, 넓은거실
- 주방, 화장실, 방大2개, 겨울 따뜻, 여름시원
- 넓은주차장 마당, 텃밭, 연못, 조용하고 깨끗한절
- 비구니 스님들께 아주 적합한 절입니다
- 가액 : 2억 3천(대출5천만 포함) 다소절충가능

017-217-1919

살아있는 것은 아프다

토니 버나드

〈2〉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 (上)

인생은 변화·무상·불확실한 '날씨' 같은 것



만 개의 기쁨 만 개의 슬픔

당신과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었던 붓다는 곡절 많은 멀고도 긴 진리 발견의 여행을 마친 뒤, 어느 나무 아래 오랜 시간 앉아 있었다. 그리고 깨달음에 이르렀다. 해탈, 자유, 혹은 깨어남이라고 부르는 것에. 처음에 붓다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자신이 발견한 것을 전달할 말들을 찾을 수 있을지. 그러나 마침내 그는 '네 가지 고귀한 진리(사성제)' 의 형태로 첫 번째 가르침을 설했다. 이로써 불교가 탄생했다. 불교도들은 이것을 '다르마' 라고 부른다. 다르마란 단순히 '가르침' 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첫 번째 고귀한 진리를 알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첫 번째 고귀한 진리를 '인생은 고통이다' 라고 번역함으로써 붓다가 가르친 내용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첫 번째 고귀한 진리를 알려 주었을 때 붓다는 부정적인 선언을 한 것이 아니었다. 만약 그러했다면 붓다가 그것을 '고귀한 진리' 라고 부를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인생은 고통이다' 라는 말은 적어도 두 가지 이유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첫째, 붓다는 산스크리트어와 비슷한 고대 인도 언어인 팔리어를 사용했다. 첫 번째 고귀한 진리에 대해 그가 선택한 팔리어 '두카' 는 다른 말로 옮기기 어려운 단어이다. 두카는 '고통' 이라는 한 단어로 번역해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의미가 다양하고 미묘하다. 둘째, 우리 삶 속에 두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생이 두카 뿐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삶에 두카가 존재한다고 붓다가 말한 의미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이 핵심 단어를 다르게 번역한 말들을 떠올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몇 가지만 나열해 보자면 불만족, 괴로움, 스트레스, 불편함, 건강하지 않음 등이 그것이다. 두카는 머릿속에 담아 둘 가치가 있는 단어이다.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 을 모색할 때에는 특히 그러하다. 두카를 다양하게 번역한 단어들을 처음 접했을 때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 강하게 울려 퍼졌다. 마침 내 누군가가 내 육체적 · 정신적 경험과 많은 부분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 삶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다. 스트레스와 불편함과 불만족이 그것이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혹은 내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참으로 큰 안도감을 주었다.

붓다가 내 삶의 고통을 이해했다는 느낌은 나로 하여금 모든 존재에게 두카가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었다. 병에 걸린 초기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도, 죽을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하며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때에도 첫 번째 고귀한 진리는 언제나 나를 지탱해 주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건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야. 태어났으니 누구나 변화하고, 병에 걸리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 사람마다 각자 다르게 일어날 뿐이야. 지금 겪고 있는 이 병은 나에게 일어나는 방식일 뿐이야."

'영혼의 바위' 에서 열린 열흘간의 명상 프로그램에서 명상 교사 존 트래비스의 강의를 들었던 경험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추면서 그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런 다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여러분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통을 피하는 법을 끊임없이 찾다가 상심하게 된 것입니다."

고통을 피하는 법을 끊임없이 찾는 것은 더 많은 고통을 가져올 뿐이라는 사실만 여기에 덧붙이고 싶다. 두카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가 가진 존재의 필연적인 측면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고귀한 진리, 즉 두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내가 아프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내 삶이 원래 그러해야 하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 주었기 때문이다.

선 수행을 가르치는 샬럿 조코 백은 말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삶에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설령 끔찍한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삶입니다."

'고통suffer'이란 단어의 두 번째 부분(-fer)은 '가지고 오다' 를 의미하는 라틴어 동사 'ferre'로부터 유래하고, 첫 번째 부분(suf-)은 아래를 뜻하는 'sub'에서 나왔다고 샬럿 조코 벡은 지적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두카는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가해지는 삶의 어떤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보다 두카는 내부적인 현상으로, 근본에서부터 일어나는 삶의 어떤 것이다. 샬럿 조코 벡은 자신의 책에 이렇게 적었다.

"그러므로 고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무엇인가 우리를 내리누르는 느낌을 받을 때이다. 마치 고통이 외부로부터 달려들고 있는 것처럼. 마치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은 근본에 존재하는 것, 그것을 이미 품고 있는 것, 다만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나의 경우 '삶 그 자체가 되는 것' 이란 오랫동안 계속해 온 직장 생활에 예상보다 빨리 종지부를 찍은 것을 의미했다. 또한 집안에 갇혀, 심지어 침대에 매여 많은 시간을 보내고, 지속적으로 몸에 통증을 느끼며, 사람들과 자주 어울릴 수 없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샬럿 조코 벡의 가르침을 이용해서 내 삶을 구성하는 이런 사실들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었다. 이런 사실들에 고개 숙여 절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 그런 다음 그 지점에서부터 삶이 내게 준 것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많은 것을 찾아냈다.

고통의 끝, 앞서 설명했듯이 붓다는 인생이 고통스럽고 스트레스로 가득하고 불만족스러울 뿐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붓다는 다만 두카가 모든 존재의 삶에 존재한다고 가르쳤다. 몇 년 전 한 법대생이 불교는 비관적인 종교라고 나에게 말한 적이 있다. 왜 그렇게 생각 하냐고 묻자 그는 대답했다.

"그 첫 번째 고귀한 진리라는 것이 이거잖아요. 인생은 거지같다."

그것이 붓다의 가르침을 제대로 번역한 것이 아님을 그에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면서 나 자신이 그 첫 번째 고귀한 진리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방식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렇다, 인생이 상당히 많은 몫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수반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과 즐거움 또한 가질 수 있다. 붓다는 인생을 만 개의 기쁨과 만 개의 슬픔으로 이루어진 땅으로 묘사함으로써 이를 표현했다. 불교 스승들은 이러한 만 개의 슬픔에 집중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삶에 두카가 존재한다는 진리를 볼 수 없으며, 이것이 두카를 더 커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 **"고통을 피하는 법 찾는 것은 더 많은 고통을 가져올 뿐 즐거운 마음상태 키우려면 팔정도를 제대로 실천하자"**

붓다는 자신이 두 가지를 가르쳤다고 말했다. 두카와 두카의 종말이다. 나 자신이 '두카의 종말' 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준 수행법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두카의 진리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두카의 종말'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붓다는 '두카의 종말' 에 관해 육체적 고통을 끝내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육체적 고통은 인간사의 피할 수 없는 일부분이다. 붓다는 마음속 고통의 종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것이 곧 이 책의 주제이다.

첫 번째 고귀한 진리가 모든 곳에 존재하는 고통을 지적하는 반면, 나머지 진리들은 그것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마음속 고통의 종말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로 우리를 인도한다. 두 번째 고귀한 진리는 우리가 정신적 고통, 스트레스,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는 그 두카의 원인이 '탄하' 라고 이야기 한다. '탄하' 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목마름' 이다. 이것은 두 번째 고귀한 진리에 대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개념, 즉 고통의 근원이 욕망이라는 것과 그리 동떨어져 있지 않다. 나는 탄하를 리 삶에서 무엇을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정신적 상태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늘 존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즐거운 경험을 원하지만 불쾌한 경험을 원하지 않는다.

세 번째 고귀한 진리는 두카의 종말이 가능하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준다. 그리고 네 번째 고귀한 진리에서 붓다는 이것을 이루기 위한 수행 계획을 제시한다. 이 수행 계획은 '여덟 가지 바른길(팔정도, 八正道)에 담겨 있다. 여덟 가지 바른 길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한 건강하고 즐거운 마음 상태를 키우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두카의 종말과 함께 깨달음, 깨어남, 해탈, 자유, 해방이 찾아온다.

인생이라는 날씨

마음속 두카에 종말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붓다가 '존재의 세 가지 표시' (삼법인三法印)라고 말한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표시는 이미 이야기 했다. 우리 삶에 두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나머지 두 가지는 무상(아니카)와 무아(아나타)이다. 붓다는 인간 존재의 특성들을 처음 설명할 때 무상에서부터 시작했다. 무상은 만고의 진리이다. 다른 종교 전통이나 과학계에서도 이것이 모든 살아 있는 존재의 삶에 공통된 성질임을 인정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영혼의 바위' 명상 프로그램에서 조지프 골드스타인은 무상을 설명했다. 이는 무상에 대한 설명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되었다. 나날의 삶에서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는 말했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그 언제라도"

그렇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그 언제라도. 인생은 무상하고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고 늘 변화한다.

어떻게 하면 이 만고불변의 진리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을까? 위대한 스승 도겐 선사(1200~1253, 일본 선불교 계통의 종파 중 하나인 조동종의 창시자)가 그 실마리를 제공한다.

"뼛속을 파고드는 매서운 추위가 없었다면 어떻게 매화꽃이 그 향기를 온 세상으로 퍼뜨릴 수 있었겠는가?"

무상의 진실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도겐 선사의 말 중, '뼛속을 파고드는 매서운 추위' 라는 구절이 가슴에 다가온다. 내 직업을 포기해야만 했던 것이 지금도 어떤 날에는 그 추위처럼 느껴진다. 이제 나에게 주어진 도전은 그 매화꽃들이 퍼뜨린 향기를 찾는 것이다. 직업을 포기한다는 매서운 추위가 없었다면 나는 방 안에 울려 퍼지는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향기를 느낄 수 없었을 것이다. 물론 아프기 전부터 그 향기를 감상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러지 못했다. 하루의 대부분을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한다는 매서운 추위가 없었다면 계절의 변화에 그토록 민감해지지 못했을 것이다. 무상이 없다면 어느 것도 자라거나 발전할 수 없다. 볍씨는 벼로 자랄 수 없다. 아이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없다. 이 병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여러 면에서 '성장' 하게 되었다. 그것은 클래식 음악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발견한 것부터 만성병 환자들과 그들을 보살피는 사람들에 대한 자비심이 커진 것,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사회 기반 시설이 계속 돌아가도록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까지 다양하다. 바깥 날씨가 섭씨 27도를 넘거나 폭우가 쏟아지거나 관계없이 누군가는 편지를 배달하고, 전봇대에 오르고, 거리를 청소하는 모습을 나는 집 안에서 볼 수 있다.

이 글은 〈살아있는 것은 아프다〉(문학의 숲)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덕인 성명학 교실
무료 공개강좌
■ 날 짜 : 2015년 6월 6일(토) 오후 2시
2015년 6월 10일(수) 오후 2시
■ 모 집 : (1) 성명학 (한문을 모르는 분들은 기초부터 강의)
(2) 역 학 (기초, 전문반, 임상반)
■ 장 소 : 강남구 역삼역 (2호선) 6번출구
(역삼하이츠 빌딩 1603호)
80년 이후 한글 이름이 유행되어 현재 전국
법원에서 1년에 15만명이 개명을 하고 있습니다.
"월 300만원이 목표가 되시는 분"
"직장 퇴직 후 제2의 직업을 찾는 분"
"철학관을 운영 중 수입이 많지 않는 분"
덕인 성명학 23년 동안 쌓아 온 경험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강좌에 참석하시는 분들께
(한국성씨보감 책 1권을 드림)
덕인성명학 (구봉이름연구원)
서울본사 02)562-8353
선릉지사 02)566-1525
대구지사 053)794-7878



김호석화백의
화폭속 선지식
광덕 스님 ㊤

시대에 맞는 전법 위해 온 힘 기울였다



광덕 스님의 진영을 제작하기에 앞서 스님의 독경하시는 모습을 먼저 그려 붙여 놓았다. 스님의 독경 소리는 진영 작업을 하는 내내 내 마음 속으로 파고들었다.

십여 년 전, 나는 범어사 진영각에 모실 광덕 · 지효 스님의 진영을 의뢰받아 작업을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최근 그림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범어사를 찾았다. 그러나 내가 도착했을 때 진영각은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그림은 찾을 수 없었다. 서운한 마음에 진영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던 찰나,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 되어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박물관 학예사는 두 스님의 진영이 박물관에 없다며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허탈했다. 범어사는 용성 스님과 동산 스님을 중심으로 한국 근현대사의 기라성 같은 선승을 배출한 기백 있는 문중이 아니던가. 나는 범어사 문중의 위대한 스님들을 그렸다는 자부심도 컸다. 그리고 근현대사의 큰 스님들을 모시는 일을 어느 절에서도 시도하지 않았기에, 내심 범어사의 생명력 있는 법맥을 기대하고 찾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 기대는 여지없이 깨졌다.

나는 광덕 스님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 대학생 때부터 대불련 활동을 통해 스님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직접 몸으로 확인했다. 불교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천착해 들어갔던 시대를 아는 분이었다. 스님께서 열정을 쏟았던 월간 〈불광〉도 현실의 삶을 긍정화 시키는데 한 몫을 했다. 대학과 군 생활 그리고 교사시절에 이르기까지 〈불광〉지는 나의 또 다른 삶이었고 희망이었다. 나아가 마음의 창이었고 한량없이 정신적 자유를 누리게 하였다.

1999년 2월, 스님께서 입적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시대의 사표가 되었던 스님을 잃은 슬픔이 컸다. 그리고 또 다시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광덕 스님이 나의 기억 속에 불쑥 등장하셨다. 2000년대 초 성철, 관응, 일타 스님 등 선화 작업을 진행 하던 중 우연히 스님의 다비식 장면을 사진으로 보게 된 것이다. 나는 그분의 영정사진을 보는 순간 무척 당황스러웠다. 익히 보아온 그 잘 생기고 온화하며 맑은 자태는 온데간데없고, 얼굴과 몸이 맞지 않은, 전혀 다른 모습의 사진이 사용된 것이다. 얼굴은 스님인데 몸은 아니었다. 거듭 바라보니 성철 스님의 몸에 얼굴만 광덕 스님으로 조합한 모습이었다. 생전에 성철 스님께서 광덕 스님을 아끼셨고 실력을 인정해 준 사이라 하지만 광덕 스님은 광덕 스님인 것이다. 이도 저도 아닌 사진을 보고 슬픔이 밀려왔다. 무례함에 화가 나기도 했다. 광덕 스님의 영정사진은 나에게 슬픔과 어두운 그림자를 진하게 남겼다.

또 몇 해가 지났을까. 어느 날 불광사 주지이신 지정 스님께서 전화를 하셨다. 광덕 스님 초상화에 대해 상의할 일이 있으니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스님께서는 광덕 스님 초상화를 정통성 있는 그림으로 모시고자 하여 불화 인간문화재이신 석정 스님께 소개를 부탁했더니 대뜸 "좋은 화가가 한명 있는데 그 화백이 한다고 허락하면 믿어도 될 것이다"며 나를 적극 추천했다고 하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얼굴과 몸이 맞지 않았던 광덕 스님의 영정사진을 떠올렸다. 그래서 스님의 부탁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스님다운 모습의 사진 자료와 스님과 비슷한 체구를 가진 스님을 모델로 세워 스님을 추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다. 나는 최선과 정성을 다해 진영작업을 하겠다고 했고 지정 스님께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돕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나는 곧장 불광사를 찾았다. 절에 도착하자마자 대웅전에 들러 예의를 갖춘 뒤 주위를 둘러보니 광덕 스님의 진영이 이미 그려 있는 게 아닌가? 진영이 있음에도 또 모신다는 것은

> "스님은 부처님의 말씀을
>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실천하셨다
> 부처님의 법을 널리 펼치는데
> 온힘을 바쳐 진심을 다하셨다"



모든 사물은 각각의 존재 방식이 있다. 무꽃은 그 뿌리가 땅 속에 있을 때만 피는 게 아니다. 썩은 무에도 봄은 있다. 스님께서는 차별이 없는 삶을 실천하셨다.

진영을 의뢰한 작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존 진영을 그린 작가가 작품이 회수당하거나 거절당했을 경우 그 작가가 감내해야 할 절망감을 생각해 보니 마음이 아파왔다. 그래서 나는 지정 스님께 진영을 다시 그려야 하는 이유를 물었고, 만약 그려야 한다면 이미 그린 분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자 스님께서 "범어사 진영각에 스님의 존영을 보내야 한다. 진영은 스님의 외모보다 스님의 어진 이미지가 잘 표현 되어야 한다. 전통성이 있는 방식으로 그리되 가장 단순한 형식이 필요하다. 스님의 삶이 그렇듯 깨끗한 스님의 이미지가 드러난 그림을 그려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나는 광덕 스님의 영정 사진을 보고 스님께 가졌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터라 스님의 삶과 생활에 대해 주지 스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화제는 그림을 넘어 우리시대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직까지 스님의 정신이 유효한지 스님께서 다시 현현한다면 어떤 일을 계속 하실 것인지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런 후 나는 집에 돌아와 광덕 스님을 회상해 보았다. 스님은 철저히 계율을 지킨 분이다. 대각사에 계실 때 종로 거리에서 도량석을 하신 분이셨다. 스님은 평생 책을 읽고 쓰며 지혜를 위한 공부에 평생을 바치셨다. 〈불광〉지에 실린 대부분의 글은 스님의 손을 거친 글이다. 스님께서는 도서 편찬 간행 사업도 활발히 진행했다.

부처도 깨닫기 전에 내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 했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지혜를 구하려 했듯, 스님은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실천하셨다. 불교가 더 이상 시대에 뒤 떨어진 종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 또 부처의 법을 널리 펼치는데 온힘을 바쳐 진심을 다하셨다. 포교의 중요성을 실천하셨다.

또 스님은 잘 생긴 수려한 외모, 맑고 청아한 눈빛, 밝은 안색 등을 특기로 매우 격조가 있으신 분이었다. 스님의 이목구비는 반듯했다. 항상 웃으셨고 미소를 머금으셨다. 음성은 맑고 청아 했으며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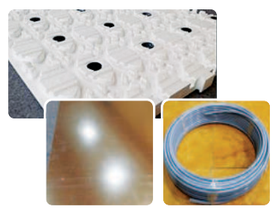
내가 기억하는 스님은 이런 모습이었다. 그러나 입적하시기 전의 모습을 보니 많이 달랐다. 나는 스님께서 많이 아프셨다는 짐작을 했다. 병약했고 몸도 균형이 부족해 보였다. 병 때문에 여러 번 병원 신세를 진 것이라 생각하기도 했고 공부에 매진하다 몸이 쇠약해지신 것은 아닌지 생각했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 포항에 계실 때 참선에 몰두했던 일이 생각났다. 이 때의 생활이 스님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놓친 것이 있다. 죽음까지 불사하며 공부에 매진했다는 점이다. 이런 분이 얼마나 되던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끝단까지 밀고 간 숭고한 의지의 정신. 나는 불현 듯 스님을 다시 만나보고 싶어졌다.

품격있는 소전의식을 위한
연꽃 소전대
NAVER 연꽃소전대 검색
귀사찰에
품격있는 소전의식을 위한 연꽃 소전대 작품을 제안합니다.
작품성과 실용성 모두 완벽에 가까운 수제 작품입니다.
디자인특허 및 실용신안 특허를 모두 획득한 작품이며 장인의 땀과 혼뿐만 아니라 예술가의 열정이 담긴 작품입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으로
귀사찰의 기제사나 천도제의 마지막 의식인 소전 준비 하신다면
사찰의 품격과 신도님들의 품격또한 높여
귀사찰의 무궁한 발전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 연락처
010-9195-1044 / 070-7563-3898
■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82번길 30
불교조각연구원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D.I.Y 시공 가능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 설치장소 ■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www.jjunheating.co.kr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 지역 대리점
서울 : 010-5097-8291
평창 : 010-6433-8612
진주 : 010-3583-7139
익산 : 010-6610-2337
수원 : 010-5211-7260
양산 : 010-6294-6126
울산 : 010-4597-5577
여수 : 010-3612-7784
남양주 : 010-9183-9729
김천 : 010-9091-4583
서광주 : 010-6890-0365
고성 : 010-4578-0961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부처님은 아주 가깝게 계시니 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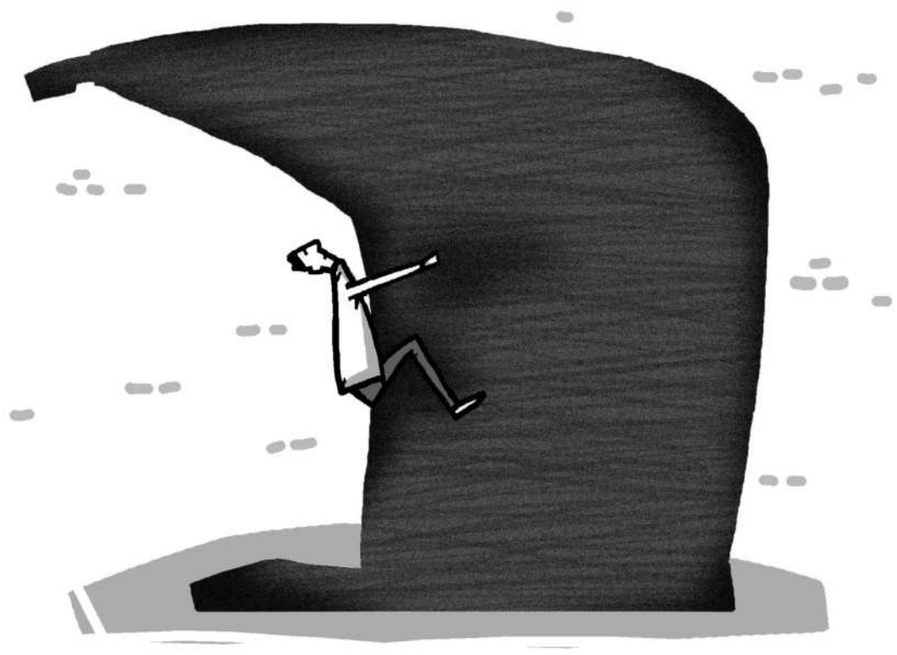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형제 법우님들, 앞으로는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 가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마음을 계발해서 천체를 앉아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모두 스스로, 근본으로부터 배출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정말이지 절실한 일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 법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비유해서 조그마한 티끌만도 못한 것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전에 여기 한 처사님이라고 아시죠? 그분이 사흘을 못 넘긴다고 의사 셋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 걸 "몸에 꽂은 거 다 빼고 죽든지 살든지 나갑시다." 하니까 말도 못 하고 고개만 끄덕거리더군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무조건! 무조건 말입니다. 이유는 불문에 붙이고 무조건 이 사람은 누구든지 데려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왜 그랬느냐? 상원사(上院寺)를 지을 때에도 그랬었지만 뭐든지 무조건이지 거기는 이유가 붙는 자리가 아니다 이 소립니다. 무슨, 어려워서 못 살겠네, 죽겠네, 이것이 잘못됐네, 저것이 잘됐네 이런 게 붙으면 그건 진짜 부처님 법이 아닙니다.

부처님 법이란, 여러분의 법이란, 그 묘하고 슬기롭고 진짜 아무것도 붙지 않는 그 자리에서, 눈은 샛별같이 떠지고 한생각은 불끈(주먹을 쥐어 보이시면서) 솟는 그 무조건적인 생각! 예, 이런 것이 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렇게 꼭 하겠노라!" 하고 주먹을 불끈 쥘 때, 마음속에서 정말 절절한 눈물을 흘리지마는 눈은 생동생동하게 더 똥그랗게 떠지고 눈에서 불이 번쩍번쩍 나는 이러한 그 '무조건' 의 생각, 그겁니다.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주인공이 해 주겠지.' 라고 한다면 아니, 그러면 주인공 따로 있고 여러분 따로 있습니까? 그것도 관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혜 물리가 터져야 알 겁니다, 아마. '네가 있다는 것을 네가 증명을 하는 거지.' 그게 관(觀)입니다. 또 지금 내가 무조건이라고 그런 겁니다. 어떠한 문제를 꼭 해야만 되겠다 할 때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거기에는 아무 이유가 붙지 않아야 된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망상은 끊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물리가 터지게 할 수 있는 수련 재료이자 바로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망상을 끊지 않고 여여하게 그대로 넘어가는 무조건! 망상을 한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니까 망상이지 아니, 누가 망상이라고 이름을 지어 놨는지, 그것도 사람이 지어 놨지 누가 망상이라고 지어 놨겠습니까? 그것에 왜 흔들립니까?

줄창 말하지만, 이 세상에 누구나가 다 수억겁에 걸쳐서 엄청난 그 과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여기에 쓸리고 저기에 쓸리면서 진짜 부처님의 골수를 모르게끔 자기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 겁니까? 그래서 부처는 너무 가까워서 위 속 눈썹하고 아래 속눈썹하고 똑같이 작용을 하는 그것이 바로 부처님 법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자기와 아주 가깝게 있으니 멀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언젠가 한번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요새 암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 암이라고 하는 이름에 그만 끄달려 포기를 해 버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 백혈병이라고 해서 포기합니다. 뱃속으로 썩어 들어간다고 해서 포기합니다. 무엇이든 여러분이 포기를 하니까 포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절실히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골수에 전부 병이 들어서 썩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벌레가 뼈를 긁어 먹는다고 의사가 그러더라고 그럽니다. 병원을 여섯 군데를 다니면서 진찰을 해 봐도 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때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뼛속을 긁어 먹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알면 좋은데 모르니까 "그거는 긁어 먹는 병이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감기 조금 들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줬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한 거니까 무조건, 이건 절대로 이런 병이 돼서는 안 된다고 아주 작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만 저 원주 소태면이라나? 소천면인가요? (대중 가운데서 '소초면' 이라 함.) 응! 소초면인가요? 이제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너무 오래 되어서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병원에 다니면서 집을 팔고 땅 있는 걸 다 팔았습니다. 나중엔 정말이지 남의 행랑채에 들어 있어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공부를 모르기 때문에 방편상 그렇게 한 거죠. 이 부처님 법은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약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가 약입니다,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야, 감자 한 관 살 돈은 있느냐?" 그러니까 있대요. 감자 한 관에 2천 원이래요. 그래 2천 원어치를 사 가지고 가서, 갈아서 즙을 내서 거기에 미숫가루를 멀겋게 타서 간식으로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또 맛있게 해 먹으려면 누런 설탕 사다가 가미해서 그냥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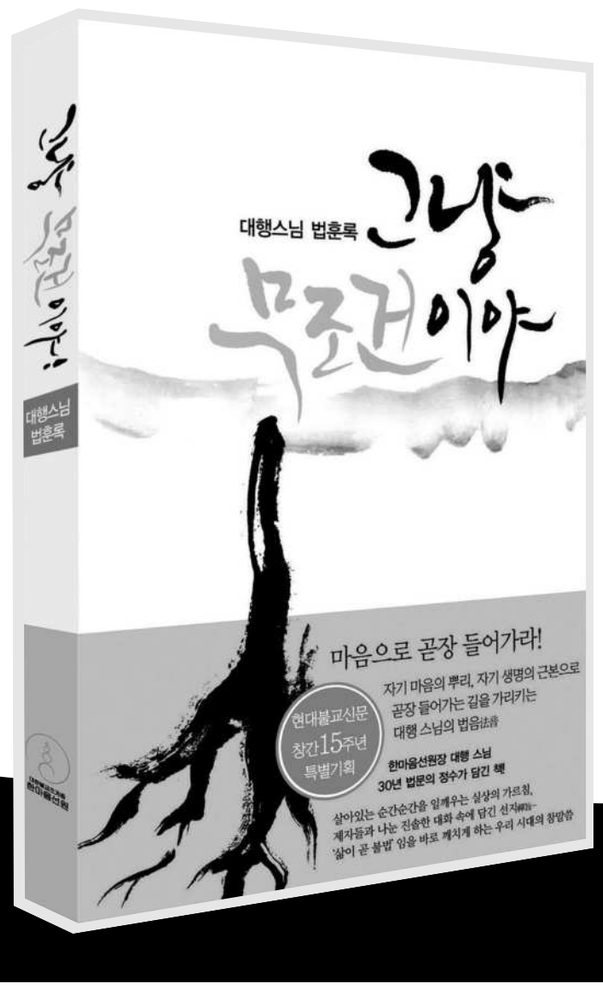
그게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글쎄. 그게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진짜로 믿었던 겁니다, 진짜로! 아는 사람 같으면 그거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믿었죠. 자식들은 칠 형제나 되고, 쉰 살에 또 늦게 아들을 낳아 가지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살고 계시고, 쉰 살에, 늦게 낳은 그 아들의 덕을 보고 지금까지도 사시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아리송한 게 부처님 법입니다. 아주 정말이지 이것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가끔 한 처사님한테도 그랬지만, 이렇게 해 본 예가 있습니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보이는 세계에 나오는 모든 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딱 진을 쳐 놓고선 "안 돼!" 하면 아예 그냥 못을 콱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시면서) 쳐 놓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런 예가 더러더러 있죠. 왜? (한숨을 내쉬시고) 내 가슴이 너무 아파서요. 그 사람이 죽고 살고, 또는 '여기 믿으러 다녔는데 안 고쳐져서 어떡하나?' 그런 거를 떠나서, 그런 거를 다 떠나서, 믿고 안 믿고 그걸 떠나서 말입니다. 이렇게 정립이 되고, 그 못을 박는, 정말이지 굵은 불바퀴를 그냥 콱 (주먹을 쥐어 내리쳐 보이시면서) 박는 그 마음은, 아마도 이 세상 다 없어진대도 그건 빼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참답게 아신다면 정말 여러분은 법신(法身)이요 불부처요 산 부처요, 여러분이 화신(化身)이요 법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글자도 붙지 않고, 이론도 붙지 않고, 더한다 덜한다, 이게 옳다 그르다도 붙지 않고, 가난하다 또는 부자다도 붙지 않고, 위대한 사람이다 위대하지 않은 사람이다도 붙지 않습니다. 진실한, 그 뼈저린, 아주 진한, 바닷물을 다 모아서 한 방울이 되는 그 피 한 방울이 말해 줍니다. 이건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난 어저께도 그저께도 그그저께도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은 한없이 쏟아지고 누구한테 보일 수도 없어서 보이진 못하나마 눈이 생둥생둥하게 떠지면서 기둥이 와짝 (주먹을 쥐어 보이시면서) 섰습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지금 정신계로 치닫고 있습니다. 공부하시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로 여러분의 어깨에 짊어진 채 한생각을 내서 둥글려서 모든 걸 해 나가신다면 우리나라는 진짜 융성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너무 느낀 점이 많은데요, 조그만 그릇에다가 재료를 많이 부어서 막 흘러내려서 부작용이 나 가지고 저렇게 야단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정립을 해야 됩니다, 또. 그럼으로써 자라나는 새싹들이 주인이 돼서 살 때,

☞ 22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억만 분이 깨달으셨다 하더라도 한 도량의 한 부처이니라!

☞ 21면에서 계속

그리고 그 밑으로 밑으로 내내 선맥(禪脈)이 끊어지지 않고 끝 간 데 없이 이어지도록 지키고 나갈 수 있게끔 법신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들이 "학술적으로 하지 않고, 경전으로 하지 않고 왜 그렇게 딴말을 하느냐?"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했죠. "풀포기 하나도 생명이 있고 이심전심으로 전달하고, 같이 공생(共生)을 하고 공식(共食)하고 있는데 무엇이 부처님 법이고 무엇이 부처님 법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가톨릭교인이고 기독교인이고 다 와서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디 호텔을 정해서 설법을 한다 하고 기별을 하니 심지어는 가톨릭교 신부나 목사도 모입디다. 어떤 질문을 해도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그냥 서슴지 않고 대답을 해 줄 수 있느냐고, 나중에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면서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러면서도 남에게 해롭게 대답도 하지 않고 어떤 거 하나 나쁘다는 것도 없이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느냐고 그러는 겁니다. 그랬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부처님 법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잘났다고 해 봐야 이 고깃덩어리가 얼마나 잘났으며, 이 고깃덩어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의 골수는, 여러분의 누진(漏盡)으로서 오신통(五神通)을, 법바퀴를 벗어나야 바로 불바퀴를 굴릴 수 있으며, 불바퀴를 벗어나야 바로 이 마음이 천백억화신으로, 분신으로 화해서 바깥으로 전 우주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를 들락거리면서 이걸로 쓸 거는 이걸로 쓰고, 저걸로 쓸 거는 저걸로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지구만 해도 이 안의 세계를 위하여 지구 바깥으로 세 개의 소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냐. 지구 바깥에 법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계라는 그 자체는 무엇이냐. 우리네들의 마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네들 털구멍을 통해서 나고 들고 하는 것처럼, 지구도 살아 있는 생명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질, 혹성이기 때문에 많은 물질들이 입자를 통해서 분자가 돼 가지고는 세 가지 소임을 합니다. 아주 질서정연하게 단계 단계 단계…. 그래서 지구 바깥으로 그 단계가 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소임을 맡은 단계입니다. 안으로 들이고 바깥으로 내는 소임, 안으로 바깥으로 전부 통신하는 소임, 그리고 책정을 하는 소임, 세 가지를 그렇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안으로 들이고 밖으로 내는 것만 보더라도 더 넓게 보면 이 지구 안으로 모두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발을 붙이고 다니는 것도, 남극 북극에서 그 소임을 하면서 들이고 내기 때문입니다. 남극이 똥 누는 데라면 북극은 먹어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나쁜 건 내놓고 좋은 건 들여놓듯이, 지금 인간 혹성 자체가 그렇게 살듯 지구도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네들 마음 자체의 보이지 않는 입자, 즉 말하자면 화신들이, 내 몸뚱이도 보호하려니까 그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아니 인간에겐 5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다섯 단계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끌어잡아 당기는 것과 끌려들어 가는 것의 양면을 다 책정을 잘하는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세균성이 들어와도 우리가 들여놓을 건 들이고 내놓을 건 내놔야만 하는 작업도 있죠. 이 허공에도 지금 세균성이 그냥 욱시글득시글하니까요, 안에서도 그렇지만. 또 유전성으로 온다든가 영계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인연에 따라서 들입다 침입을 하게 방치가 된다면 우리가 도저히 살 수가 없죠. 임신을 했어도 임신한 그 자체에 자꾸 집어넣기 때문에 그 애가 이 세상에서 대통령감인데도 소통령도 못 하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거죠, 얼른 쉽게 말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미래세계 정신세계의 노예로서 산다 이겁니다. 우린 맘대로 살 수가 없어. 내일 어떻게 될는지 모레 어떻게 될는지도 몰라. 그래서 부처님께선 "안으로도 노예가 되지 말고 바깥으로도 노예가 되지 말라. 네 정신 네가 가지고 있고, 네 주인공 네가 가지고 있으니…." 그 소린 뭐냐 하면, 네 주장자가 있다면 이렇게 끌리고 저렇게 끌리고 그러진 않을 거다 이거야. 네 집이 비지 않았다면 이것도 들어오고 저것도 들어오고 들락날락하지 않을 거다 이거야. 네 집이 비었기 때문에 수없는 게 들락거리면서 네 집을 망가뜨리느니라, 이랬거든.

그러니 네 기둥이 없는데 내 기둥을, 네 기둥이 없는데 내 주장자를 줄 수가 있느냐 이거야, 네 집이 비었는데. 네 집이 비지 않고 주인이 있다면 내 주인을 너를 줄 것이로되, 줘서 한마음이 돼서 하나가 돼 가지고 일을 크게 할 텐데, 네가 집이 비어 가지고 네 마음에 주장자가 없는데 내 주장자를 어떻게 너에게 한데 합쳐 줄 수 있느냐 이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 네 주장자가 없다면 빈집이 돼서 털구멍을 통하고 눈구멍을 통하고 콧구멍을 통해서 들락거리면서 그저 깡패니 뭐니, 예를 들어서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데서 전부 그냥 드나들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만 드나드는 게 아니라 짐승들의 그 의식도 드나들기 때문에 집이 망가져서 나중에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못 할 거며, 또 집이 먼저 망가지면 내가 나를 찾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집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몸으로 고행을 하지 말고 정신 수행을 하라 하신 거죠. '정신 수행으로서 진짜로 들고 나는 데에 누가 하는가. 네가 하는 것을 알라. 몸은 사대가 돼서 흩어지고 말지만 이 정신, 너의 진짜 참마음은 끝 간 데 없이 바로 너를 살리고 너의 중생을 살리고 수많은 외부의 중생들을 다 건질 수 있다는 걸 알라.' 하셨죠. 그 말은 '위로는 억만 분이 깨달으셨다 하더라도 한 도량의 한 부처이니라. 그러니 평발 한발로 디뎠느니라.' 이거야. 그러니 얼마나 거룩한 말씀이냐는 거죠. 그 말을 고렇게까지는 안 하셨어도 『금강경』이나 『화엄경』이나 『반야심경』을 본다면 거기에 그냥 탁탁 들어가 박혀 있어, 아주. 글자 아닌 글자를 아주 거기에다 똑똑 박아 넣었다고.

엊그저께 어느 스님이 "왜 『반야심경』을 그렇게 풀이해서 미국에 가서까지 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영어로다가 써서 우리 발음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조곤조곤 차근차근 그걸 읽어 내려가는데, "참 잘 읽는다." 내가 그랬다고요. 그걸 어떻게 따집니까? 그러니까 우리말 영어죠. 하하하. 그랬는데 아, 그것도 흉인 거예요, 글쎄.

그래서 그 스님더러 그랬어요. "부처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경전을 보고 지금 그대로 해야 한다면…. 그때 시절에 트럭이 있었겠느냐, 짐차가 있었겠느냐. 짐차라는 이름이 있었겠느냐."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긴데, 그때 만약에 지게꾼이 있었다면 "지게꾼!" 하고 불러야 그땐 대답을 했는데 지금은 짐차 트럭을 불러야 됩니다. 그것도 전화로 해도 됩니다. 그러면 짐차를 불러야 하는 지금 시절과 지게꾼 부르던 그 시절이 다른데 지금도 그럼 "지게꾼! 지게꾼!" 하고 불러야만 하느냐? 그럼 트럭 운전수는 대답도 안 합니다, 지게꾼을 부르니까. 자기 이름이 아니거든. "그런데 지금 '지게꾼! 지게꾼' 하고 부르란 말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싱긋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 말씀이 옳소. 참, 우리가 못하는 걸 당신이 해 줘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데…." 그러고는 그만두더군요, 허허허….

오늘은 이렇게 설법하는 날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내가 그렇게 잘하니까 나를 믿고 따르라 이런 게 아니고, 본래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진리가, 뜻이, 법이, 중용이 바로 그러하다 이런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서로 토론을 하는 날인데 나 혼자만 지껄여서, 지껄인다고 그래야 돼요. 하하하…. 안됐지만 어떡합니까? 그러니 질문들을, 청년회도 그렇고 모두 질문들 하십시오.

> 몸은 사대가 돼서 흩어지고 말지만
> 이 정신, 너의 진짜 참마음은 끝 간 데 없이
> 바로 너를 살리고 너의 중생을 살리고
> 수많은 외부의 중생들을 다 건질 수 있다는 걸 알라.

질문자1(여) 저도 사실 마음 밝히는 공부를 참 하고 싶은데 스님처럼 꼭 출가수행을 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큰스님 음, 그거는 대답하기가 곤란하잖아, 그건 자유로 하는 건데. 하하하…. 내가 느낀 거 두 가지를 얘기하겠는데 머리 깎고 입산을 한다면 모르는 사람들이 "저이는 스님이야. 그러니까 스님한테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이러지만, 출가하지 않고 공부하는 이는 그냥 스님하고 똑같이 다 실천할 수 있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넓게 할 수가 없으니까 머리를 깎는 거지.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말이야. 안 보이는 데서는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건 자유야. 스님이 되고 안 되는 건 자유고, 공부하는 거는 스님이 됐든 안 됐든 똑같아.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아니, 그 도리도 모르고 스님이 된다면 스님은 돼서 뭘 해? 껍데기 스님이 돼야 소용없어, 아무리 천만 명이 된대도. 그러니까 결심하고 스님이 되는 거, 이거 보통사람들 아니야. 허허허…. 보통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스님 안 돼. 스님 되는 것도 보통이 아니야.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속단해 버리고 이 무명초, 천차만별로 어지러운 모든 걸 깎아 버리고, '나는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은 도리를 알겠다.' 고 다짐하고 들어오는 거, 이거 보통 아니야.

그런데 공부를 한다니까 말인데, 어떤 분야든지, 만약에 의학을 해서 아픈 사람을 건진다 하더라도 이 도리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물질 또는 학술로 배워도 마음으로 50%의 보이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걸 체험해서 터득하지 못한다면 자기가 그걸 커버하고 나갈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의당히 이거는 배우고 나가야 된다는 거야,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질문자1(여) 더 솔직하게 스님한테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말하는 재산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그런 것은 하나도 뭐, 욕심이 있다거나 그런 생각이 없는데 단 하나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제가 시집을 안 가고 그냥 스님이 되어서 살 수 있을까, 그것만은 끝까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생각해 보는 중이거든요, 스님.

큰스님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는 중이라면 진짜 생각을 해서 단호히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마음이 들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런데 나는 시간 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아. 우리가 시집을 간다 장가를 든다고 하는데, 그런 일에 정신을 빼앗기는 사람이라면 공부도 못 할 거 괜히 스님이 돼서 뭘 하느냐. 가정이라도 잘 지켜야지. 이 공부는 모든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앉아서도 이 세상을 다 주름잡을 수 있는 거야. 승려가 안 돼도 말이지.

그러나 이 스님네들은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한마음이 돼 줘. 한마음이 돼 준단 말이야. 단호히 결정을 내렸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라 전체를 그냥 다 끌어들여서 한마음이 돼. 한 기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님이 되려면 스님이 돼서 이 세계를 누비면서 이 마음법을 전파해도 좋지. 우리 생명의 근본과, 말하고 체험하고 이러는 게 불교니까. 그러니까 풀 한 포기라도 제도하려면 스님이 되고. 그런데 살림하는 사람들은 풀 한 포기까진 생각을 안 해. 또 죽은 사람들까지도 생각을 안 하고.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아, 살기 바쁘니까.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뿐이야.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91년 5월 5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능인 로즈마리
능인 라 벤 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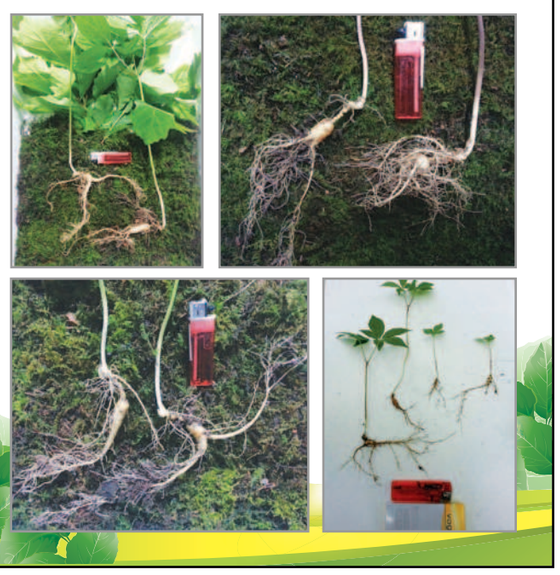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신선초 산삼
전문점 모집

산양삼 장뇌삼이 아닌 천연산삼 순수종을 전문적으로 취급하실분을 모십니다.

수량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선착순 세분만 모십니다. 관심있는 분은 아래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H.P 010-5633-7010



불자 세상보기

한국불교에는 왜 영화제가 없을까?



정재형
동국대 교수, 영화평론

영화제는 크게 주제영화제와 일반영화제 둘로 나뉜다. 주제영화제는 특정 주제 영화만을 상영하고, 일반영화제는 모든 주제의 영화를 다 상영한다. 부산영화제, 전주영화제, 부천영화제 등은 일반 영화제다. 반면, 무주산골영화제, 제천음악영화제, DMZ다큐멘타리영화제, 서울청소년영화제, 순천만동물영화제, 건축영화제, 인권영화제, 노동영화제, 정동진산악영화제 등은 주제 영화제다. 주제영화제 가운데 종교영화제도 있다. 기독교 사랑영화제, 가톨릭 영화제다.

불교영화제는 아직 없다. 유교영화제도 없고 도교영화제도 없다. 우리 전통사상인 유불도는 전멸이다. 서구 근대화 100년 만에 한국전통 사상이 사멸되었다는 증거인지도 모른다. 유교나 도교는 그렇다 치고 불교 영화제 하나쯤은 있어도 되지 않을까.

5월 27일 서울국제여성영화제(이하 여성영화제)가 개막했다. 여성영화제의 구호는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이다. 남성중심의 권력이 지배함으로 인해 양성이 불평등한 세상에서 차별받는 약자의 입장인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로 보자는 취지이다. 영화제 덕에 해를 거듭할수록 관객들이 여성영화를 인식하는 태도나 수준은 높아졌다.

이 세상의 반은 여성이라는 자부심 하에 여성영화제는 조직되었다. 불교의 자부심은 그보다 더했으면 더하지 미달은 아닌 듯 싶다.

고통의 바다인 사바세계에서 어둠속을 헤매는 중생의 마음에 깨달음의 불꽃을 심어주신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의 반이라는 논리나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식 보다 어떻게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나. 아마 세상의 중생 모두가 부처님의 종자요,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의 진리가 될 것이다.

이런 좋은 취지를 갖는 불교가 영화제 하나 갖고 있지 못한 것은 비단 영화계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조계종단에서 운영하는 방송국이나 병원이 없다는 지적은 불교가 사회적 실천, 대중적 교화에 있어서 타종교에 비해 느리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꼭 조계종단이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반대한다. 꼭 직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폭적 후원은 필요하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원칙이 보다 큰 미덕이기 때문이다.

불교계 스님들의 설법은 대중 사회에서 큰 영향을 갖고 있다. 영화제라는 것이 별 다른 게 아니다. 스님들의 훌륭한 설법처럼 좋은 영화들을 소개하여 보여주면 되는 것이다. 현대는 말이나 문자보다 영상이 더 유리한 시대이다. 영화제가 없다는 것은 좋은 매체를 포기하고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 포교한다는 의미와 같다.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중생의 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공덕은 적은 것이 아니다. 세상을 바라볼 뿐 아니라 영화들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 부처님의 눈으로 영화를 보면 영화의 모든 주제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권선징악의 신화적 영웅담이든, 사랑의 고통을 담은 로맨스 멜로영화든, 어떤 영화도 부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의 자세는 이 세상의 진리가 곧 부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몸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육바라밀에 있지 않을까. 또한 12연기법과 중도와 불이사상과 유식사상과 공사상과 사성제와 팔정도에 있을 것이다. 불교철학의 심오함을 대중들에게 일상속에서 자각하게 하는 방식 그게 바로 영화가 아니고 무엇이랴.

불교영화제는 다른 데 있지 않다. 그저 불교도들이 행하는 말과 행동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 과정에 다름 아니다. 만일 불교라는 말이 거창하다면 그냥 염불영화제도 좋고 참선영화제, 법공양영화제, 108배영화제라도 하면 될 일이다. 그저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하던 평소대로 거창하지 않고 번거롭지 않게 신심을 갖고 영화를 보여주면 된다는 말이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대

황교안 총리 후보 논란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그 진원지 중 하나는 불교계이다. 황 총리 후보자가 공직 시절 보여준 종교편향 이력이 그 수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특히 교회법이 사회법의 위에 있다는 저서의 내용은 공직에 몸담고 있는 법조인이라고 보기에 문제가 많은 대목이다. 불교계 단체들도 일제히 성명과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들의 입장문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총리지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또한 그 간 문창극, 이완구 국무총리 지명을 통해 드러난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도 요구합니다.

황 장관은 목회자와 전도사 등의 사택을 세금부과 대상으로 판결하고 있는 법원의 결정을 부정하는 등 종교편향적인 신념을 지닌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정 종교에 편향된 인물이 국정운영의 최고위층에 취임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민적 갈등을 우리는 이미 지난 2008년에 뼈저리게 경험하였습니다. 원리주의 친기독교적 성향을 대외적으로 드러낸 이명박 대통령 정권하에서 수많은 종교차별과 탄압을 경험한 불자들은 '헌법파괴 종교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 를 열어 정부의 종교편향적 자세를 비판하는 등 당시 우리사회의 갈등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국민 모두는 우리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진력할 국민통합형 국무총리를 원합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국무총리 지명 철회와 국민의 지지가 아닌 정권의 안위에만 천착해 부적절한 인물을 총리에 지명한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리더십을 재고할 것도 요구합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5월 22일 성명〉

시대착오적 복음 가진 인물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화합의 법음이 온누리에 퍼져나가야 할 부처님오신날을 불과 며칠 앞두고, 국민화합에 역행하고 국론분열의 중심에 섰던 황교안법무부장관이 총리후보자로 내정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황교안 내정자는 2004년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 재직시절 "재소자들을 기독교정신으로 교화해야만 확실한 갱생이 가능하다"라는 공직자로서 정교분리에 어긋난 충격적인 글을 기고한 바 있다.

또한 종교의 강요가 재소자들의 죄에 대한 처벌 외에 인격의 사살이라는 이중처벌을 초래한다는 많은 서구학자들의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황교안 내정자의 주장은 시대착오적 복음주의를 강요하는 것으로 놀랍기까지 하다.

"교회에는 세금을 부과해선 안 된다" "부목사 전도사 사택에도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교회에 대한 헌금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니 목사들의 월급에도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라는 종교 편향적이고, 투명사회의 시대적 소명에 역행하는 발언을 일삼아 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화합에 역행하고, 국론분열의 중심이 된 황교안 총리내정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불교청년회 5월 22일 성명서〉

국민 통합 아닌 분열 초래할 것

대통령은 지난 21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하였다. 대통령의 오랜 고민의 결과치고는 참담하다.

교도행정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법무부 소속의 정책기획단장이 민영교도소 설립을 추진하는 단체의 이사를 맡고 있다는 것은 법무부와 (사)아가페가 서로 민영교도소 설립에 관하여 이해당사자라는 점에서 부적절한 것이다.

또한 종교적 신념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종교인 과세도 안 되고 부목사, 전도사 등의 사택에도 과세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세상법 보다는 하나님법이 우선되어야한다는 등의 종교편향적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 신념의 황교안 내정자는 인권수호의 보루인 법무장관으로 있는 동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차별금지법 제정의 노력 등 인권향상을 위한 발자취를 찾아보기도 어렵고 단지 공안통으로서의 경력에 충실했었다.

박근혜 정부는 종교편향에 의한 대립과 분열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어느 한쪽에 경도되어 다른 말에는 귀를 막는 편향된 국무총리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대통합을 실현할 국무총리를 지명하여야 할 것이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5월 22일 논평문〉

社說

종교편향 총리 후보 절대 안된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에 대해 불교계가 공분하고 나섰다. 그의 종교편향 이력 때문이다. 황 총리 후보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행해왔던 행태는 '종교편향의 백화점' 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실제 황 총리 내정자는 자신의 저서 〈교화와 법 이야기〉에서 목회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으며, "세상법보다 교회법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는 등 공직에 있는 법조인이라고 보기에도 문제가 편향적 시작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외에도 그의 편향 이력은 너무 많아 일일이 거론하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이런 편향적 사고를 가진 총리 후보의 지명에 어느 때보다 가열차게 반대하고 있다.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현 정권이 기독교 편향적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불교 시민사회단체와 신행단체들은 총리 지명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황 총리 후보의 임명을 저지하기 위한 범종교계 · 시민사회단체 연대 기구도 발족됐다.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 · 시민사회단체들은 6월 2일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에 황 총리 후보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문건을 전달하기도 했다.

올해는 감리교 신학자였던 故변선환 목사의 타개 20주년이다. 변 목사는 한국 개신교가 타파해야 할 우상으로 교회중심주의를 꼽았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배타적 교회중심주의는 세상과 교회의 단절을 초래한다는 게 변 목사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그에게 독으로 돌아갔다. 그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주장으로 인해 감리교단에서 축출됐다.

종교인으로서 황 총리 후보와 故변 목사는 큰 차이점을 보인다. 한 명은 공직자이면서도 배타적 복음주의를 고수해 세상을 불편하게 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종교 간 대화의 상징으로 그 훈향이 이어지고 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종교의 도리라면 누가 올바른 행동을 했던 것일까. 또한 세상을 분란케 하는 자를 재상의 자리에 올리는 것도 올바른 국정 운영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

사찰경영 개론서가 출간된 까닭

사찰도 이제는 운영의 묘를 살린 경영이 필요한 시대다. 변화하는 신도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않으면 포교는 물론이고 사찰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사찰에 경영이라는 신조어가 낯설지 않다. 그만큼 경영이 이제는 일반 사회의 전유물만이 아닌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동국대 정각원과 경영전문대학원이 공동으로 '사찰경영 최고위 과정' 을 2010년 개설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조계종 연수에도 이와 동일한 과정이 과목으로 개설돼 스님들의 관심이 높다. 동국대 최고위 과정은 현재까지 90명의 스님과 20명의 재가자가 이수했다. 조계종 연수 사찰경영 과목은 매회 접수 정원을 초과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 '사찰 경영' 에 대한 출재가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증거다.

하지만 사찰 경영을 다룬 전문 교재나 개론서가 없던 것은 분명 문제였다. 이번에 동국대 정각원과 경영전문대학원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사찰경영론〉을 최근 발간한 것은 그런 문제를 불식시켰다. 〈사찰경영론〉을 펼쳐보면 사찰 운영과 행정을 경영적 측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다룬다. 이밖에도 기부활성화, 국고 보조금 활용 관리, 불교 리더십, 미디어 활용 등 사찰 경영 전반을 이해하기 위한 세부 분야들도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사찰 경영' 을 주제로 개론서가 발간된 것은 한국불교계서는 처음이어서 의미를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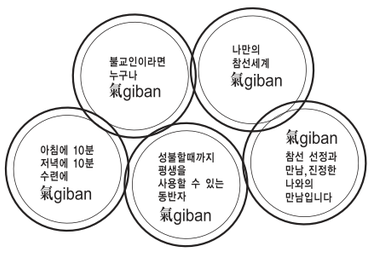
신도 감소와 재정 악화는 한국불교가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해야 한다는 긴급한 신호다. 따라서 선불교에 사찰경영을 접목해 생산적 불교를 실현해야 한다. 사찰과 경영의 만남, 그 도착지는 전국 사찰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찾아가는 데 있을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기반방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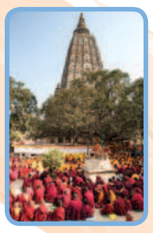

www.hyunbulshop.com

바랑 메고 떠나는 순례길

신심을 다해 마하연 여행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마하연투어 예약문의: 02) 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1.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 책정(거침없는 상품가격)
2.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3. 맞춤 순례 운영 *불교행사*
4.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5. 호텔/행사일정/식사 타사 비교 필수

출발확정 상품 [호텔-일정-포함내용-식사 : 타사비교 필수]

미얀마/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출발일 : 7월 11일, 8월 29일, 9월 2일	1,490,000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출발일 : 6월 24일, 7월 17일	1,390,000
[대한민국 영산] 북경/백두산	5일	출발일 : 7월 10일, 8월 30일	1,290,000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출발일 : 7월 10일, 8월 22일	1,290,000
[문수도량] 오대산/용강석굴	5일	출발일 : 7월 17일	1,390,000
[보현도량] 아미산/낙산대불	5일	출발일 : 7월 25일, 8월 18일	1,090,000
중남미 7개국	20일	출발일 : 7월 29일	11,590,000
미동부/캐나다	10일	출발일 : 9월 12일	2,610,000

미얀마
양곤/바고/시리암 5일
양곤/바간/헤호 5일
BEST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

티벳/부탄
티벳 6일
성도-라싸-얌드록쵸-간체-시가체
BEST 티벳핵심하늘열차 8일
중경-라씨-장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방콕/부탄 7일
카투만두-파로-팀푸-왕디포드랑-통사-푸나카-팀푸-파로-카투만두-나가르콧

인도/네팔/스리랑카
인도 9일
델리-라즈기르-나란다-보드가야-바라나시-아그라
BEST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나란다-쿠시나가르-룸비니-카필라바스투-쿠단-산카시아-아그라
인도/네팔 15일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마힌탈레-담볼라-시기리아-플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
BEST 스리랑카 완전일주 순례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블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라오스
BEST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 7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베트남/캄보디아
[베트남] 하롱베이 [캄보디아] 씨엠립 6일

태국
태국
방콕-아유타야-파타야 5일

대만/홍콩
대만 5일
대만 3대사찰 순례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련

중국
BEST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BEST [관음도량] 항주/보타/낙가산 5일
상해/항주/구화산/보타산 6일
BEST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BEST [문수도량] 북경/오대산 5일
[민족의 영산] 백두산 5일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훼리 크루즈(수륙대제 가능)
대룡훼리, 화동훼리, 위동훼리
세계3대 트래킹명소 호도협
곤명/호도협/옥룡설산 6일

세계 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일주탐방 9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미동부 일주탐방 9일

‘하심’으로 일군 판매왕 성공신화…

백효흠 대불련 총동문회장(前 현대자동차 사장)



백효흠 회장은 … 1951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난 백 회장은 1974년 경상대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1977년 단국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ROTC 장교로 전역 후 1977년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입사했다. 이후 1979년 판매 1위를 거머쥤으며 국내 판매본부장 등을 거쳐 2012년 베이징현대 사장을 역임했다. 2014년 12월 현대자동차 사장으로 정년퇴임했다. 경상대에서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 자동차의 중국 진출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2013년 상공인의날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시골 출신에 지방대를 나온 영업사원이 대기업 사장까지. 흔히 성공신화라고 말하는 길을 걸은 입지전적의 인물이 있다. 바로 백효흠 대불련 총동문회장의 이야기다. 1970년대 현대차 판매영업사원으로 시작해 중국 시장의 판매본부장으로 최고 판매증가율을 기록하고 현대차 본사 사장까지 역임한 그의 활동 이면에는 불교의 가르침이 크게 작용했다. 5월 19일 서울 조계사 인근의 동문회 사무실에서 백효흠 대불련 총동문회장을 만났다. 그가 판매왕의 신화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청년불자로서 쌓은 열정과 서원의 힘이 있었음을 알게 됐다.

진학의 고민 있었던 시절, 불교와의 만남

백 회장은 현대자동차 영업사원 출신으로 최초로 사장에 오르기 까지 그를 만들어 준 상당 부분이 그가 회사에 들어오기 전 부딪쳐 온 시간들이었다고 털어놨다. 특히 대불련 활동을 비롯한 학창시절의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1951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났다. 4명의 딸을 낳은 백회장의 어머니가 옥천사 청년암에서 불공을 들이고 낳은 아들이었다. 백 회장은 중학교 때까지 그곳에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해 학창시절을 보냈다. 고등학교 졸업 즈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만큼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안 그는 졸업 후 친구 2명과 함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당시 그는 작은 방에 칠판과 책상을 만들고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예비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외를 시작했다.

“ ‘언젠가는 고향에 돌아가 농촌을 번영시킨다’ 는 생각이 있었어요. 학창시절 읽은 〈상록수〉의 주인공처럼 말이죠.”

하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과외 시작 후 2달만에 함께 시작한 친구가 나란히 취직과 군입대로 떠난 것이다. 과외를 계속 했지만 학생 수는 줄어만 갔다. 스스로 공부에 소홀해지고 대학에 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든 찰라, 도움의 손길이 닿았다. 바로 불교와의 만남이었다.

고향친구인 제진 스님의 소개로 청년 백 회장은 1969년 6월 해인사로 들어갔다.

“해인사 약수암에서 5개월 동안 살았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 예불을 하고 한밤중 까지 공부했습니다. 먼동이 틀 때 책을 펼쳐 별이 뜰 때 덮는 나날이 계속됐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와서 돌아보면 참 좋을 때였습니다.”

이후 상경해 대학 입학시험을 치른 그는 1970년 진주농과대학(현재 경상대학교) 축산학과에 진학했다. 당시 농대로는 전문성을 갖춘 곳이면서 국립대학이라 학비가 저렴했고, 무엇보다 고향에 가까워 그의 꿈인 고향 부흥에 도움이 될 것 같았다.

꿈에 그리던 대학에 막 입학한 백 회장은 의욕이 넘쳤다. 학업 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전했다. 그런 그가 입학 후 가장 먼저 찾은 곳이 바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동아리방이었다.

“해인사에서 공부하던 시절, 대불련 학생들이 여름 수련대회를 해인사에서 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백련암에서 3000배를 진행하는 학생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정말 부러웠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이 바로 대불련이었습니다.”

백 회장은 대불련 경상대 지회장과 경남지부장, 중앙회 부의장을 맡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했다. 그 곳에서 평생의 동반자인 아내를 만나는 행운도 얻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농촌연구회, 고성학우회, 음악동아리OYMC에서도 가입해 활동했다. 과대표도 맡아 학과에도 관심을 가졌다.

‘농촌부흥’ 종자돈 마련 위해 현대차 입사

‘농촌 부흥’ 의 꿈을 지닌 백 회장은 대학시절 경남 진영의 단감단지를 벤치마킹해 고향에도 단감단지를 만들기로 했다. 대학 교수의 자문을 받아 지리산 돌감나무 씨앗을 구입해 논에 파종했다. 이후 묘목을 고향 주변 마을에 나눠주고 야산을 개간하기도 했다. ROTC로 군복무를 마치고 단국대 대학원에서 ‘농촌 지역사회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 분석’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뒤 다시 고향으로 향했다.

“하지만 고향에서 막상 일을 하려니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아무런 기반이 없었기 때문이죠. 가장 필요한 건 자금이었습니다. 농협 문을 두드렸지만 담보없이는 융자조차 얻기 힘들었죠. 힘이 들더라도 직장을 구해 종자돈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969년 해인사서 불심 닦으며 공부
70년 대학 입학, 대불련 활동 앞장서
〈만해전집〉 판매하며 영업 노하우 터득

77년 현대차 입사, 79년 판매 1위
베이징현대서 판매상승 1위 이끌어
사장 퇴임 후 후배 불자 멘토 자청
‘청년불자, 원대한 꿈 가져야’ 강조

서울로 상경한 백 회장은 우연히 현대자동차에서 영업사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았다. 입사를 위해 전력을 다한 그는 1977년 7월 영업사원으로 사회생활의 첫발을 띄게 됐다.여기서 79년 그는 판매 1위에 오른다.

백 회장은 “대불련 활동 중 진행한 만해전집 판매로 영업사원으로의 역량 배양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대불련 활동 기간 중 대불련 회원들은 망우리에서 만해 묘소를 발견했다. 대한불교청년회가 발견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대불련 대학생들의 활동이 이면에 있었다. 만해 묘소에 만해추모비를 세우기로 했지만 재원이 부족했다. 당시 백 회장은 〈만해전집〉을 들고 스님들과 불자들을 찾아다니며 이를 판매하는데 앞장섰다. 대불련 회원 중 가장 많은 전집을 판매한 그는 만해추모비 건립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 때 판매는 어떻게 해야 하는구나를 느꼈습니다. 낮은 자세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들의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현대차 입사 이후 2년만에 판매 최우수사원이 된 데에는 대학시절 닦은 판매활동이 있었습니다.”

‘좋은 벗을 많이 사귀면 앞으로 큰 힘이 되고 보탬이 될 것이다.’ 대불련 활동 중에 만난 다솔사 효당 최범술 스님의 조언도 그의 다방면에 걸친 교우관계의 밑거름이 되었다. 백 회장은 그 때부터 사람들과 인연을 맺을 때 어떻게 하면 신뢰를 줄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백 회장은 “훗날 사회에 진출해 나름대로 고객 한 사람 얼굴 뒤에 백명이 숨어있다는 ‘1대 100의 법칙’ 을 만들었는데, 고객 한명이 백명을 대표한다는 영업 지론이 이때 형성됐다”고 말했다. 영업은 결국 인간관계다. ‘1대 100의 법칙’ ‘오른손법칙’ , ‘까말가법칙’ 등 백 회장이 닦은 길에는 이러한 인간관계에 대한 불교의 가르침이 담겨 있었다. 한 사람의 만남에 최선을 다하면 백 사람에게서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1대 100의 법칙에서부터 목표를 두고 한쪽 방향으로 꾸준히 정진하면 결국 이룬다는 오른손의 법칙, ‘건곤일척 백척간두’ 의 마음으로 얼굴에 철판을 깔고 용기를 내 도전하면 이뤄진다는 ‘까말까’ 까지 모두 불교 가르침이 녹아있었다.

“영업은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명확합니다. 바로 ‘하심’ 에 의한 솔선수범과 희생이죠. 사랑을 받으려면 모두를 섬겨야 합니다.”

그가 중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철저히 중국인의 마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노력 때문이었다. 그런 경험 탓에 백 회장은 불교의 핵심가치로 동사섭(同事攝)을 들었다. ‘공경하는 마음을 집처럼 쌓으라’ 는 흠재(欽齋)라는 법명도 이 같은 내용이다. 백 회장은 “내 중심 아닌 상대방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극진히 모신 점이 불교사상과도 잘 맞았다고 생각한다. 37년 동안의 사회생활의 초석이 됐다”고 평가했다.

대불련 총동창회 분열 속에 회장 맡아

이처럼 서원을 세운 백 회장은 현대차에서 승승장구했다. 수습을 거쳐 사원, 주임, 수석주임, 대리를 거친 뒤 관리직으로 옮겨 국내영업본부 영업지원 사업부장을 거쳐 상용국내사업부장, 베이징현대기차(北京現代汽車) 판매본부장. 베이징현대 총경리(사장), 현대자동차 부사장, 그리고 사장까지 무려 17개 계단을 차례로 오르게 된다.

특히 2008년 중국 길에 올라 다음해에는 전년보다 97% 증가한 57만 대의 차를 판매했으며 시장점유율도 전년에 비해 5.5%에서 1.5% 포인트 오른 7%를 기록해 모든 제조사를 통틀어 전년 대비 판매증가율 1위를 달성했다. 이뿐만 아니라 50여 개의 업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후발주자인 베이징현대가 판매량 4위를 질주하며 2003년 5만 대 생산에서 10년 뒤에는 100만 대를 생산해내며 중국에 진출한 합자 브랜드 가운데 최단기간에 누적판매 600만 대도 이뤄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백 회장은 2010년 현대자동차 부사장을 맡았으며 2011년 베이징현대 자동차 사장을 지낸 뒤 2012년에는 본사 사장으로 승진했다. 백 회장의 베이징현대 사장 시절 현대차 딜러는 300명에서 800명까지 늘었다.

공교롭게 백 회장의 청년시절 기틀이 된 대불련은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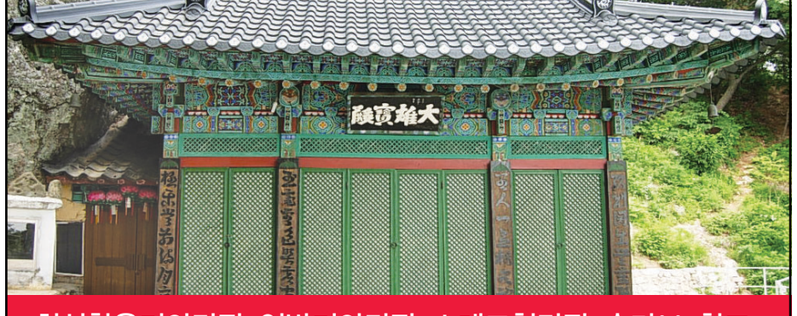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 고 제 작

“내 인생 2막은 대불련 활성화”



1976년 대불련 경남지부 동문들이 학생시절 법회 사찰이었던 연화사를 순례했던 당시 모습. 뒷줄 왼쪽 세 번째 군복을 입은 이가 백효흠 회장이며 앞줄 왼쪽 첫 번째가 막역한 지기인 김상현 교수다.



베이징현대에서 근무하던 시절 판매 딜러망을 설명하고 있는 백효흠 회장. 백회장은 2008년 중국으로 건너가 2012년 본사 사장을 맡을 때까지 하심으로 중국인들을 어루만지며 현대차가 판매 증가 1위에 오르는데 기여했다.



일기의 내용을 묶은 책 〈대륙을 휩쓴 열정〉을 읽고 있는 백효흠 총동문회장.



2014년 7월 17일 강화 전등사에서 진행된 대불련 영캠프에 참여해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백효흠 총동문회장.



베이징현대 시절 중국행 비행기에서부터 꼼꼼히 기록한 백 회장의 이 일기 5권. 여기에는 불교의 가르침이 담겨있다.

이 당시 힘든 상황에 처해있었다. 대학생불교동아리 수감소에 이어 총동문회는 분열돼 갈라져 있었다. 2013년 후보 자격과 절차, 정족수 논란 속에서 총동문회 회장이 추대되며 동문사회가 갈등에 휩싸였다. 이어 2013년 11월 조계종 스님들의 시국선언을 비난하는 성명서 발표에 총동문회장의 이름이 등재되면서, 정체성 시비가 일었고 결국 총동문회와 전국동문회로 양분됐다.

이런 와중에 총동문회는 백효흠 회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백 회장은 소통화합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그동안의 총동문회 활동에 실망한 대불련 동문들을 설득했다. 수차례 전원회의 워크숍을 열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2014년 4월 통합동문회의 출범을 선언했다. 갈라졌던 동문들도 백 회장을 중심으로 노력하겠다는 지지 성명을 냈다. 백 회장의 인화력과 추진력이 돋보이는 대목이었다. 2014년 12월 현직에서 정년퇴임한 백 회장은 대불련 총동문회를 인생 제2막으로 삼고 있다.

침체된 대불련 살리기 위한 3 · 3 · 3 전략 올 목표

그가 느꼈던 열정과 서원을 청년불자들에게 회향하기 위해서다. 중국시장 개척 당시 딜러들과 함께 외치던 ‘8(연간 80만대 판매) · 8(시장점유율 8% 확보) · 8(고객만족도 8위 이내)’ 구호는 이제 대불련을 살리기 위한 ‘3 · 3 · 3’ 으로 바뀌었다.

3000명의 동문을 추가로 발굴하고, 300개 대학에 지회를 설치하는 한편, 대불련과 대불련 총동문회, 동문회 산하 사단법인 대불의 3각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동문회관 건립을 비롯해 청년불자들의 고민인 취업난을 해결할 멘토링 사업 등에 대한 원력도 세웠다. 2017년 창립 50주년을 맞이할 대불련을 두고 그는 현대차 영업사원에서 대불련 영업사원으로 돌아가 열심히 뛰고 있다. 대학생 불자들을 대상으로 대불의 장학재단도 정상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강연과 지부 방문을 통한 후배 격려에 나서고 있다.

‘청년불자들, 원대한 꿈을 지녀라’

대불련에서 백 회장은 한국사학계의 거장인 故김상현 동국대 교수를 만나 교우를 나눴다. 백 회장은 김 교수와 민족 통일을 발원하며 꿈을 키웠다.

“당시 10 · 26계엄령으로 유신반대 집회가 이어질 때였습니다. 절친인 김 교수와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함께 고민했어요. 결국 분단된 민족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을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청년으로서 이러한 분단된 민족과 조국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신라 화랑의 활동에서 찾기로 했습니다.”

김상현 교수와 화랑유적지 답사를 진행한 백 회장은 경주박물관에서 임신서기석을 탁본하며 원을 세웠다. 국가에 도움이 되는 청년으로 활동하겠다는 서원이었다.

“경주박물관에서 임신서기석을 탁본할 때였습니다. 임신서기석에는 당시 젊은 화랑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맹세하는 문구가 있었어요.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 이 것이구나’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당당한 청년으로 국가에 보탬이 되는 이가 되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백 회장은 청년들이 가장 먼저 원대한 꿈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직에 있으며 수많은 청년들을 보았고, 이들이 눈앞의 것에 메달려 발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고, 또 긴 목표를 세우고 정진하는 모습도 보았다.

“요즘은 3포세대를 넘어 5포, 8포세대라고도 합니다. 희망이 없다고도 해요. 예전보다 조건이 열악하고 기회가 적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인생을 근시안적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백 회장은 “최근에 취업난으로 많은 청년들이 단순히 스펙 쌓는데만 눈을 돌리고 있다”며 “물론 자신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역량을 쌓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인생을 지탱해주고 이끌어 주는 서원을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회장은 조언이 필요한 대불련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만나 멘토로서 이러한 점을 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영업사원으로부터의 노하우를 담은 책을 내기도 했다. 중국으로 향하며 쓰기 시작한 일기의 내용을 엮은 것이다. 여기에도 티벳에서 느낀 감정 등 중국에서의 일화를 비롯해 불교와의 인연 등이 담겨있다.

현재 자택에 가까운 보라매 공원의 군법당에서 매일 아침 108배로 하루를 맞이하는 백 회장은 최근에는 현직에 있으며 못한 신행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오산 명찰 순례를 통해 전국사찰 순례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4월에는 쌍계사와 불일암을 답사했다.

“결국 모든 것은 신뢰관계입니다. 이를 잘 지키는지 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한 하심으로 모든일에 임할때 보다 나은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법일기

박물관은 살아있는 포교 현장

현대사회에서 ‘뽀로로’ 같은 캐릭터 하나만 잘 만들어도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하나가 부를 창출해 내는 시대다. 고판화박물관이 설립될 당시 국가에 등록된 박물관은 300여 개에 불과했지만 2015년 현재 800여 개로 넘어섰다. 이를 보면 문화시설 중 핵심 요소로 박물관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실질적인 예가 바로 필자가 운영하는 고판화박물관이다.

처음 목판을 수집해 사찰로 갖고 왔을 때였다. 한 신도가 스님이 목판을 자꾸 절로 가져오자 못마땅하게 생각했는지 이렇게 말했다. 사찰을 비우고, 중국과 일본 등을 다니며 목판을 가지고 오는 것에도 불만이 있었을 터였다.



그림 · 박구원

“왜 자꾸 절에 나무조각을 가지고 오십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절에서 기도하러 오라고 오라고 해도 오지 않는 세상 아닙니까. 절에 가면 즐길거리가 있고 재미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올 겁니다. 이 작은 목판들이 그 역할을 할꺼구요.”

신도들에게 이 작은 목판 하나 하나가 모이면 일반시민들이 불교를 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득했다. 목판이 모여 목판화학교 등을 열고, 다양한 포교를 진행하자 기존 신도들도 이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대부분 신자들이 조각도를 들고 목판화를 새겨보는 등 생활 예술인이 되어있다.

그 이후 문화관광체육부 주관으로 조계종 총무원에서 열린 종교박물관 세미나에서 필자가 이런 경험담을 바탕으로 발표한 것이 바로 ‘1사찰 1박물관 운동’이었다. 이제는 문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포교도 문화를 통해 실천될 때, 자연스럽게 신도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요지였다. 각 사찰을 비롯한 성당과 교회에서 박물관을 운영하자는 발표에 많은 종교인들이 관심을 보였다.

불교계에서는 이미 성보박물관이 잘 마련돼 있다. 하지만 박물관 운영 측면에서 보면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

군장병과 함께하는 숲속판화학교를 할 때의 일화다. 매주 1회 3시간씩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전통 목판화 제작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연 3000명의 장병들이 참여했다. 이 중 하루는 장병들이 티셔츠를 입고 박물관을 방문했다. 지난번 방문시 참여한 면 판화를 면티셔츠에 찍어 단체로 만든 것이었다.

한 장병은 “이 티를 병영에서도 즐겨 입습니다. 제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애착이 갑니다”고 하였다. 당초 판화를 통해 집중력을 키우고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기 위해 도입했지만, 이런 방식으로도 생활에서 활용되는 구나고 생각되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이밖에도 장병들이 집에 편지를 보낼 때 직접 어머니 얼굴을 새긴 판화 등을 활용한다고도 했다.

다시 돌아와 이웃종교를 말해보면 이웃종교는 선교를 목표로 박물관을 건립하기 때문에 부족한 유물 환경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위의 생활 포교와 같이 말이다. 하지만 불교계는 풍족한 유물이 있음에도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박물관의 늘어난 숫자만큼 박물관이 칭찬을 받고 있지는 않다. 성보박물관을 관람하다 보면 대부분이 수장고에 보관돼있고, 전시된 유물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또 운영이 부실해 문을 닫아 놓다시피 하는 성보박물관이 많다.

숲속 판화학교와 같이 성보박물관이 지닌 유물을 활용하고, 템플스테이와 접목하면 보다 많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와 자연과 명상이 어울어진 문화형 템플스테이를 전개해 나아간다면, 21세기가 한국불교의 새로운 중흥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1사찰 1박물관 운동’ 을 제창해 본다.



한선학 고판화박물관 관장(명주사 주지)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